

코로나19와 교육 :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경기도교육연구원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코로나19와 교육 :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연구자 : 박미희 경기도교육연구원
소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안수현 세명대학교

CONTENTS

요약 _ 003

I. 코로나19와 교육 _ 007

II.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생활과 인식 변화 _ 012

III. 코로나19 이후 교사의 생활과 인식 변화 _ 066

IV.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의 인식 변화 _ 106

V.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불평등 _ 129

VI. 시사점 _ 170

참고문헌 _ 176

부록(설문지) _ 177

요약

- 2020년 1학기 학교의 모습은 혼란과 균열, 무방비, 멈춤, 딜레마, 불규칙 등의 단어로 이야기되며, 순차적 분리등교 개학 후 약 두 달간의 학교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요구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변화와 대응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온라인수업과 학교에서의 등교수업이 연계되어 가정배경의 차이가 학습상황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음.
-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 한달 여 지난 2020년 7월, 학생, 교사, 학부모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변화를 겪고,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재난이 불러낸 전환을 준비하고 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첫 시작은 지금의 재난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는 일일 것임.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불러낸 재난의 일상을 겪고 있는 학교구성원의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교육의 관점, 요구,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함.
- 경기도 내 800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21,064명), 보호자(31,042명), 교사(3,860명)가 2020년 7월에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생활은 외부활동은 제한되었지만, 사교육은 늘어났고, 친구 및 가족과의 활동은 줄어든 반면,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은 매우 증가하였음. 이러한 생활은 학교급에 따라, 가정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갑작스레 시작된 온라인수업에 대한 실태는 초중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초등학생은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보호자의 지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통에 익숙하고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도 큰 불편이 없지만, 디지털기기의 사용시간이 월등히 많았음. 코로나19 이전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등 교육과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음.

- 다행히 학생들은 온라인수업과 방역 등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급에 따라 가정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함. 이는 변화된 환경이 학생의 격차를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학교교육이 교육격차 해소의 역할로 학생의 개별학습 환경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비대면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시민의식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이 절실함.
- 온라인수업이 긴급히 이루어졌음에도 교사들은 학생 개별 학습상태를 확인하고, 질문 및 평가나 과제에 피드백 하는 등 온라인수업의 적절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5~30%의 교사는 학습상태 점검 및 질문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온라인수업 운영에 있어 학생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육을 원활하고 편안하게 진행하게 해주었는지 느낄 수 있는 결과임.
- 등교일이 줄어 든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학생과의 라포형성이 안되는 부분을 가장 어려워함.
- 소속 학교의 자치 및 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학교 자율성보다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사가 65%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매우 높은 편임.
-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의 내용적인 변화를 가장 많이 겪은 직업이 교사라고 할 수 있음. 기존에 해왔던 대부분의 일들이 변하였고, 동시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와 대응의 주체로서, 또한 미래사회의 교육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사자로서 교사의 노력과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함.

- 분리등교방식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학교급이나 가정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학교가 지녀왔던 돌봄의 기능이 학부모에게는 더 큰 공백으로 느껴진 것으로 판단하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러한 공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온라인학습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특히 학습지원의 어려움과 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한 지도는 중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 크게 나타남. 많은 학부모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온라인학습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와의 대화는 많지 않다고 응답함.
- 학부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생(자녀)의 학교생활 중 방역과 위생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는 교우관계, 중고등학교는 수행평가 및 과제, 진학진로에 신경 쓰는 경우도 많음.
- 재난이 불러낸 변화와 적응의 시간 동안 학부모는 돌봄민주주의, 학습복지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과 보다 근본적인 교육체제의 전환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는 학습 격차를 양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의 공백에 따라서도 학습, 돌봄, 심리 등 학생 간 다양한 격차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돌봄의 공백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낮 시간 보호자의 부재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 그나마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부모가 온라인 학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사교육을 통해 학습과 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돌봄의 부재와 가정의 제한적 지원 속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학생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낮 시간 돌봄의 공백과 열악한 가정 형편 속에 놓인 학생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학습 결손과 돌봄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학교의 지원은 학교의 여건과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격차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 더욱이 새로운 수업방식의 변화는 기존 교사들의 역량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음.

- 따라서 코로나19는 학교 교육 속에 내재해 있던 교육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욱이 그 격차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 신체적 조건, 정서·심리적 특성, 학습 환경과 교수자 특성, 학교의 정책적 지원까지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습 복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여건과 맥락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이 요구됨.

I .

코로나19와 교육

1. 코로나19가 불러낸 변화

2020년 1학기, 변화와 대처 사이..

-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으로 전국의 학교는 4차례 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한 후, 2020년 4월 단계적 온라인개학으로 학기를 시작했고, 6월에서야 학교 문을 열어 학생을 등교시켰음.
- 2020년 1학기 학교의 모습은 혼란과 균열, 무방비, 멈춤, 딜레마, 불규칙 등의 단어로 이야기되며, 순차적 분리등교 개학 후 약 두 달간의 학교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요구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변화와 대응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었음.
- 온라인수업, 학교 내 방역, 분리등교, 돌봄 등 학교운영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음. 백병부(2020)는 온라인수업이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교사와의 소통과 학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학생 간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소통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음. 이보람(2020)은 원격수업의 교육콘텐츠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해 학부모의 41.9%가 그저그렇다. 39.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또한, 초등긴급돌봄에 대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 및 방역지원 체계를 요구하였고(김미정, 2020), 불규칙한 '집콕생활'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일상에서 학교의 존재의미를 살펴야 하며(경향신문, 2020.7.2.), 방역과 학습, 안전과 배움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학교민주주의의 정착을 강조(시사IN, 2020.6.18.)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음.

변화와 대처를 해내는 동안 드러난 교육 불평등

- 우리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재난 상황에서 더 심화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 있음.
- 학습의 규칙성은 교육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 휴교, 원격교육 등으로 인한 학습의 불규칙은 새로운 학습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까지는

학습의 공백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은 교육 불평등을 팽창시킬 것이라고 함(BBC NEWS 코리아, 2020. 6. 7.).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가정에서의 온라인수업과 학교에서의 등교수업이 연계되면서 가정배경의 차이가 학습상황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온라인수업 후 치러진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 상위권 학생들은 그대로인 반면, 중위권 학생이 하위권으로 떨어진, ‘교육 양극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하며(한겨레신문, 2020. 7. 8.),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상황에서 학교·교사별 편차나 학부모·사교육의 조력 여부 등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 7. 7.)

2. 학교구성원의 생활은 어떠했나

2020년 1학기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일상은?

-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 한달 여 지난 2020년 7월. 학생, 교사, 학부모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변화를 겪고,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주중 평일 낮에 집에 있으며 온라인수업을 들어야 하는 낯선 일상의 학생, 디지털기기의 사용시간이 많아져서 좋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온라인수업이 어려워 싫기도 한 학생,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것이 답답한 학생, 온라인수업 자료를 만들고 익숙하지 않은 카메라 앞에 선 교사, 일주일에 한번 등교하는 학생들과 라포(rapport)가 잘 형성되지 않는 교사, 자녀가 낮 동안 수업은 잘 듣는지 밥은 먹는지 뿐만 아니라 감염예방이 항상 걱정인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의 일상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었음.
- 또한, 디지털기기의 소유 및 사용, 온라인수업 환경, 방역물품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돌봄서비스 지원, 식재료 제공 등 코로나19를 겪는 교육구성원의 모습은 가정의 상황과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새로운 표준 찾기

-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는 조사결과(5월 24%, 6월 47%, 7월 53%)도 보고되었음(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2020. 7. 29.).
- 최근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감염병 학자들의 논문 18편을 기초로 분석한 코로나19의 미래 예상 시나리오를 보고했는데 예상 시나리오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2021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6개월째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중이다. 간헐적 봉쇄(이동제한)가 뉴노멀이 됐다. 백신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공급은 지지부진하다.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열추 2억5천만명, 사망자 수는 175만명을 넘어섰다.” (한겨레신문, 2020. 8. 9.)

- 재난이 불러낸 전환을 준비하고 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첫 시작은 지금의 재난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는 일일 것임.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불러낸 재난의 일상을 겪고 있는 학교구성원의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교육의 관점, 요구,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함. 이 같은 분석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새로운 표준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3. 조사 개요

조사내용 : 학생, 보호자, 교사의 생활 실태와 인식 변화, 교육 격차

- 학생의 생활과 인식

- 수면, 식사,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주로 거주하는 곳, 함께 지내는 사람 등 돌봄 실태
- 정보통신기기 사용, 외출시간, 사교육시간, 대화시간 등의 개인 생활의 변화
- 온라인학습 환경, 온라인학습 지원자, 온라인학습 시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 등 학습활동 실태
- 코로나19 이후 관심분야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인식의 변화 : 교육정책 변화 요구, 재난 지원에 대한 요구, 일상의 변화 체감
-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안정감

- 교사의 생활과 인식

- 온라인수업 : 수업 준비, 수업제작 시간, 운영방식, 선호도, 디지털역량, 어려움, 학생과의 소통
- 등교수업 : 병행에 대한 어려움, 학습격차 인지, 평가 운영
- 학생 생활교육 : 학생과 상호작용 및 상담, 학부모와 상호작용, 진로교육
- 학교운영 : 학교자치, 학교내 의사결정, 협의 정도
- 교사 개인 상황 : 지원 요구사항, 퇴근 후 생활 변화, 정신적 건강

- 학부모의 교육지원과 인식

- 돌봄 실태 :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학생 돌봄 실태(맞벌이, 경제적수준)
- 온라인수업 지원 : 가정내 학습환경, 교육비 증가, 온라인학습 지도·관리
- 코로나19 이후 인식 변화 : 자녀교육 중요한 부분, 교육정책 변화 요구, 재난 지원에 대한 요구

조사방법 및 참여자

- 조사 방법

- 조사기간 : 2020. 7. 15 ~ 7. 27.
- 조사대상 : 경기도 내 800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 보호자 및 교사 전체
- 조사방법 : 온라인(모바일) 조사

• 조사참여자

응답수(명)	초등학교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전체
	초등 저학년 (3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학생	2,420	6,201	6,604	5,839	21,064
보호자	12,845		10,020	8,177	31,042
교사	1,391		1,159	1,310	3,860

분석방법

- 이 연구는 학교구성원별로 학교급, 가정배경(경제적 상황, 맞벌이여부 등), 교사의 경력, 학교소재지역의 규모 등의 배경변수에 따라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¹⁾)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조사 집중도를 고려하여 학생용 문항의 일부를 선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일부 문항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응답이 존재함.
- 이 보고서의 결과표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로 표기하였는데, 소수점 둘째자리의 값에 따라 결과표에 제시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1) 카이제곱검정의 유의확률은 *** $p < .001$, ** $p < .01$, * $p < .05$ 임. 모든 결과표에 동일하게 적용함.

II.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생활과 인식 변화

1. 학생의 생활 실태 및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수면시간은 비슷하다고 한 학생과 변화가 있다는 학생이 비슷하게 응답하였으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높고, 고등학생의 경우 초중학생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가정경제상황이 낮은 학생이 수면의 변화가 더 컸는데, 더 불규칙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하루 평균 잠자는 총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4.4%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늘었다는 28.1%, 줄었다는 17.6%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이전과 비슷하게 잠을 자는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이전과 비슷하게 잠을 자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고, 타 학교급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이 높았음.
- 가정경제상황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은 이전과 비슷하다(55.9%)는 비율이 더 높고, 경제상황이 가장 낮은 가정에서 줄거나(23.0%) 늘었다(33.7%)고 응답한 학생이 경제상황이 높은 가정보다 훨씬 많았음.

〈표 1〉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학교 급별	초등_저	301	783	1336	2420	231.936***
		12.4	32.4	55.2	100.0	
	초등_고	850	1797	3554	6201	
		13.7	29.0	57.3	100.0	
	중학교	1242	1714	3648	6604	
		18.8	26.0	55.2	100.0	
	고등학교	1305	1622	2912	5839	
		22.3	27.8	49.9	100.0	
가정 경제 상황 별	상	744	1267	2548	4559	75.512***
		16.3	27.8	55.9	100.0	
	중	2650	4203	8329	15182	
		17.5	27.7	54.9	100.0	
	하	304	446	573	1323	
		23.0	33.7	43.3	100.0	
전체	3698	5916	11450	21064		
	17.6	28.1	54.4	100.0		

-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점심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점심식사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초중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음. 집밥 먹는 습관과 배달음식은 주로 이전과 비슷하지만 줄었다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많고,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주로 이전과 비슷하지만 줄었다는 응답이 많음.

-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5.6%는 항상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먹는다는 31.3%, 거의 먹지 않는다는 11.2%, 전혀 먹지 않는다는 1.9%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점심식사를 항상 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점심식사를 항상 먹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
- 가정경제상황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전혀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가정의 학생보다 월등히 많았음.

〈표 2〉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점심식사 여부 (N, %)

		전혀 먹지 않는다	거의 먹지 않는다	대부분 먹는다	항상 먹는다	전체	χ^2/p
학교 급별	초등_저	20	131	598	1671	2420	638.745***
		0.8	5.4	24.7	69.0	100.0	
	초등_고	89	506	1681	3925	6201	
		1.4	8.2	27.1	63.3	100.0	
	중학교	140	864	2147	3453	6604	
		2.1	13.1	32.5	52.3	100.0	
가정 경제 상황 별	고등학교	144	859	2169	2667	5839	394.416***
		2.5	14.7	37.1	45.7	100.0	
	상	83	360	1133	2983	4559	
		1.8	7.9	24.9	65.4	100.0	
	중	260	1726	5007	8189	15182	
		1.7	11.4	33.0	53.9	100.0	
	하	50	274	455	544	1323	
		3.8	20.7	34.4	41.1	100.0	
전체		393	2360	6595	11716	21064	
		1.9	11.2	31.3	55.6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집밥(한식)을 먹는 습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6.5%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늘었다는 31.0%, 줄었다는 12.5%로 나타나 약 44%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과반수 이상이 별로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나, 변화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히려 늘었다(36.7%)는 응답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 집밥(한식)을 먹는 것이 줄었다(15.8%)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음.

〈표 3〉 집밥(한식) 먹는 습관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296	889	1235	2420	195.757***
		12.2	36.7	51.0	100.0	
초등_고		628	1839	3734	6201	
		10.1	29.7	60.2	100.0	
중학교		788	1887	3929	6604	
		11.9	28.6	59.5	100.0	
고등학교		925	1916	2998	5839	
		15.8	32.8	51.3	100.0	
전체		2637	6531	11896	21064	
		12.5	31.0	56.5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편의점 음식 및 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6.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줄었다 28.5%, 늘었다 25.1%로 나타나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이전 대비 편의점 음식 및 패스트푸드 섭취가 줄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오히려 편의점 음식 및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아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
- 가정경제상황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 줄었고(32.7%), 낮은 가정의 학생은 늘었다(35.9%)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표 4〉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 먹는 습관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학교 급별	초등_저	647	621	1152	2420	226.612***
		26.7	25.7	47.6	100.0	
	초등_고	2091	1253	2857	6201	
		33.7	20.2	46.1	100.0	
	중학교	1808	1639	3157	6604	
		27.4	24.8	47.8	100.0	
	고등학교	1462	1784	2593	5839	
		25.0	30.6	44.4	100.0	
가정 경제 상황 별	상	1492	1030	2037	4559	132.183***
		32.7	22.6	44.7	100.0	
	중	4195	3792	7195	15182	
		27.6	25.0	47.4	100.0	
	하	321	475	527	1323	
		24.3	35.9	39.8	100.0	
전체		6008	5297	9759	21064	
		28.5	25.1	46.3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배달 음식을 먹는 습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8.5%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늘었다는 28.2%, 줄었다는 23.4%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이전 대비 배달 음식 섭취가 줄었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생의 경우 오히려 배달 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이 높아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가정경제상황별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배달음식 먹는 것이 줄었고(26.7%), 낮은 가정의 학생은 늘었다(34.8%)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표 5〉 배달 음식 먹는 습관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학교 급별	초등_저	546	803	1071	2420	200.005***
		22.6	33.2	44.3	100.0	
	초등_고	1769	1519	2913	6201	
		28.5	24.5	47.0	100.0	
	중학교	1462	1801	3341	6604	
		22.1	27.3	50.6	100.0	
	고등학교	1143	1808	2888	5839	
		19.6	31.0	49.5	100.0	
가정 경제 상황 별	상	1217	1251	2091	4559	66.468***
		26.7	27.4	45.9	100.0	
	중	3428	4220	7534	15182	
		22.6	27.8	49.6	100.0	
	하	275	460	588	1323	
		20.8	34.8	44.4	100.0	
전체	4920	5931	10213	21064		
	23.4	28.2	48.5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습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8.9%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늘었다는 18.3%, 줄었다는 12.8%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전 대비 건강보조식품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오히려 건강보조식품 섭취가 줄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아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6〉 건강보조식품 먹는 습관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226	506	1688	2420	69.583***
		9.3	20.9	69.8	100.0	
초등_고		862	1214	4125	6201	
		13.9	19.6	66.5	100.0	
중학교		895	1079	4630	6604	
		13.6	16.3	70.1	100.0	
고등학교		709	1053	4077	5839	
		12.1	18.0	69.8	100.0	
전체		2692	3852	14520	21064	
		12.8	18.3	68.9	100.0	

- 디지털기기를 하는 사용하는 시간은 학습 목적과 학습 외 목적 각각 2시간~3시간 사이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이후 사용시간의 변화는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늘었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하루 평균 학습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테블릿 등을 사용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25.8%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3.0%, 4시간 이상은 22.2%,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은 17.7%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은 학생이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는데, 중고등학생은 4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7〉 하루 평균 학습 목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저	271	659	690	459	283	58	2420	1597.908***
	11.2	27.2	28.5	19.0	11.7	2.4	100.0	
초등_고	745	1988	1737	913	717	101	6201	
	12.0	32.1	28.0	14.7	11.6	1.6	100.0	
중학교	449	1303	1766	1361	1613	112	6604	
	6.8	19.7	26.7	20.6	24.4	1.7	100.0	
고등학교	481	898	1241	988	2064	167	5839	
	8.2	15.4	21.3	16.9	35.3	2.9	100.0	
전체	1946	4848	5434	3721	4677	438	21064	
	9.2	23.0	25.8	17.7	22.2	2.1	100.0	

- 하루 평균 학습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테블릿 등을 사용하는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약 74%의 학생은 디지털기기의 사용 시간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 전체 학생의 68.9%는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줄었다는 4.6%, 이전과 비슷하다는 26.5%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습 목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매우 높았음.
-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디지털기기로 학습하는 시간은 늘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학교 등교수업이 가장 적고 온라인수업 시간이 많았던 초등학생의 디지털기기 학습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이전에 디지털기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사용에 대한 자율적 선택이 어려웠던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기의 소유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8〉 하루 평균 학습 목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 / p
초등_저	133	1810	477	2420	71.735***
	5.5	74.8	19.7	100.0	
초등_고	304	4210	1687	6201	
	4.9	67.9	27.2	100.0	
중학교	280	4534	1790	6604	
	4.2	68.7	27.1	100.0	
고등학교	247	3962	1630	5839	
	4.2	67.9	27.9	100.0	
전체	964	14516	5584	21064	
	4.6	68.9	26.5	100.0	

- 하루 평균 학습 외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테블릿 등을 사용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24.1%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3.5%, 4시간 이상은 23.0%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은 하루 평균 학습 외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테블릿 등을 4시간 이상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9〉 하루 평균 학습 외 목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 / p
초등_저	493	711	564	288	286	78	2420	1778.517***
	20.4	29.4	23.3	11.9	11.8	3.2	100.0	
초등_고	1198	1861	1376	679	909	178	6201	
	19.3	30.0	22.2	10.9	14.7	2.9	100.0	
중학교	481	1313	1641	1250	1842	77	6604	
	7.3	19.9	24.8	18.9	27.9	1.2	100.0	
고등학교	366	1060	1500	1039	1805	69	5839	
	6.3	18.2	25.7	17.8	30.9	1.2	100.0	
전체	2538	4945	5081	3256	4842	402	21064	
	12.0	23.5	24.1	15.5	23.0	1.9	100.0	

- 하루 평균 학습 외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테블릿 등을 사용하는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6.7%는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43.8%, 줄었다는 9.5%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61.6%)이 학습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음.

〈표 10〉 하루 평균 학습 외 목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177	1490	753	2420	277.205***
	7.3	61.6	31.1	100.0	
초등_고	600	2894	2707	6201	
	9.7	46.7	43.7	100.0	
중학교	585	2990	3029	6604	
	8.9	45.3	45.9	100.0	
고등학교	634	2466	2739	5839	
	10.9	42.2	46.9	100.0	
전체	1996	9840	9228	21064	
	9.5	46.7	43.8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사교육 시간은 비슷하다가 가장 많고, 늘었다가 다음으로 많음. 늘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고, 줄었다는 응답은 초등 저학년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음. 반면,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는 시간은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온라인수업의 확대 영향으로 보임.
- 하루 평균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받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23.4%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2.0%, 안한다는 17.4%,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은 14.3%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4이상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는 학생은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고등학생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22.0%나 나타남.

〈표 11〉 하루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저	443	804	535	199	72	367	2420	1744.645***
	18.3	33.2	22.1	8.2	3.0	15.2	100.0	
초등_고	971	1805	1367	685	404	969	6201	
	15.7	29.1	22.0	11.0	6.5	15.6	100.0	
중학교	543	1228	1719	1126	948	1040	6604	
	8.2	18.6	26.0	17.1	14.4	15.7	100.0	
고등학교	383	799	1298	1003	1070	1286	5839	
	6.6	13.7	22.2	17.2	18.3	22.0	100.0	
전체	2340	4636	4919	3013	2494	3662	21064	
	11.1	22.0	23.4	14.3	11.8	17.4	100.0	

-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0.5%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40%의 학생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늘었다 27.1%, 줄었다 12.4%).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줄었다는 응답이 늘었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은 줄었다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표 12〉 하루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590	514	1316	2420	608.269***
	24.4	21.2	54.4	100.0	
초등_고	997	1643	3561	6201	
	16.1	26.5	57.4	100.0	
중학교	519	1877	4208	6604	
	7.9	28.4	63.7	100.0	
고등학교	502	1673	3664	5839	
	8.6	28.7	62.8	100.0	
전체	2608	5707	12749	21064	
	12.4	27.1	60.5	100.0	

- 하루 평균 집에서 학교 과제(숙제, 수행평가, 지필평가 준비 등)를 하는 사용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33.0%는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미만은 22.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21.8%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4시간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21.3%였음.

〈표 13〉 하루 평균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저	957 39.5	955 39.5	327 13.5	92 3.8	34 1.4	55 2.3	2420 100.0	3732.886***
초등_고	2185 35.2	2448 39.5	957 15.4	259 4.2	163 2.6	189 3.0	6201 100.0	
중학교	962 14.6	2232 33.8	1724 26.1	719 10.9	809 12.3	158 2.4	6604 100.0	
고등학교	587 10.1	1310 22.4	1581 27.1	923 15.8	1242 21.3	196 3.4	5839 100.0	
전체	4691	6945	4589	1993	2248	598	21064	
	22.3	33.0	21.8	9.5	10.7	2.8	100.0	

- 집에서 학교 과제(숙제, 수행평가, 지필평가 준비 등)를 하는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3.1%는 늘었다, 9.3%는 줄었다고 응답하여 변화한 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37.5%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중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표 14〉 하루 평균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350 14.5	1235 51.0	835 34.5	2420 100.0	336.760***
초등_고	713 11.5	2832 45.7	2656 42.8	6201 100.0	
중학교	464 7.0	3721 56.3	2419 36.6	6604 100.0	
고등학교	442 7.6	3403 58.3	1994 34.1	5839 100.0	
전체	1969	11191	7904	21064	
	9.3	53.1	37.5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 운동이나 산책 시간, 주변 사람들과 대화 시간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밖에서 친구들과의 만나거나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문화놀이공간 방문하는 시간은 크게 줄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서 짜여진 학습일정을 소화하던 학생들은 계획하지 않은 시간 속에 놓여졌고, 이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많아졌음.
- 하루에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33.9%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2.1%,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없음) 응답도 16.5%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하지만 고등학생의 약 10%는 4시간이상 보낸다고 응답하였음.

〈표 15〉 하루 평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저	815 33.7	515 21.3	336 13.9	144 6.0	192 7.9	418 17.3	2420 100.0	122.068***
초등_고	2306 37.2	1233 19.9	693 11.2	356 5.7	588 9.5	1025 16.5	6201 100.0	
중학교	2305 34.9	1486 22.5	808 12.2	368 5.6	563 8.5	1074 16.3	6604 100.0	
고등학교	1723 29.5	1417 24.3	772 13.2	330 5.7	630 10.8	967 16.6	5839 100.0	
전체	7149 33.9	4651 22.1	2609 12.4	1198 5.7	1973 9.4	3484 16.5	21064 100.0	

- 하루에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0.1%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늘었다는 31.2%, 줄었다는 18.7%로 나타나 변화가 있는 학생이 50% 가까이 있었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보다 늘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16〉 하루 평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346	952	1122	2420	122.794***
	14.3	39.3	46.4	100.0	
초등_고	1234	1992	2975	6201	
	19.9	32.1	48.0	100.0	
중학교	1247	1887	3470	6604	
	18.9	28.6	52.5	100.0	
고등학교	1111	1743	2985	5839	
	19.0	29.9	51.1	100.0	
전체	3938	6574	10552	21064	
	18.7	31.2	50.1	100.0	

- 하루 평균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2.8%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8.1%, 안함은 18.9%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오히려 운동이나 산책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음.

〈표 17〉 하루 평균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저	1151	804	128	37	20	280	2420	618.669***
	47.6	33.2	5.3	1.5	0.8	11.6	100.0	
초등_고	2640	2038	457	153	117	796	6201	
	42.6	32.9	7.4	2.5	1.9	12.8	100.0	
중학교	2747	1818	430	143	132	1334	6604	
	41.6	27.5	6.5	2.2	2.0	20.2	100.0	
고등학교	2479	1257	326	106	98	1573	5839	
	42.5	21.5	5.6	1.8	1.7	26.9	100.0	
전체	9017	5917	1341	439	367	3983	21064	
	42.8	28.1	6.4	2.1	1.7	18.9	100.0	

-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4.2%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55%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줄었다 35.6%, 줄었다 20.3%).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줄었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은 반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중고등학생에게 더 많았음.

〈표 18〉 하루 평균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1212	412	796	2420	398.218***
	50.1	17.0	32.9	100.0	
초등_고	2305	1432	2464	6201	
	37.2	23.1	39.7	100.0	
중학교	2156	1333	3115	6604	
	32.6	20.2	47.2	100.0	
고등학교	1818	1092	2929	5839	
	31.1	18.7	50.2	100.0	
전체	7491	4269	9304	21064	
	35.6	20.3	44.2	100.0	

- 하루 평균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35.2%는 없다고 응답하였고, 1시간 미만은 23.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15.1%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음. 다만, 4시간 이상 밖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은 11.0%, 고등학생은 9.9%로 나타나 주목할 결과로 보임.

〈표 19〉 하루 평균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저	714	435	202	72	50	947	2420	397.706***
	29.5	18.0	8.3	3.0	2.1	39.1	100.0	
초등_고	1362	1036	778	435	460	2130	6201	
	22.0	16.7	12.5	7.0	7.4	34.3	100.0	
중학교	1386	934	759	503	728	2294	6604	
	21.0	14.1	11.5	7.6	11.0	34.7	100.0	
고등학교	1444	772	663	346	580	2034	5839	
	24.7	13.2	11.4	5.9	9.9	34.8	100.0	
전체	4906	3177	2402	1356	1818	7405	21064	
	23.3	15.1	11.4	6.4	8.6	35.2	100.0	

- 코로나19 이후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9.8%는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27.7%, 늘었다는 12.5%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하

였음.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은 늘었다는 비율이 16.1%로 나타났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가정의 돌봄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학생 홀로 방치되거나 사설교육기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지 보다 확인이 필요한 결과로 보임.

〈표 20〉 하루 평균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저	1680	301	439	2420	348.163***
	69.4	12.4	18.1	100.0	
초등_고	3742	999	1460	6201	
	60.3	16.1	23.5	100.0	
중학교	3885	747	1972	6604	
	58.8	11.3	29.9	100.0	
고등학교	3288	595	1956	5839	
	56.3	10.2	33.5	100.0	
전체	12595	2642	5827	21064	
	59.8	12.5	27.7	100.0	

- 하루 평균 친구나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37.8%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4.9%,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14.2%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은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14.2%)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등학생은 4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비율(13.4%)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1〉 하루 평균 친구 및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고	3230	1220	459	182	227	883	6201	1902.109***
	52.1	19.7	7.4	2.9	3.7	14.2	100.0	
중학교	2120	1777	1126	480	762	339	6604	
	32.1	26.9	17.1	7.3	11.5	5.1	100.0	
고등학교	1697	1643	1062	426	783	228	5839	
	29.1	28.1	18.2	7.3	13.4	3.9	100.0	
전체	7047	4640	2647	1088	1772	1450	18644	
	37.8	24.9	14.2	5.8	9.5	7.8	100.0	

- 하루 평균 친구나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2.8%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변화하였다는 응답은 57.2%로 나타남(늘었다

32.0%, 줄었다 25.2%).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등학생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2〉 하루 평균 친구 및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 / p
초등_고	2170	1694	2337	6201	499.006***
	35.0	27.3	37.7	100.0	
중학교	1325	2395	2884	6604	
	20.1	36.3	43.7	100.0	
고등학교	1208	1868	2763	5839	
	20.7	32.0	47.3	100.0	
전체	4703	5957	7984	18644	
	25.2	32.0	42.8	100.0	

-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가족 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32.2%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9.9%,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17.0%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을 제외하고 1시간 미만 대화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음. 중학생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함. 반면, 4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음.

〈표 23〉 하루 평균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가족 등)들과 대화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 / p
초등_고	2151	1680	923	425	788	234	6201	178.064***
	34.7	27.1	14.9	6.9	12.7	3.8	100.0	
중학교	1936	2011	1233	514	784	126	6604	
	29.3	30.5	18.7	7.8	11.9	1.9	100.0	
고등학교	1910	1877	1007	389	521	135	5839	
	32.7	32.1	17.2	6.7	8.9	2.3	100.0	
전체	5997	5568	3163	1328	2093	495	18644	
	32.2	29.9	17.0	7.1	11.2	2.7	100.0	

-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6.8%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늘었다는 32.3%, 줄었다는 10.9%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늘었다는 응답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

〈표 24〉 하루 평균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가족 등)들과 대화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723	2307	3171	6201	140.193***
	11.7	37.2	51.1	100.0	
중학교	644	2052	3908	6604	
	9.8	31.1	59.2	100.0	
고등학교	661	1666	3512	5839	
	11.3	28.5	60.1	100.0	
전체	2028	6025	10591	18644	
	10.9	32.3	56.8	100.0	

- 최근 한달 동안, 하루 평균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문화놀이공간을 방문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70.3%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시간 미만은 17.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6.7%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방문하지 않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반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방문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3.4%, 중학생은 5.9%, 고등학생은 8.2%로 나타남.

〈표 25〉 하루 평균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문화놀이공간을 방문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없음)	전체	χ^2/p
초등_고	933	331	125	46	45	4721	6201	291.542***
	15.0	5.3	2.0	0.7	0.7	76.1	100.0	
중학교	1104	401	227	73	90	4709	6604	
	16.7	6.1	3.4	1.1	1.4	71.3	100.0	
고등학교	1176	510	267	90	116	3680	5839	
	20.1	8.7	4.6	1.5	2.0	63.0	100.0	
전체	3213	1242	619	209	251	13110	18644	
	17.2	6.7	3.3	1.1	1.3	70.3	100.0	

- 하루 평균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문화놀이공간을 방문하는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71.8%는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25.1%, 늘었다는 3.1%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문화놀이공간을 방문한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았음.

〈표 26〉 하루 평균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문화놀이공간을 방문하는 시간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4568 73.7	123 2.0	1510 24.4	6201 100.0	76.106***
중학교	4806 72.8	211 3.2	1587 24.0	6604 100.0	
고등학교	4013 68.7	252 4.3	1574 27.0	5839 100.0	
전체	13387 71.8	586 3.1	4671 25.1	18644 100.0	

- 코로나19 이후 가정이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집안일이나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살펴본 결과,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집안일이나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초등학생보다 월등히 많았음.
- 하루 평균 집안일(방정리,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3.1%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23.2%, 없음은 15.5%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중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인 경우가 초등학생보다 많았음.

〈표 27〉 하루 평균 집안일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고	3608 58.2	1047 16.9	212 3.4	49 0.8	44 0.7	1241 20.0	6201 100.0	490.259***
중학교	3454 52.3	1728 26.2	429 6.5	88 1.3	60 0.9	845 12.8	6604 100.0	
고등학교	2843 48.7	1544 26.4	431 7.4	116 2.0	101 1.7	804 13.8	5839 100.0	
전체	9905 53.1	4319 23.2	1072 5.7	253 1.4	205 1.1	2890 15.5	18644 100.0	

- 하루 평균 집안일(방정리,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하는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1.9%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늘었다는 25.3%, 줄었다는 12.7%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 많고, 줄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많았음.

〈표 28〉 하루 평균 집안일하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995	1479	3727	6201	99.431***
	16.0	23.9	60.1	100.0	
중학교	763	1664	4177	6604	
	11.6	25.2	63.2	100.0	
고등학교	618	1580	3641	5839	
	10.6	27.1	62.4	100.0	
전체	2376	4723	11545	18644	
	12.7	25.3	61.9	100.0	

- 하루 평균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74.5%는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1시간 미만은 9.0%, 4시간 이상은 7.8%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이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반려동물과 보낸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5.6%, 초등학교 고학년은 7.7%, 중학생은 10.5%, 고등학생은 10.7%로 나타남.

〈표 29〉 하루 평균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초등_저	252	94	36	21	113	1904	2420	146.302***
	10.4	3.9	1.5	0.9	4.7	78.7	100.0	
초등_고	600	265	130	82	395	4729	6201	
	9.7	4.3	2.1	1.3	6.4	76.3	100.0	
중학교	532	344	203	93	600	4832	6604	
	8.1	5.2	3.1	1.4	9.1	73.2	100.0	
고등학교	521	293	176	87	536	4226	5839	
	8.9	5.0	3.0	1.5	9.2	72.4	100.0	
전체	1905	996	545	283	1644	15691	21064	
	9.0	4.7	2.6	1.3	7.8	74.5	100.0	

-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3.0%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줄었다는 23.5%, 늘었다는 13.6%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다만, 초등학생은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고등학생은 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30〉 하루 평균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 / p
초등_저	661	218	1541	2420	387.653***
	27.3	9.0	63.7	100.0	
초등_고	1881	810	3510	6201	
	30.3	13.1	56.6	100.0	
중학교	1423	988	4193	6604	
	21.5	15.0	63.5	100.0	
고등학교	975	847	4017	5839	
	16.7	14.5	68.8	100.0	
전체	4940	2863	13261	21064	
	23.5	13.6	63.0	100.0	

-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은 대부분 집에서 보호자(부모님)와 있었으나, 고등학생은 교육기관(학원/독서실 등)에서 보내는 시간과 낮 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높고,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있다는 응답이 높음.
-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87.8%는 집(거주지)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육기관(학원/독서실 등)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12.1%는 교육기관(학원/독서실 등)에서 보낸다고 응답하여 온라인 수업 하는 날 집에 있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N, %)

	집 (거주지)	친척집	학교 돌봄교실	교육기관 (학원/ 독서실등)	동네기관 (공부방, 도서관)	친구네 집	기타	전체	χ^2/p
초등_저	2165	47	62	55	19	22	50	2420	908.984***
	89.5	1.9	2.6	2.3	0.8	0.9	2.1	100.0	
초등_고	5546	53	40	221	31	67	243	6201	
	89.4	0.9	0.6	3.6	0.5	1.1	3.9	100.0	
중학교	5927	18	2	420	36	75	126	6604	
	89.7	0.3	0.0	6.4	0.5	1.1	1.9	100.0	
고등학교	4865	6	7	706	83	28	144	5839	
	83.3	0.1	0.1	12.1	1.4	0.5	2.5	100.0	
전체	18503	124	111	1402	169	192	563	21064	
	87.8	0.6	0.5	6.7	0.8	0.9	2.7	100.0	

-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낮 시간에 주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6.0%는 보호자(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고, 형제/자매 22.8%, 혼자 18.9%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보호자와 함께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저학년(65.0%)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보호자(33.2%) 뿐만 아니라 혼자(32.4%) 보낸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또한 중학생은 형제자매와 보낸다는 응답이 25.8%로 비교적 많았음.
- 초등학생의 경우 혼자 보낸다는 응답이 약 8% 나타남(저학년 7.1%, 고학년 9.8%).

〈표 32〉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낮 시간에 주로 함께 있는 사람 (N, %)

	보호자	친척 (조부모 등)	형제/ 자매	혼자	친구	가족·친척 외 어른	이웃	기타	전체	χ^2/p
초등_저	1574	171	359	171	50	54	2	39	2420	1988.996***
	65.0	7.1	14.8	7.1	2.1	2.2	0.1	1.6	100.0	
초등_고	3385	232	1397	605	279	166	1	136	6201	
	54.6	3.7	22.5	9.8	4.5	2.7	0.0	2.2	100.0	
중학교	2785	115	1706	1311	363	175	1	148	6604	
	42.2	1.7	25.8	19.9	5.5	2.6	0.0	2.2	100.0	
고등학교	1939	71	1341	1891	335	89	0	173	5839	
	33.2	1.2	23.0	32.4	5.7	1.5	0.0	3.0	100.0	
전체	9683	589	4803	3978	1027	484	4	496	21064	
	46.0	2.8	22.8	18.9	4.9	2.3	0.0	2.4	100.0	

2. 학생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습 생활

가. 온라인수업 관련 환경

- 온라인수업은 주로 집에서 참여하였고, 나만 쓰는 디지털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82% 정도임. 초등학생의 25% 정도는 자신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꽤 익숙하고 잘 다룬다고 응답함. 다만, 약 15%의 학생은 기기가 낡아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함.
- 학교 온라인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82.0%는 나만 쓰는 기기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8.0%는 가족들과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저학년 25.5%, 고학년 25.9%)은 가족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많았음.
- 자신만을 위한 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온라인수업을 해야 한다면 학생들 모두가 학습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표 33〉 학교 온라인수업을 위한 디지털기기 소지 유무 (N, %)

	나만 쓰는 기기가 있음	형제/자매/가족들과 같이 사용함	전체	χ^2/p
초등_저	1802	618	2420	608.208***
	74.5	25.5	100.0	
초등_고	4596	1605	6201	
	74.1	25.9	100.0	
중학교	5727	877	6604	
	86.7	13.3	100.0	
고등학교	5152	687	5839	
	88.2	11.8	100.0	
전체	17277	3787	21064	
	82.0	18.0	100.0	

- 학교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주요 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96.9%는 집(거주지)라고 응답하였고, 학원 및 공부방(교육관련기관)은 1.8%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원 및 공부방(교육관련기관)에서 주로 온라인수업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2%, 고등학생은 3.9% 나타남.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교실인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34〉 학교 온라인수업을 참여하는 주요 장소 (N, %)

	집(거주지)	학원/공부방 (교육관련기관)	문화공간 (카페,공원)	기타	전체	χ^2/p
초등_저	2300	48	2	70	2420	348.892***
	95.0	2.0	0.1	2.9	100.0	
초등_고	6075	47	5	74	6201	
	98.0	0.8	0.1	1.2	100.0	
중학교	6512	55	7	30	6604	
	98.6	0.8	0.1	0.5	100.0	
고등학교	5520	230	26	63	5839	
	94.5	3.9	0.4	1.1	100.0	
전체	20407	380	40	237	21064	
	96.9	1.8	0.2	1.1	100.0	

-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은 적이 많은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14.1%는 그렇다²⁾, 85.9%는 그렇지 않다³⁾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이 많았지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음.

〈표 35〉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은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1225	842	307	46	2420	116.210***
	50.6	34.8	12.7	1.9	100.0	
초등_고	3734	1641	682	144	6201	
	60.2	26.5	11.0	2.3	100.0	
중학교	3967	1696	759	182	6604	
	60.1	25.7	11.5	2.8	100.0	
고등학교	3394	1583	658	204	5839	
	58.1	27.1	11.3	3.5	100.0	
전체	12320	5762	2406	576	21064	
	58.5	27.4	11.4	2.7	100.0	

2)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긍정응답)

3)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부정응답)

-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인터넷이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21.4%는 그렇다, 78.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이 많았지만,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음.

〈표 36〉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인터넷이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은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1050	916	390	64	2420	118.908***
	43.4	37.9	16.1	2.6	100.0	
초등_고	3035	1901	1028	237	6201	
	48.9	30.7	16.6	3.8	100.0	
중학교	3277	1910	1137	280	6604	
	49.6	28.9	17.2	4.2	100.0	
고등학교	2797	1671	1039	332	5839	
	47.9	28.6	17.8	5.7	100.0	
전체	10159	6398	3594	913	21064	
	48.2	30.4	17.1	4.3	100.0	

-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디지털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85.7%는 그렇다, 14.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미숙한 학생(전혀그렇지않다와 그렇지않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음.

〈표 37〉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디지털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72	338	1512	498	2420	252.752***
	3.0	14.0	62.5	20.6	100.0	
초등_고	207	762	3212	2020	6201	
	3.3	12.3	51.8	32.6	100.0	
중학교	231	711	3413	2249	6604	
	3.5	10.8	51.7	34.1	100.0	
고등학교	206	495	2998	2140	5839	
	3.5	8.5	51.3	36.7	100.0	
전체	716	2306	11135	6907	21064	
	3.4	10.9	52.9	32.8	100.0	

-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다양한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학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0.6%는 그렇다, 19.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는 디지털기기의 사용 정도와 비슷했는데,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다양한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학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부정응답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음.

〈표 38〉 인터넷 정보검색 및 다양한 앱을 통한 학습서비스 활용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초등_고	335	1264	3170	1432	6201	262.183***
	5.4	20.4	51.1	23.1	100.0	
중학교	239	838	3669	1858	6604	
	3.6	12.7	55.6	28.1	100.0	
고등학교	245	698	3211	1685	5839	
	4.2	12.0	55.0	28.9	100.0	
전체	819	2800	10050	4975	18644	
	4.4	15.0	53.9	26.7	100.0	

나. 온라인수업 관련 지원

- 온라인수업 및 과제 진행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은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고, 중고등학생은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수업에 대한 관리도 초등학생은 부모님의 관리가 많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음. 약 10%의 학생은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응답함.
- 학교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해, 전체 학생의 27.7%는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혼자 해결한다는 26.2%, 담당교과/담임선생님께 질문한다는 학생은 18.2%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고, 중고등학생은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표 39〉 학교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의 해결 방법 (N, %)

	담당교과/ 담임선생님께 질문	교육관련기관 (학원/공부방) 도움	보호자로 부터 도움	형제자매 로부터 도움	혼자 해결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기타	전체	χ^2/p
초등_저	158	29	1818	107	144	126	38	2420	7568.203***
	6.5	1.2	75.1	4.4	6.0	5.2	1.6	100.0	
초등_고	937	108	3069	434	1158	253	242	6201	
	15.1	1.7	49.5	7.0	18.7	4.1	3.9	100.0	
중학교	1397	445	821	429	2248	693	571	6604	
	21.2	6.7	12.4	6.5	34.0	10.5	8.6	100.0	
고등학교	1352	670	122	197	1978	945	575	5839	
	23.2	11.5	2.1	3.4	33.9	16.2	9.8	100.0	
전체	3844	1252	5830	1167	5528	2017	1426	21064	
	18.2	5.9	27.7	5.5	26.2	9.6	6.8	100.0	

- 전체 학생의 49.2%는 학교 온라인수업 및 과제를 도와주는 사람없이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함. 보호자가 도와준다는 응답은 27.9%, 담당교과/담임선생님이 도와주는 경우는 7.3%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중고등학생은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표 40〉 학교 온라인수업 및 과제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 (N, %)

	담당교과/ 담임선생님	학원/공부방 선생님	보호자	형제자매	혼자 해결	기타	전체	χ^2/p
초등_저	59	37	1834	126	339	25	2420	6831.462***
	2.4	1.5	75.8	5.2	14.0	1.0	100.0	
초등_고	381	84	2965	363	2191	217	6201	
	6.1	1.4	47.8	5.9	35.3	3.5	100.0	
중학교	573	298	887	385	3835	626	6604	
	8.7	4.5	13.4	5.8	58.1	9.5	100.0	
고등학교	522	379	188	189	3989	572	5839	
	8.9	6.5	3.2	3.2	68.3	9.8	100.0	
전체	1535	798	5874	1063	10354	1440	21064	
	7.3	3.8	27.9	5.0	49.2	6.8	100.0	

-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71.5%는 그렇다, 28.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긍정응답이 초등학교 저학년(86.3%)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62.3%)이 가장 적었음.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부정응답은 13.7%였는데, 이 학생들을 보호자의 학습지도 없이 온라인수업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1〉 ‘나의 보호자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지신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101	231	1365	723	2420	850.427***
	4.2	9.5	56.4	29.9	100.0	
초등_고	421	1084	3334	1362	6201	
	6.8	17.5	53.8	22.0	100.0	
중학교	546	1420	3612	1026	6604	
	8.3	21.5	54.7	15.5	100.0	
고등학교	718	1489	2975	657	5839	
	12.3	25.5	51.0	11.3	100.0	
전체	1786	4224	11286	3768	21064	
	8.5	20.1	53.6	17.9	100.0	

- 보호자가 학교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71.1%는 긍정응답, 28.9%는 부정응답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보호자가 학교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지 않는다는 응답(부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6.8%였고, 고등학생은 43.7%로 나타남.

〈표 42〉 ‘나의 보호자는 학교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신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51	114	1280	975	2420	1977.446***
	2.1	4.7	52.9	40.3	100.0	
초등_고	335	891	3008	1967	6201	
	5.4	14.4	48.5	31.7	100.0	
중학교	680	1466	3170	1288	6604	
	10.3	22.2	48.0	19.5	100.0	
고등학교	985	1563	2576	715	5839	
	16.9	26.8	44.1	12.2	100.0	
전체	2051	4034	10034	4945	21064	
	9.7	19.2	47.6	23.5	100.0	

-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9.4%는 그렇다, 90.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현재 온라인수업 환경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응답이 고등학생의 14.1%로 나타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았고, 중학생도 9.4%, 초등학교 저학년도 7.6%로 나타남.

〈표 43〉 ‘나는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초등_저	1293	942	163	22	2420	373.821***
	53.4	38.9	6.7	0.9	100.0	
초등_고	3922	1935	293	51	6201	
	63.2	31.2	4.7	0.8	100.0	
중학교	3902	2082	500	120	6604	
	59.1	31.5	7.6	1.8	100.0	
고등학교	3027	1989	643	180	5839	
	51.8	34.1	11.0	3.1	100.0	
전체	12144	6948	1599	373	21064	
	57.7	33.0	7.6	1.8	100.0	

-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대체로 높았지만, 약 25%의 학생은 이해가 안되고 불편하다고 응답함. 온라인수업 중에 다른 친구들과의 정보교류에 대해 초등학생은 활발하지 않았지만, 중고등학생은 활발히 교환하고 있었음. 그러나 약 66%의 학생은 선생님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있음.
- 온라인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24.2%는 그렇다, 75.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고 불편한 것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고등학생(33.2%)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14.2%)이 가장 적었음.

〈표 44〉 ‘나는 온라인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671	1149	496	104	2420	825.806***
	27.7	47.5	20.5	4.3	100.0	
초등_고	2770	2555	724	152	6201	
	44.7	41.2	11.7	2.5	100.0	
중학교	2279	2650	1284	391	6604	
	34.5	40.1	19.4	5.9	100.0	
고등학교	1657	2245	1393	544	5839	
	28.4	38.4	23.9	9.3	100.0	
전체	7377	8599	3897	1191	21064	
	35.0	40.8	18.5	5.7	100.0	

- 온라인수업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74.0%는 그렇다, 25.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온라인수업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지에 그렇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저학년 68.1%, 고등학생은 71.6%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5〉 ‘나는 온라인수업 중 이해가 잘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132	639	1368	281	2420	129.491***
	5.5	26.4	56.5	11.6	100.0	
초등_고	283	1190	3629	1099	6201	
	4.6	19.2	58.5	17.7	100.0	
중학교	314	1255	3898	1137	6604	
	4.8	19.0	59.0	17.2	100.0	
고등학교	354	1306	3275	904	5839	
	6.1	22.4	56.1	15.5	100.0	
전체	1083	4390	12170	3421	21064	
	5.1	20.8	57.8	16.2	100.0	

- 온라인수업 중 친구들과 정보나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3.6%는 그렇다, 56.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온라인수업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차이가 컸음.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활발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음.

〈표 46〉 ‘나는 온라인수업 중 다른 친구들과 정보나 의견을 활발히 교환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1008	1109	267	36	2420	2596.604***
	41.7	45.8	11.0	1.5	100.0	
초등_고	1931	2465	1388	417	6201	
	31.1	39.8	22.4	6.7	100.0	
중학교	946	1971	2641	1046	6604	
	14.3	29.8	40.0	15.8	100.0	
고등학교	859	1588	2464	928	5839	
	14.7	27.2	42.2	15.9	100.0	
전체	4744	7133	6760	2427	21064	
	22.5	33.9	32.1	11.5	100.0	

- 온라인수업 기간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SNS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33.7%는 그렇다, 6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수업에서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 모든 학교급에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더 많았음.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84.0%로 가장 많았음.

〈표 47〉 ‘나는 온라인수업 기간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SNS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955	1077	324	64	2420	635.223***
	39.5	44.5	13.4	2.6	100.0	
초등_고	1973	2377	1466	385	6201	
	31.8	38.3	23.6	6.2	100.0	
중학교	1547	2538	2007	512	6604	
	23.4	38.4	30.4	7.8	100.0	
고등학교	1349	2156	1883	451	5839	
	23.1	36.9	32.2	7.7	100.0	
전체	5824	8148	5680	1412	21064	
	27.6	38.7	27.0	6.7	100.0	

- 온라인수업만 할 때 보다 등교수업과 병행된 것이 좋다는 응답은 약 57%, 그렇지 않다는 약 43%로 나타남. 초등학생은 과목에 따라 온라인수업에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중고등학생은 선생님이 따라 온라인수업의 차이가 크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온라인수업만 할 때 보다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6.9%는 그렇다, 43.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병행수업이 더 좋다는 응답이 많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비율이 61.3%로 다른 학교급보다는 더 많았음. 반면, 중고등학생은 약 55%의 비율을 나타냄.

〈표 48〉 ‘나는 온라인수업만 할 때 보다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1193	1207	2010	1791	6201	126.192***
	19.2	19.5	32.4	28.9	100.0	
중학교	1414	1562	2169	1459	6604	
	21.4	23.7	32.8	22.1	100.0	
고등학교	1386	1269	1851	1333	5839	
	23.7	21.7	31.7	22.8	100.0	
전체	3993	4038	6030	4583	18644	
	21.4	21.7	32.3	24.6	100.0	

- 선생님(과목)에 따라 온라인수업 내용에 차이를 크게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7.5%는 그렇다, 4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차이를 크게 느낀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고등학생 30.4%, 중학생 22.5%으로 초등학생과 차이가 매우 컸음.

〈표 49〉 ‘나는 선생님(과목)에 따라 온라인수업 내용에 차이를 크게 느낀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저	369	1052	820	179	2420	1791.463***
	15.2	43.5	33.9	7.4	100.0	
초등_고	929	2629	1909	734	6201	
	15.0	42.4	30.8	11.8	100.0	
중학교	475	1935	2711	1483	6604	
	7.2	29.3	41.1	22.5	100.0	
고등학교	370	1196	2500	1773	5839	
	6.3	20.5	42.8	30.4	100.0	
전체	2143	6812	7940	4169	21064	
	10.2	32.3	37.7	19.8	100.0	

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교육과 수업

-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대해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지원해주는 사항(디지털기기 대여 등)들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높음.
- 학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4.5%는 ‘모르겠다’, 31.0%는 ‘그렇다’에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초등학생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표 50〉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_고	234	655	1910	485	2917	6201	188.642***
	3.8	10.6	30.8	7.8	47.0	100.0	
중학교	332	649	2046	539	3038	6604	
	5.0	9.8	31.0	8.2	46.0	100.0	
고등학교	474	784	1818	430	2333	5839	
	8.1	13.4	31.1	7.4	40.0	100.0	
전체	1040	2088	5774	1454	8288	18644	
	5.6	11.2	31.0	7.8	44.5	100.0	

-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필요할 경우 디지털기기를 쉽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주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8.6%는 모르겠다, 34.3%는 그렇다(긍정), 17.1%는 그렇지 않다(부정)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교 저학년(40.2%)의 경우 그렇다는 긍정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20.0%)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51〉 ‘우리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필요할 경우 디지털기기를 쉽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 준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_저	103	111	739	234	1233	2420	218.702***
	4.3	4.6	30.5	9.7	51.0	100.0	
초등_고	569	668	1511	604	2849	6201	
	9.2	10.8	24.4	9.7	45.9	100.0	
중학교	498	580	1601	506	3419	6604	
	7.5	8.8	24.2	7.7	51.8	100.0	
고등학교	541	528	1505	531	2734	5839	
	9.3	9.0	25.8	9.1	46.8	100.0	
전체	1711	1887	5356	1875	10235	21064	
	8.1	9.0	25.4	8.9	48.6	100.0	

- 학교에서 이중언어 사용이나 신체의 불편으로 온라인수업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른다고 응답함(모른다 67.4%, 긍정응답 22.7%, 부정응답 9.9%).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교 저학년(70.8%)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음. 긍정응답은 고등학생(24.8%)이 가장 많았음.

〈표 52〉 ‘우리 학교는 이중언어 사용이나 신체의 불편으로 온라인수업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지원을 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_저	88	115	422	81	1714	2420	115.788***
	3.6	4.8	17.4	3.3	70.8	100.0	
초등_고	257	376	1057	238	4273	6201	
	4.1	6.1	17.0	3.8	68.9	100.0	
중학교	219	326	1244	286	4529	6604	
	3.3	4.9	18.8	4.3	68.6	100.0	
고등학교	310	404	1227	223	3675	5839	
	5.3	6.9	21.0	3.8	62.9	100.0	
전체	874	1221	3950	828	14191	21064	
	4.1	5.8	18.8	3.9	67.4	100.0	

- 등교 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평가, 교육 활동, 진도 체크, 학습관련 피드백에 대해서는 약 65%의 학생이 만족하고 있음. 다만, 초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등교 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평가, 교육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5.2%는 그렇다는 긍정응답, 18.0%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 16.8%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부정응답 보다 긍정응답이 더 많았음.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70.5%)의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고등학생(23.7%)의 부정응답이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 많았음.

〈표 53〉 등교 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_저	73	278	1254	453	362	2420	426.140***
	3.0	11.5	51.8	18.7	15.0	100.0	
초등_고	255	591	3032	1267	1056	6201	
	4.1	9.5	48.9	20.4	17.0	100.0	
중학교	421	771	3307	961	1144	6604	
	6.4	11.7	50.1	14.6	17.3	100.0	
고등학교	526	861	2819	650	983	5839	
	9.0	14.7	48.3	11.1	16.8	100.0	
전체	1275	2501	10412	3331	3545	21064	
	6.1	11.9	49.4	15.8	16.8	100.0	

- 선생님은 자신의 온라인수업 진도를 체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전체 학생의 73.3%는 그렇다는 긍정응답, 8.0%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 18.6%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75.0%)의 긍정응답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10.8%)의 부정응답이 가장 많았음. 초등학교 저학년(22.1%)은 상대적으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54〉 선생님의 온라인수업 진도 체크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_저	45	158	1113	568	536	2420	275.482***
	1.9	6.5	46.0	23.5	22.1	100.0	
초등_고	114	262	2613	1850	1362	6201	
	1.8	4.2	42.1	29.8	22.0	100.0	
중학교	146	333	3039	1918	1168	6604	
	2.2	5.0	46.0	29.0	17.7	100.0	
고등학교	228	404	2821	1530	856	5839	
	3.9	6.9	48.3	26.2	14.7	100.0	
전체	533	1157	9586	5866	3922	21064	
	2.5	5.5	45.5	27.8	18.6	100.0	

- 선생님은 학생의 온라인수업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2.7%는 그렇다는 긍정응답, 21.1%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 26.1%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긍정응답은 초등학교 고학년(56.7%)이 가장 많고, 부정응답은 고등학생(28.6%)이 가장 많았음.

〈표 55〉 선생님의 온라인수업 내용 이해 확인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_저	91	349	945	330	705	2420	687.181***
	3.8	14.4	39.0	13.6	29.1	100.0	
초등_고	191	640	2451	1064	1855	6201	
	3.1	10.3	39.5	17.2	29.9	100.0	
중학교	417	1096	2675	678	1738	6604	
	6.3	16.6	40.5	10.3	26.3	100.0	
고등학교	527	1144	2428	532	1208	5839	
	9.0	19.6	41.6	9.1	20.7	100.0	
전체	1226	3229	8499	2604	5506	21064	
	5.8	15.3	40.3	12.4	26.1	100.0	

- 선생님은 온라인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해주시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8.8%는 그렇다는 긍정응답, 13.2%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 27.9%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모른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질문 자체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으로 생각됨. 부정응답이 가장 많은 학교급은 고등학생으로 15.3% 나타남.

〈표 56〉 선생님의 온라인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즉각 피드백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_저	76	203	949	367	825	2420	235.185***
	3.1	8.4	39.2	15.2	34.1	100.0	
초등_고	192	550	2407	1158	1894	6201	
	3.1	8.9	38.8	18.7	30.5	100.0	
중학교	249	621	2986	991	1757	6604	
	3.8	9.4	45.2	15.0	26.6	100.0	
고등학교	284	608	2739	799	1409	5839	
	4.9	10.4	46.9	13.7	24.1	100.0	
전체	801	1982	9081	3315	5885	21064	
	3.8	9.4	43.1	15.7	27.9	100.0	

- 선생님은 내가 제출한 수행평가 및 학습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시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3.4%는 그렇다, 22.0%는 모르겠다, 14.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60% 이상의 긍정응답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65.7%)이 긍정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러나 약 20%의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을 나타냈음.

〈표 57〉 선생님의 수행평가 및 학습과제에 대한 피드백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전체	χ^2 / p
초등_저	78	202	1091	498	551	2420	396.278***
	3.2	8.3	45.1	20.6	22.8	100.0	
초등_고	190	471	2641	1346	1553	6201	
	3.1	7.6	42.6	21.7	25.0	100.0	
중학교	277	715	3105	1103	1404	6604	
	4.2	10.8	47.0	16.7	21.3	100.0	
고등학교	364	791	2780	778	1126	5839	
	6.2	13.5	47.6	13.3	19.3	100.0	
전체	909	2179	9617	3725	4634	21064	
	4.3	10.3	45.7	17.7	22.0	100.0	

라. 학생의 등교방식 및 만족도

- 2020년 7월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년별·요일별 분리,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교내 요일별 분리, 중·고등학교는 학년별·주기별 분리 등교하는 학교가 다수임. 현재 등교방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남.
- 2020년 7월 현재 등교방식을 학생에게 질문한 결과, 학교급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년별로 분리 등교,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급 내 분리 등교, 중고등학교는 학년별로 분리하여 등교하는 상황으로 파악됨.

〈표 58〉 학교급별 등교 방식-대상별 분리 (중복응답)

구분	초등_저	초등_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로 분리 등교	1399	3282	6340	5643
학급 내 분리 등교	1324	3547	289	103
기타	121	621	106	165
전체	2844	7450	6735	5911

- 요일 및 주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요일별 등교, 중·고등학교는 주기별로 분리하여 등교하는 상황으로 파악됨.

〈표 59〉 학교급별 등교 방식-요일 및 주기 등교 (중복응답)

구분	초등_저	초등_고	중학교	고등학교
요일별 등교	2106	5123	512	384
주기별 등교	322	1086	6083	5464
기타	62	215	173	145
전체	2490	6424	6768	5993

- 현재 등교방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0.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만족 응답은 39.7%, 불만족 응답은 19.4%로 나타나 불만족 보다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만족응답이 가장 많은 학교급은 중학생(42.1%)이었고, 고등학생(23.5%)의 불만족 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높았음.

〈표 60〉 학교급별 현재 등교방식에 대한 학생 만족 정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p
초등_고	407	695	2634	1639	826	6201	161.376***
	6.6	11.2	42.5	26.4	13.3	100.0	
중학교	449	712	2661	2067	715	6604	
	6.8	10.8	40.3	31.3	10.8	100.0	
고등학교	570	800	2312	1632	525	5839	
	9.8	13.7	39.6	27.9	9.0	100.0	
전체	1426	2207	7607	5338	2066	18644	
	7.6	11.8	40.8	28.6	11.1	100.0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친구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평가 및 과제 하기로 응답함.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친구 관계’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평가 및 과제 하기’가 23.8%로 나타남. 초등학교 고학년은 ‘평가 및 과제 하기’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 관계’가 24.6%로 나타남. 중학교는 ‘평가 및 과제 하기’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 일정 따라잡기’가 15.8%로 나타남. 고등학교는 ‘평가 및 과제 하기’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 일정 따라잡기’가 25.4%로 나타남.

〈표 61〉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2가지 응답)

구분	초등_저	초등_고	중학교	고등학교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689	2372	1769	1188
평가 및 과제 하기	1089	2865	3889	3218
자치활동 참여	45	189	165	141
동아리활동 참여	118	578	542	630
봉사활동 참여	28	166	860	718
친구 관계	1295	2848	1476	739
진로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및 창업 준비 등)	62	335	754	712
선생님과의 소통(수업, 상담 등)	782	1195	864	816
학교 일정 따라잡기(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 챙기기)	471	1027	1932	2775
전체	4579	11575	12251	10937

-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이에 온라인수업의 콘텐츠 개발, 수업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많았음. 특히 고등학생의 요구가 가장 높았음. 온라인수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대면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 전체 학생의 65.9%는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34.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긍정응답이 71.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의 긍정응답이 58.8%로 가장 낮았음. ‘매우 그렇다’의 응답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62〉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675	1883	2746	897	6201	328.766***
	10.9	30.4	44.3	14.5	100.0	
중학교	426	1731	3291	1156	6604	
	6.5	26.2	49.8	17.5	100.0	
고등학교	391	1249	2873	1326	5839	
	6.7	21.4	49.2	22.7	100.0	
전체	1492	4863	8910	3379	18644	
	8.0	26.1	47.8	18.1	100.0	

-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에 과반 이상의 학생 (55.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온라인수업이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업형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고등학생의 의견은 긍정응답(47.7%)과 부정응답(52.2%)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부정응답은 초등학생(60.7%)이 가장 많았음.

〈표 63〉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1195	2570	2059	377	6201	244.301***
	19.3	41.4	33.2	6.1	100.0	
중학교	1018	2540	2455	591	6604	
	15.4	38.5	37.2	8.9	100.0	
고등학교	1058	1991	2029	761	5839	
	18.1	34.1	34.7	13.0	100.0	
전체	3271	7101	6543	1729	18644	
	17.5	38.1	35.1	9.3	100.0	

- 전체 학생의 72.1%는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7.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79.1%)이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65.8%)이 가장 적었음.

〈표 64〉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598	1524	2769	1310	6201	334.163***
	9.6	24.6	44.7	21.1	100.0	
중학교	494	1357	3160	1593	6604	
	7.5	20.5	47.8	24.1	100.0	
고등학교	371	846	2799	1823	5839	
	6.4	14.5	47.9	31.2	100.0	
전체	1463	3727	8728	4726	18644	
	7.8	20.0	46.8	25.3	100.0	

-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3.1%는 그렇다는 긍정응답, 36.9%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을 나타냄.
- 고등학생의 78.1%는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의 52.2%가 그렇다고 응답해 학교급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65〉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865	2099	2171	1066	6201	1082.736***
	13.9	33.8	35.0	17.2	100.0	
중학교	740	1896	2478	1490	6604	
	11.2	28.7	37.5	22.6	100.0	
고등학교	325	954	2432	2128	5839	
	5.6	16.3	41.7	36.4	100.0	
전체	1930	4949	7081	4684	18644	
	10.4	26.5	38.0	25.1	100.0	

-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74.7%는 그렇다, 2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긍정응답 비율이 초중고 모두 매우 높았고, 특히 초등학생(79.7%)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다만, 중학생의 약 30%는 부정응답을 나타냄.

〈표 66〉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317	940	2841	2103	6201	218.689***
	5.1	15.2	45.8	33.9	100.0	
중학교	515	1492	2916	1681	6604	
	7.8	22.6	44.2	25.5	100.0	
고등학교	421	1018	2603	1797	5839	
	7.2	17.4	44.6	30.8	100.0	
전체	1253	3450	8360	5581	18644	
	6.7	18.5	44.8	2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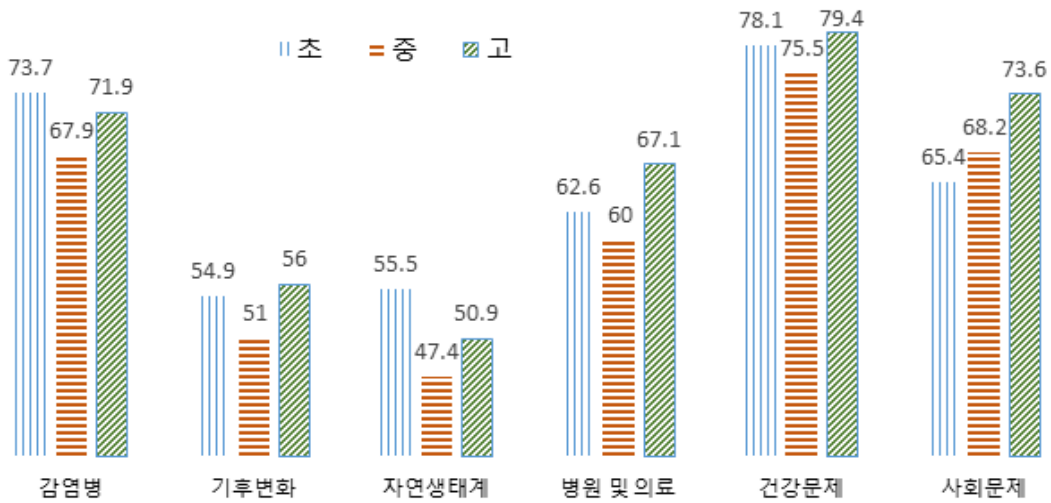
3. 코로나19 이후 경험과 환경 변화

가. 코로나19 이후 생활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도

-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은 대부분 준수하였다고 응답함.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대체로 건강문제, 감염병,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응답함.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은 기후변화, 병원 및 의료, 건강 및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중학생 보다 많았고, 감염병, 자연생태계는 초중학생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최근 한달 동안,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어느정도 준수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학생의 38.9%는 ‘항상 지킨다’라고, 53.6%는 ‘대부분 지킨다’라고 응답하여 약 93%가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고등학생의 약 11%, 중학생의 약 8%는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표 67〉 최근 한달 동안,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 준수 여부 (N, %)

	전혀 지키지 않는다	별로 지키지 않는다	대부분 지킨다	항상 지킨다	전체	χ^2/p
초등_고	20	237	3168	2776	6201	307.225***
	0.3	3.8	51.1	44.8	100.0	
중학교	71	435	3658	2440	6604	
	1.1	6.6	55.4	36.9	100.0	
고등학교	142	487	3170	2040	5839	
	2.4	8.3	54.3	34.9	100.0	
전체	233	1159	9996	7256	18644	
	1.2	6.2	53.6	38.9	100.0	



[그림 1]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많아진 영역 (긍정응답의 비율)

나. 코로나19 이후 개인 경험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생활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교구·장난감·악기, 디지털기기 구입 횟수, 유해사이트 접속 횟수, 용돈 액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반면, 고등학생은 참고서나 문제집 구입, 디지털기기 구입, 학원 및 과외 수강 시간은 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병원 및 약국을 방문한 횟수의 변화는 전체 학생의 50.5%는 이전과 비슷하다, 40.0%는 줄었다, 9.5%는 늘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줄었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68〉 병원 및 약국 방문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3271	466	2464	6201	734.594***
	52.7	7.5	39.7	100.0	
중학교	2496	632	3476	6604	
	37.8	9.6	52.6	100.0	
고등학교	1688	682	3469	5839	
	28.9	11.7	59.4	100.0	
전체	7455	1780	9409	18644	
	40.0	9.5	50.5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횟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8.7%는 이전과 비슷하다, 39.0%는 줄었다, 2.3%는 늘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69〉 유해사이트 접속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3096	123	2982	6201	548.821***
	49.9	2.0	48.1	100.0	
중학교	2439	117	4048	6604	
	36.9	1.8	61.3	100.0	
고등학교	1739	182	3918	5839	
	29.8	3.1	67.1	100.0	
전체	7274	422	10948	18644	
	39.0	2.3	58.7	100.0	

- 코로나19 이후 책, 참고서, 문제집을 구입한 횟수가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3.4%는 이전과 비슷하다, 31.7%는 늘었다, 14.9%는 줄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책, 참고서, 문제집 등의 구입이 늘었다는 학생은 고등학생이 많았음. 가정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학습 자료의 구입도 늘어난 것으로 생각됨.

〈표 70〉 책, 참고서, 문제집 구입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1179	1774	3248	6201	172.143***
	19.0	28.6	52.4	100.0	
중학교	951	2084	3569	6604	
	14.4	31.6	54.0	100.0	
고등학교	646	2054	3139	5839	
	11.1	35.2	53.8	100.0	
전체	2776	5912	9956	18644	
	14.9	31.7	53.4	100.0	

- 코로나19 이후 교구, 장난감, 악기 구입 횟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0.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여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약 40% 정도였음(29.8%는 줄었다, 9.8%는 늘었다).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급은 초등학생이었고, 늘었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도 초등학생으로 나타남.

〈표 71〉 교구, 장난감, 악기 구입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2223	758	3220	6201	337.672***
	35.8	12.2	51.9	100.0	
중학교	1967	567	4070	6604	
	29.8	8.6	61.6	100.0	
고등학교	1368	511	3960	5839	
	23.4	8.8	67.8	100.0	
전체	5558	1836	11250	18644	
	29.8	9.8	60.3	100.0	

- 디지털기기 구입에 대해서는, 학생의 66.3%는 이전과 비슷하다, 19.3%는 줄었다, 14.4%는 늘었다고 응답함.
- 모든 학교급에서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는 정보통신사회에서 기기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온라인수업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게서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72〉 디지털기기 구입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1559	858	3784	6201	254.549***
	25.1	13.8	61.0	100.0	
중학교	1223	908	4473	6604	
	18.5	13.7	67.7	100.0	
고등학교	810	919	4110	5839	
	13.9	15.7	70.4	100.0	
전체	3592	2685	12367	18644	
	19.3	14.4	66.3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학원 및 과외 수강 시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5.5%는 이전과 비슷하다, 29.6%는 늘었다, 14.9%는 줄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사교육이 많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응답이 약 85% 나타남.

- 학원 및 과외 수강 시간이 늘었다는 고등학생(30.9%)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줄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22.1%)이 많았음.

〈표 73〉 학원 및 과외 수강 시간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1373	1550	3278	6201	410.279***
	22.1	25.0	52.9	100.0	
중학교	774	2160	3670	6604	
	11.7	32.7	55.6	100.0	
고등학교	636	1802	3401	5839	
	10.9	30.9	58.2	100.0	
전체	2783	5512	10349	18644	
	14.9	29.6	55.5	100.0	

-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용돈 액수가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9.9%는 이전과 비슷하다, 17.6%는 줄었다, 12.6%는 늘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용돈이 줄었다는 응답(21.5%)이 다소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중고등학생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응답이 약 85% 정도 나타남.

〈표 74〉 용돈 액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1334	753	4114	6201	105.285***
	21.5	12.1	66.3	100.0	
중학교	1068	812	4724	6604	
	16.2	12.3	71.5	100.0	
고등학교	873	775	4191	5839	
	15.0	13.3	71.8	100.0	
전체	3275	2340	13029	18644	
	17.6	12.6	69.9	100.0	

- 초등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걱정이나 잔소리, 가족구성원들과의 다툼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중고등학생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
-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걱정이나 잔소리 횟수가 변화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50.8%는 이전과 비슷하다, 41.8%는 늘었다, 7.3%는 줄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걱정과 잔소리가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중고등학생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줄었다 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음.

〈표 75〉 보호자의 걱정 및 잔소리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535	2931	2735	6201	192.197***
	8.6	47.3	44.1	100.0	
중학교	474	2681	3449	6604	
	7.2	40.6	52.2	100.0	
고등학교	359	2186	3294	5839	
	6.1	37.4	56.4	100.0	
전체	1368	7798	9478	18644	
	7.3	41.8	50.8	100.0	

- 코로나19 이후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과의 다툼이 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61.9%는 이전과 비슷하다, 20.7%는 늘었다, 17.5%는 줄었다고 응답함.
-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보다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과의 다툼이 늘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중고등학생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에 비해 매우 많았고, 줄었다 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음.

〈표 76〉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과의 다툼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1305	1562	3334	6201	325.497***
	21.0	25.2	53.8	100.0	
중학교	1146	1322	4136	6604	
	17.4	20.0	62.6	100.0	
고등학교	803	968	4068	5839	
	13.8	16.6	69.7	100.0	
전체	3254	3852	11538	18644	
	17.5	20.7	61.9	100.0	

-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스스로 일정을 짜고 학습 및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필요가 발생함. 코로나19 이후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횟수에 대해, 전체 학생의 54.7%는 이전과 비슷하다, 31.4%는 늘었다, 13.8%는 줄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35.7%는 늘었다라고 응답하여 초중학생에 비해 많은 응답을 보였음.

〈표 77〉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_고	1039	1676	3486	6201	140.270***
	16.8	27.0	56.2	100.0	
중학교	848	2095	3661	6604	
	12.8	31.7	55.4	100.0	
고등학교	694	2085	3060	5839	
	11.9	35.7	52.4	100.0	
전체	2581	5856	10207	18644	
	13.8	31.4	54.7	100.0	

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의 경우 비교적 높으며, 초등학교의 23%는 코로나 19로 인해 진로와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고 응답해 중고등학생 보다 높았음.
- 전체 학생의 84.0%는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방역수칙의 강화에 대한 동의 비율은 고등학생(86.6%)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81.6%)이 가장 낮았음.

〈표 78〉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202	936	2947	2116	6201	59.200***
	3.3	15.1	47.5	34.1	100.0	
중학교	164	894	3220	2326	6604	
	2.5	13.5	48.8	35.2	100.0	
고등학교	156	630	2952	2101	5839	
	2.7	10.8	50.6	36.0	100.0	
전체	522	2460	9119	6543	18644	
	2.8	13.2	48.9	35.1	100.0	

-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학생의 81.1%가 동의함.
- 방역수칙의 강화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동의 비율은 고등학생(83.6%)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76.2%)이 가장 낮았음.

〈표 79〉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초등_고	267	1204	2693	2037	6201	173.963***
	4.3	19.4	43.4	32.8	100.0	
중학교	222	867	3114	2401	6604	
	3.4	13.1	47.2	36.4	100.0	
고등학교	229	729	2585	2296	5839	
	3.9	12.5	44.3	39.3	100.0	
전체	718	2800	8392	6734	18644	
	3.9	15.0	45.0	36.1	100.0	

-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85.3%는 그렇다, 14.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재난시 학생 필수 지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89.0%)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81.5%)이 가장 낮았음.

〈표 80〉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초등_고	160	987	2989	2065	6201	170.286***
	2.6	15.9	48.2	33.3	100.0	
중학교	118	832	3451	2203	6604	
	1.8	12.6	52.3	33.4	100.0	
고등학교	128	518	2941	2252	5839	
	2.2	8.9	50.4	38.6	100.0	
전체	406	2337	9381	6520	18644	
	2.2	12.5	50.3	35.0	100.0	

-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81.8%는 그렇다, 18.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온라인수업을 위한 기기의 제공은 고등학생(88.6%)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74.0%)이 가장 낮았음.
- 온라인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

〈표 81〉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286	1325	3033	1557	6201	505.461***
	4.6	21.4	48.9	25.1	100.0	
중학교	152	963	3523	1966	6604	
	2.3	14.6	53.3	29.8	100.0	
고등학교	133	534	3066	2106	5839	
	2.3	9.1	52.5	36.1	100.0	
전체	571	2822	9622	5629	18644	
	3.1	15.1	51.6	30.2	100.0	

-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86.8%는 그렇다, 1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91.7%)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80.5%)이 가장 낮았음.

〈표 82〉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196	1012	3331	1662	6201	531.267***
	3.2	16.3	53.7	26.8	100.0	
중학교	113	670	3696	2125	6604	
	1.7	10.1	56.0	32.2	100.0	
고등학교	94	388	2920	2437	5839	
	1.6	6.6	50.0	41.7	100.0	
전체	403	2070	9947	6224	18644	
	2.2	11.1	53.4	33.4	100.0	

-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9.5%는 그렇다고 동의하였고, 50.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는데, 초등학생은 그렇지않다는 응답이 62.%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중학생은 동의비율과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50%로 동일하였고, 고등학생은 동의하는 응답이 61.1%로 더 많이 나타남.

〈표 83〉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1376	2469	1665	691	6201	779.947***
	22.2	39.8	26.9	11.1	100.0	
중학교	860	2440	2272	1032	6604	
	13.0	36.9	34.4	15.6	100.0	
고등학교	584	1688	2327	1240	5839	
	10.0	28.9	39.9	21.2	100.0	
전체	2820	6597	6264	2963	18644	
	15.1	35.4	33.6	15.9	100.0	

-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에 전체 학생의 72.2%가 동의하였고 27.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75.2%로 가장 많았음.

〈표 84〉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511	1339	3004	1347	6201	127.171***
	8.2	21.6	48.4	21.7	100.0	
중학교	453	1434	3015	1702	6604	
	6.9	21.7	45.7	25.8	100.0	
고등학교	370	1076	2635	1758	5839	
	6.3	18.4	45.1	30.1	100.0	
전체	1334	3849	8654	4807	18644	
	7.2	20.6	46.4	25.8	100.0	

-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진로와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79.6%는 그렇지 않다, 20.5%는 그렇다고 응답함.
- 진로나 장래희망이 변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23.0%)이 가장 많았음.

〈표 85〉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진로와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_고	2206	2569	982	444	6201	62.874***
	35.6	41.4	15.8	7.2	100.0	
중학교	2247	3101	827	429	6604	
	34.0	47.0	12.5	6.5	100.0	
고등학교	1995	2715	740	389	5839	
	34.2	46.5	12.7	6.7	100.0	
전체	6448	8385	2549	1262	18644	
	34.6	45.0	13.7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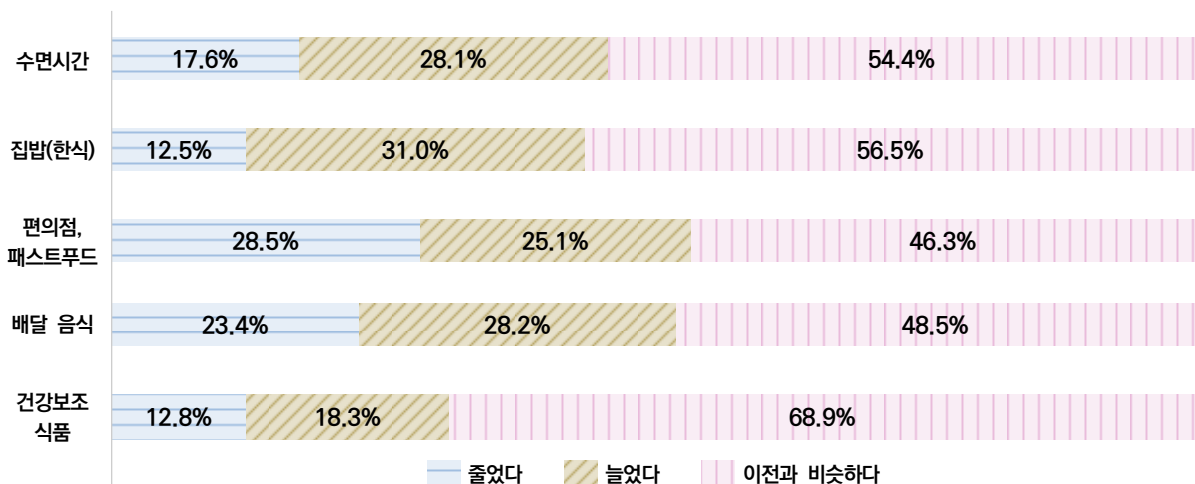
4. 소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부터 사회, 국가 단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창궐이 가정,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예상하였음.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가 폐쇄되고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6월 초부터 학교 등교가 단계별로 시작되면서 약 한 달동안 학생들은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함. 이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생활과 인식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에 맞는 방식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사회를 이끌고, 새로운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킬을 갖추는 방향으로의 교육혁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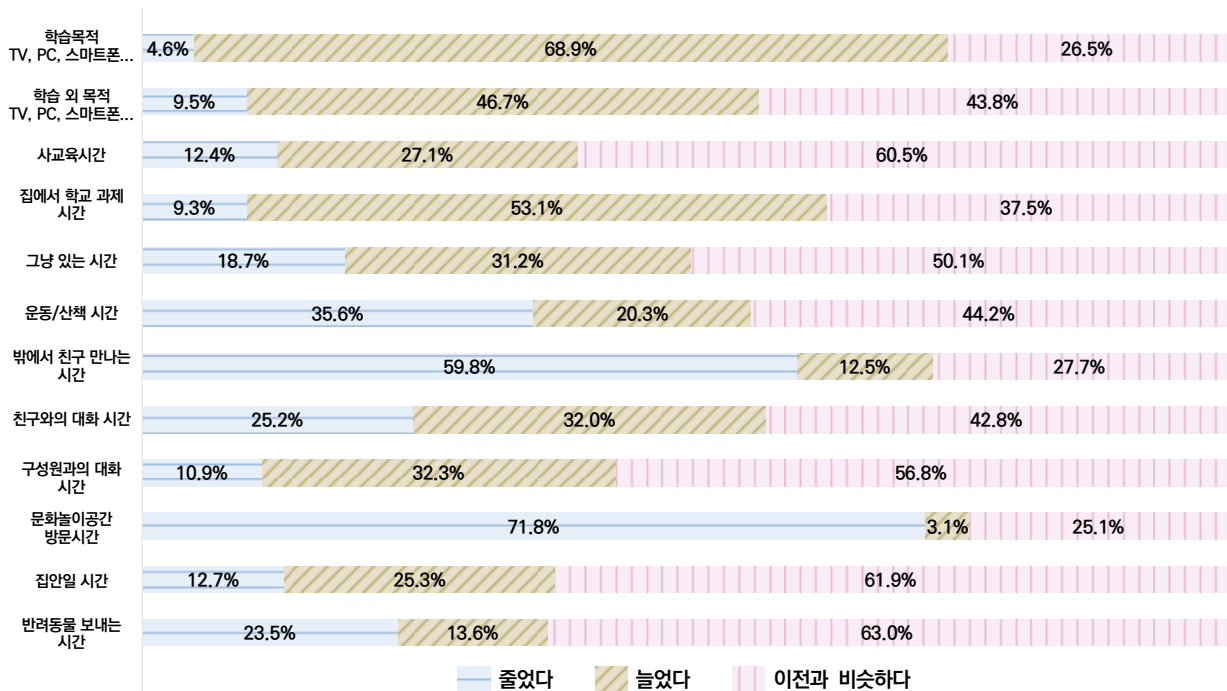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생활 실태 및 변화, 학생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습 생활, 코로나19 이후 생활 및 환경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생의 생활 실태 및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과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학교급에 따라거나 가정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전체적으로 보면 수면시간, 집밥(한식), 배달음식, 편의점음식, 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높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집밥(한식)을 먹는 습관은 줄고, 배달음식, 편의점음식, 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은 늘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온라인수업이 강행되면서 디지털기기의 사용시간이 상당히 늘었고, 사교육시간과 집에서 학교 과제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다수임. 초등학생은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이, 중고등학생은 사교육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음.
- 반면, 밖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과 문화놀이공간(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방문 시간은 크게 줄었고,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줄었다는 응답이 높음.



- 중고등학생의 디지털기기의 사용시간은 학습 목적과 학습 외 목적을 합하면 하루 평균 8시간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디지털기기와 떼어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 평균 8시간이상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됨. 더욱이 외출 등 바깥 활동의 제한되면서 학생의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관리 및 조절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생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습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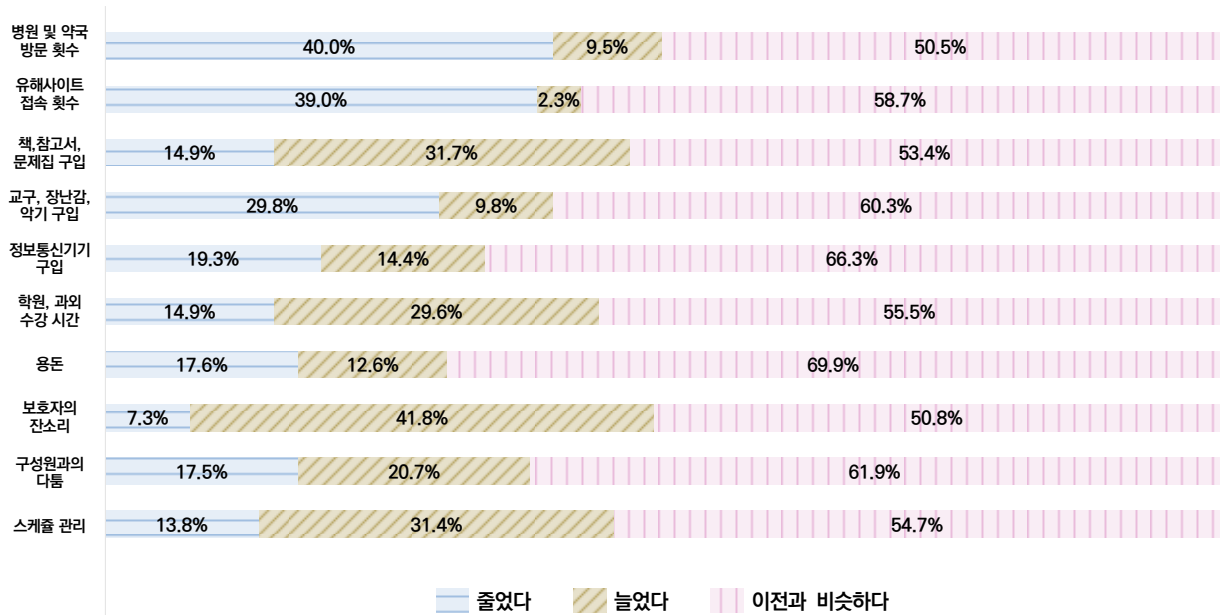
- 온라인수업은 주로 집에서 참여하였고, 나만 쓰는 디지털기기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82%임. 초등학생의 경우 약 25%는 자신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들 모두 학습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임. 그 후에 다양한 수업방식 및 질적 제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 온라인수업 참여 및 과제 수행 등 온라인학습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생에게 많이 필요하며, 실제로

초등학생 보호자의 도움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초등학생들은 온라인학습이 어려울 때 주로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중고등학생은 혼자 해결하거나 친구들과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음. 34%의 학생만이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응답하여 온라인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로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이 교사마다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평가 등의 교육 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고등학생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음.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온라인수업 진도체크나 평가 피드백은 잘 받고 있지만, 개별 학생에 대한 수업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거나 질문에 즉각 답을 해주는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함.
- 학생들의 등교방식 만족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남. 현재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친구관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는 평가 및 과제하기라고 응답함.
-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인식하며, 이에 따른 온라인수업의 콘텐츠 개발, 수업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대면에 대한 요구는 높음.
-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전에 학생들이 온라인학습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함. 초등학생은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많은 부분을 보호자의 지원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이는 가정의 학습 환경이 학생의 학습결과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더 많은 교육의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지원과 정책이 요구됨.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비대면사회를 활발히 살아가는 세대로 그에 필요한 능력이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다시 한번 필요함을 강조함.

• 코로나19 이후 생활 및 환경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생활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교구·장난감·악기, 디지털기기 구입 횟수, 유해사이트 접속 횟수, 용돈 액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반면, 고등학생은 참고서나 문제집 구입, 디지털기기 구입, 학원 및 과외 수강 시간은 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초등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걱정이나 잔소리, 가족구성원들과의 다툼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중고등학생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



-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대부분 준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코로나19 이후 고등학생은 기후변화, 병원 및 의료, 건강 및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감염병, 자연생태계는 초등학생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의 경우 비교적 높으며, 초등학교의 23%는 코로나 19로 인해 진로와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고 응답해 중고등학생 보다 높았음.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과 인식은 크고 작게 변화를 겪었음. 다행히 학생들은 온라인수업과 방역 등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급에 따라 가정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함. 이는 변화된 환경이 학생의 격차를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학교교육이 교육격차 해소의 역할로 학생의 개별학습 환경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비대면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시민의식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도 필요함.

Ⅲ.

코로나19 이후 교사의 생활과 인식 변화

1. 수업 운영

가. 온라인수업 운영

- 교사들은 2020년 1학기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면서 대체로 역량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온라인수업을 더 선호하는 교사도 20% 정도 나타남. 온라인수업의 형태와 내용이 교과(교사)별로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교사의 58%는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우리 학교의 온라인수업의 형태와 내용이 등교 개학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1.3%는 그렇다는 긍정응답을, 38.8%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을 나타냄.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63.0%)의 긍정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58.2%)의 긍정응답이 가장 낮았음.

〈표 98〉 ‘현재 우리 학교의 온라인수업의 형태와 내용이 등교 개학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93	376	520	281	1270	32.900***
	7.3	29.6	40.9	22.1	100.0	
중학교	61	330	462	187	1040	
	5.9	31.7	44.4	18.0	100.0	
고등학교	97	404	533	166	1200	
	8.1	33.7	44.4	13.8	100.0	
전체	251	1110	1515	634	3510	
	7.2	31.6	43.2	18.1	100.0	

- 교실수업보다 온라인수업이 더 선호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0.4%는 그렇지 않다, 19.7%는 그렇다고 응답함.
-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21.2%는 교실수업보다 온라인수업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음.

<표 99> '교실수업보다 온라인수업이 더 좋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54	647	198	71	1270	5.205
	27.9	50.9	15.6	5.6	100.0	
중학교	279	559	146	56	1040	
	26.8	53.8	14.0	5.4	100.0	
고등학교	328	654	164	54	1200	
	27.3	54.5	13.7	4.5	100.0	
전체	961	1860	508	181	3510	
	27.4	53.0	14.5	5.2	100.0	

- 교사 스스로 온라인수업 운영 역량이 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4.0%는 그렇다는 긍정응답을 하였고, 16.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중학교 교사는 88.0%가 긍정응답을 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음.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은 고등학교 교사(19.1%)가 가장 많았음.

<표 100> '온라인수업 운영 역량이 늘었다고 생각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8	190	732	330	1270	36.674***
	1.4	15.0	57.6	26.0	100.0	
중학교	17	108	643	272	1040	
	1.6	10.4	61.8	26.2	100.0	
고등학교	36	193	730	241	1200	
	3.0	16.1	60.8	20.1	100.0	
전체	71	491	2105	843	3510	
	2.0	14.0	60.0	24.0	100.0	

- 온라인수업의 형태와 내용이 교과(교사)별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0.3%는 그렇다, 19.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초등학교 교사(72.4%)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긍정응답이 낮았고, 고등학교 교사(85.1%)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 반대로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초등학교(27.6%)가 가장 많았음.

〈표 101〉 ‘온라인수업의 형태와 내용이 교과(교사)별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47	303	558	362	1270	86.503***
	3.7	23.9	43.9	28.5	100.0	
중학교	12	148	574	306	1040	
	1.2	14.2	55.2	29.4	100.0	
고등학교	20	160	645	375	1200	
	1.7	13.3	53.8	31.3	100.0	
전체	79	611	1777	1043	3510	
	2.3	17.4	50.6	29.7	100.0	

-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교사의 58.2%는 그렇다는 긍정응답, 41.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고등학교(60.5%)에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가 56.7%로 나타남.

〈표 102〉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21	429	533	187	1270	9.771
	9.5	33.8	42.0	14.7	100.0	
중학교	90	353	463	134	1040	
	8.7	33.9	44.5	12.9	100.0	
고등학교	87	388	566	159	1200	
	7.3	32.3	47.2	13.3	100.0	
전체	298	1170	1562	480	3510	
	8.5	33.3	44.5	13.7	100.0	

- 온라인수업 시 개별학생의 학습상태 확인, 질문에 대한 즉각 피드백 여부, 평가 및 과제 피드백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는 그렇다고 긍정응답을 했고, 평가 및 과제 피드백은 90% 이상의 교사가 수행한다고 응답함.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 상태 확인 및 평가나 과제 피드백을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교사는 질문에 대한 즉각 피드백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력별로는 5년~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가장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업진도에 대한 부담은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았음. 다만, 25~30%의 교사는 학생의 학습상태나 질문에 대해 즉각 답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학생들이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는지 개별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67.3%로 나타남. 교사의 32.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초등학교 교사의 긍정응답이 78.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가 58.3%로 가장 낮았음.
- 경력별로는 15년이상~20년미만 교사가 긍정응답이 69.3%로 가장 높았고, 5년미만 교사가 63.8%로 가장 낮았음.

〈표 103〉 ‘학생들이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는지 개별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학 교 급	초등학교	12	267	776	215	1270	159.197***
		0.9	21.0	61.1	16.9	100.0	
	중학교	24	342	594	80	1040	
		2.3	32.9	57.1	7.7	100.0	
	고등학교	38	463	614	85	1200	
		3.2	38.6	51.2	7.1	100.0	
경 력	5년미만	22	181	309	49	561	24.623*
		3.9	32.3	55.1	8.7	100.0	
	5년이상~ 10년미만	12	171	282	68	533	
		2.3	32.1	52.9	12.8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8	150	291	60	509	
		1.6	29.5	57.2	11.8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6	206	414	66	692	
		0.9	29.8	59.8	9.5	100.0	
	20년이상	26	364	688	137	1215	
		2.1	30.0	56.6	11.3	100.0	
전체	74	1072	1984	380	3510		
	2.1	30.5	56.5	10.8	100.0		

- 전체 교사의 74.7%는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학습 내용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교사의 25.3%는 즉각 피드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한다는 교사는 고등학교(75.6%)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73.3%)가 가장 적었음.
- 경력에 따라서는 10년이상~15년미만 교사가 79.0%로 가장 높았고, 20년이상 교사가 68.6%로 응답률이 가장 낮았음.

〈표 104〉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학습 내용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학 교 급	초등학교	30	308	605	327	1270	38.777***
		2.4	24.3	47.6	25.7	100.0	
	중학교	12	245	601	182	1040	
		1.2	23.6	57.8	17.5	100.0	
	고등학교	22	271	671	236	1200	
		1.8	22.6	55.9	19.7	100.0	
경 력	5년미만	14	122	302	123	561	56.621***
		2.5	21.7	53.8	21.9	100.0	
	5년이상~ 10년미만	14	101	279	139	533	
		2.6	18.9	52.3	26.1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4	103	287	115	509	
		0.8	20.2	56.4	22.6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4	145	404	139	692	
		0.6	21.0	58.4	20.1	100.0	
	20년이상	28	353	605	229	1215	
		2.3	29.1	49.8	18.8	100.0	
전체	64	824	1877	745	3510		
	1.8	23.5	53.5	21.2	100.0		

- 전체 교사의 약 90%는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및 학습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고 응답함.
- 초등학교 교사의 92.4%는 평가나 과제에 피드백한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34.5%로 나타남.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의 12.0%는 피드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5년이상~10년미만 교사가 긍정응답 91.0%로 가장 높았고, 5년미만 교사는 피드백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이 12.8%로 나타남.

〈표 105〉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및 학습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학 교 급	초등학교	9	88	735	438	1270	114.779***
		0.7	6.9	57.9	34.5	100.0	
	중학교	6	109	709	216	1040	
		0.6	10.5	68.2	20.8	100.0	
	고등학교	18	126	845	211	1200	
		1.5	10.5	70.4	17.6	100.0	
경 력	5년미만	9	63	354	135	561	26.673**
		1.6	11.2	63.1	24.1	100.0	
	5년이상~ 10년미만	4	48	315	166	533	
		0.8	9.0	59.1	31.1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3	43	347	116	509	
		0.6	8.4	68.2	22.8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4	51	468	169	692	
		0.6	7.4	67.6	24.4	100.0	
	20년이상	13	118	805	279	1215	
		1.1	9.7	66.3	23.0	100.0	
	전체	33	323	2289	865	3510	
		0.9	9.2	65.2	24.6	100.0	

- 등교개학 이후 정해진 수업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7.3%는 그렇다, 32.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의 73.1%가 수업진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해 초중학교 교사보다 많은 응답율을 나타냈음.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았음.

〈표 106〉 ‘등교개학 이후 정해진 수업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낀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8	362	531	289	1270	41.329***
		6.9	28.5	41.8	22.8	100.0	
중학교		70	309	439	222	1040	
		6.7	29.7	42.2	21.3	100.0	
고등학교		51	271	520	358	1200	
		4.3	22.6	43.3	29.8	100.0	
전체		209	942	1490	869	3510	
		6.0	26.8	42.5	24.8	100.0	

- 온라인수업 운영에 있어 교사의 어려움은 학생 참여 촉진(전화 및 문자 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는 콘텐츠를 개발과 자료 제작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온라인수업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교과는 체육으로 나타남
-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데 전체 교사의 32.0%는 학생참여 촉진(전화 및 문자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이 19.7%,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17.6%, 학생 간 학습 격차가 13.2% 순으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참여 촉진(전화 및 문자 등)이 25.0%,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이 20.9%, 학생 간 학습 격차가 20.7% 순으로 응답함. 중학교 교사는 학생참여 촉진(전화 및 문자 등)이 37.3%,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이 21.0%로 응답함.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참여 촉진(전화 및 문자 등)이 34.8%,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20.0%로 응답하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표 107〉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N, %)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	학생참여 촉진	수업 상호 작용	수업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학생 수업 참여 및 결과 피드백	학생 간 학습 격차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265	318	205	81	130	263	8	1270	133.758***
	20.9	25.0	16.1	6.4	10.2	20.7	0.6	100.0	
중학교	218	388	173	52	111	87	11	1040	
	21.0	37.3	16.6	5.0	10.7	8.4	1.1	100.0	
고등학교	207	418	240	76	134	112	13	1200	
	17.3	34.8	20.0	6.3	11.2	9.3	1.1	100.0	
전체	690	1124	618	209	375	462	32	3510	
	19.7	32.0	17.6	6.0	10.7	13.2	0.9	100.0	

- 2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에 가장 어려움이 컸으나, 그 외 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함. 특히, ‘학생의 수업 참여를 촉진’에 대해 5년 미만에서는 43.3%가 응답하였으나 경력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20년 이상에서는 23.5%가 응답하여 경력 간 차이가 컸음.

〈표 108〉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에 대한 경력별 응답 (N, %)

	컨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	학생참여 촉진	수업 상호 작용	수업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학생 수업 참여 및 결과 피드백	학생 간 학습 격차	기타	전체	χ^2
5년미만	82 14.6	243 43.3	79 14.1	26 4.6	49 8.7	77 13.7	5 0.9	561 100.0	108.350***
5년이상~ 10년미만	97 18.2	204 38.3	86 16.1	27 5.1	52 9.8	62 11.6	5 0.9	533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86 16.9	176 34.6	89 17.5	29 5.7	48 9.4	75 14.7	6 1.2	509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133 19.2	215 31.1	124 17.9	49 7.1	72 10.4	88 12.7	11 1.6	692 100.0	
20년이상	292 24.0	286 23.5	240 19.8	78 6.4	154 12.7	160 13.2	5 0.4	1215 100.0	
전체	690 19.7	1124 32.0	618 17.6	209 6.0	375 10.7	462 13.2	32 0.9	3510 100.0	

- 온라인수업을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교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49.7%는 체육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학 10.7%, 창체 9.1% 순으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체육 50.9%, 수학 15.9%로 응답함. 중학교 교사는 체육 49.4%, 창체 14.3%로 응답함. 고등학교 교사는 체육 48.7%, 창체 11.0%로 응답함.

〈표 109〉 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교과목 (N,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도덕	창체	전체	χ^2/p
초등학교	92 7.2	202 15.9	19 1.5	79 6.2	112 8.8	31 2.4	647 50.9	13 1.0	25 2.0	13 1.0	37 2.9	1270 100.0	371.632***
중학교	19 1.8	83 8.0	6 0.6	20 1.9	77 7.4	105 10.1	514 49.4	40 3.8	14 1.3	13 1.3	149 14.3	1040 100.0	
고등학교	30 2.5	89 7.4	18 1.5	43 3.6	66 5.5	118 9.8	584 48.7	93 7.8	21 1.8	6 0.5	132 11.0	1200 100.0	
전체	141 4.0	374 10.7	43 1.2	142 4.0	255 7.3	254 7.2	1745 49.7	146 4.2	60 1.7	32 0.9	318 9.1	3510 100.0	

- 등교 개학 이후, 온라인수업 한 차시를 개발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이었으며, 등교 후에는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만약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콘텐츠 활용형, 중·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영상 제공형으로 응답하였으며,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시 과제형 평가 금지로 인해,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 실시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점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 등교 개학 이후, 온라인수업 한 차시를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에 대해, 전체 교사의 48.5%는 2시간이상~4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시간미만이 24.4%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의 교사가 2시간이상~4시간미만 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2시간미만 든다는 응답이 36.2%로 많았음. 반면, 6시간이상 든다는 응답도 10.9%였고 특히 중학교 교사(14.5%)가 많이 응답함.

〈표 110〉 등교 개학 이후, 온라인수업 한 차시를 개발하는 데 소요한 시간 (N, %)

	2시간미만	2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이상~6시간미만	6시간이상	전체	χ^2/p
초등학교	460 36.2	600 47.2	133 10.5	77 6.1	1270 100.0	202.583***
중학교	166 16.0	522 50.2	201 19.3	151 14.5	1040 100.0	
고등학교	229 19.1	582 48.5	235 19.6	154 12.8	1200 100.0	
전체	855 24.4	1704 48.5	569 16.2	382 10.9	3510 100.0	

-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35.9%는 수업 영상 제공형(밴드, 온라인 클래스 등 활용)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콘텐츠 활용형 29.5%, 실시간 쌍방향 운영형 17.6%, 자료 제시 및 과제 제시형 17.0% 순으로 응답함.
- 초등학교 교사는 콘텐츠 활용형 35.8%, 수업 영상 제공형(밴드, 온라인 클래스 등 활용) 28.7%로 응답함. 중학교 교사는 수업 영상 제공형(밴드, 온라인 클래스 등 활용) 41.0%, 콘텐츠 활용형 28.3%로 응답함.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영상 제공형(밴드, 온라인 클래스 등 활용) 39.2%, 콘텐츠 활용형 23.8%로 응답하여 초등과 중등 교사의 차이가 있었음.

〈표 111〉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N, %)

	실시간 쌍방향 운영형	콘텐츠 활용형	자료 제시 및 과제 제시형	수업영상 제공형	전체	χ^2/p
초등학교	175 13.8	455 35.8	276 21.7	364 28.7	1270 100.0	112.279***
중학교	176 16.9	294 28.3	144 13.8	426 41.0	1040 100.0	
고등학교	267 22.3	286 23.8	177 14.8	470 39.2	1200 100.0	
전체	618 17.6	1035 29.5	597 17.0	1260 35.9	3510 100.0	

- 등교 후 교실수업에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의 71.0%는 등교수업에서 온라인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20% 미만으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8.5%, 온라인수업을 40%이상~60%미만 진행한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남.
-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교실수업에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60%이상 온라인수업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는 15.1%로 나타남.

〈표 112〉 등교 후 교실수업에서 온라인수업 진행 유무 및 비중 (N, %)

	하지않음(대 면수업만함)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 이상	전체	χ^2 / p
초등학교	844	101	58	76	133	58	1270	182.479***
	66.5	8.0	4.6	6.0	10.5	4.6	100.0	
중학교	773	103	42	67	46	9	1040	
	74.3	9.9	4.0	6.4	4.4	0.9	100.0	
고등학교	874	94	67	136	13	16	1200	
	72.8	7.8	5.6	11.3	1.1	1.3	100.0	
전체	2491	298	167	279	192	83	3510	
	71.0	8.5	4.8	7.9	5.5	2.4	100.0	

-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시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0.1%는 과제형 평가 금지로 인해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 실시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방향 온라인수업 과정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렵다는 응답이 18.0%, 온라인수업 내용으로 지필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다는 응답이 13.7% 순으로 나타남.
-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수업시간 내에 모든 평가를 실시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고등학교 교사는 초중 교사보다 생활기록부 기재의 어려움, 수행과 지필의 비율 설정이 어렵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함.

〈표 113〉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시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점 (N, %)

	수행과 지필의 비율 설정 어려움	과제형 평가 금지로 인해, 수업 시간 내에 평가 실시 부족	온라인수업 후 지필평가 시행에 대한 부담	일방향 온라인수업 후 생활기록부 기재 어려움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35	744	212	228	51	1270	53.048***
	2.8	58.6	16.7	18.0	4.0	100.0	
중학교	51	689	113	153	34	1040	
	4.9	66.3	10.9	14.7	3.3	100.0	
고등학교	72	675	155	252	46	1200	
	6.0	56.3	12.9	21.0	3.8	100.0	
전체	158	2108	480	633	131	3510	
	4.5	60.1	13.7	18.0	3.7	100.0	

나. 향후 온라인수업에 대한 의견

-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응답이 더 많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수업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온라인수업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수업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학생과 대면시간의 필요성에는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음.

-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59.2%는 그렇다는 긍정응답을 보였고, 40.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고등학교 교사(61.4%)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114〉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17	411	494	248	1270	13.096*
	9.2	32.4	38.9	19.5	100.0	
중학교	95	343	434	168	1040	
	9.1	33.0	41.7	16.2	100.0	
고등학교	79	385	519	217	1200	
	6.6	32.1	43.3	18.1	100.0	
전체	291	1139	1447	633	3510	
	8.3	32.5	41.2	18.0	100.0	

-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응답이 더 많았음 (31.9%는 긍정응답, 68.1%는 부정응답).
-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고등학교(36.1%)에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24.8%)에서 가장 낮았음.

〈표 115〉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초등학교	288 22.7	666 52.4	257 20.2	59 4.6	1270 100.0	76.898***
중학교	163 15.7	505 48.6	325 31.3	47 4.5	1040 100.0	
고등학교	151 12.6	616 51.3	377 31.4	56 4.7	1200 100.0	
전체	602 17.2	1787 50.9	959 27.3	162 4.6	3510 100.0	

-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92.9%는 그렇다는 긍정응답을 보였고, 7.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90% 이상의 긍정응답을 나타냈음. 긍정응답이 가장 많은 교사는 초등학교 (93.4%)로 나타남.

〈표 116〉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초등학교	13 1.0	71 5.6	700 55.1	486 38.3	1270 100.0	20.160**
중학교	14 1.3	56 5.4	593 57.0	377 36.3	1040 100.0	
고등학교	11 0.9	83 6.9	741 61.8	365 30.4	1200 100.0	
전체	38 1.1	210 6.0	2034 57.9	1228 35.0	3510 100.0	

-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 교사의 86.2%는 그렇다, 13.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교사의 긍정응답이 가장 많은 학교급은 고등학교(88.0%)로 나타났음.

〈표 117〉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29	167	720	354	1270	20.012**
	2.3	13.1	56.7	27.9	100.0	
중학교	21	124	641	254	1040	
	2.0	11.9	61.6	24.4	100.0	
고등학교	10	134	766	290	1200	
	0.8	11.2	63.8	24.2	100.0	
전체	60	425	2127	898	3510	
	1.7	12.1	60.6	25.6	100.0	

-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학생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96.5%는 그렇다, 3.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초중고 교사 모두 96% 이상의 높은 긍정응답을 보였음.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교사(58.0%)가 가장 많았음.

〈표 118〉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학생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7	42	484	737	1270	6.401
	0.6	3.3	38.1	58.0	100.0	
중학교	3	33	433	571	1040	
	0.3	3.2	41.6	54.9	100.0	
고등학교	6	33	508	653	1200	
	0.5	2.8	42.3	54.4	100.0	
전체	16	108	1425	1961	3510	
	0.5	3.1	40.6	55.9	100.0	

2. 담임업무

가. 학생과의 상호작용

- 코로나19 확산 이후 담임교사로서 가장 힘든 업무는 생활지도 및 교육이었고,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을 위한 방식으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 중학교 교사는 전화 상담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학생 상담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의 미흡이라고 응답함
- 2020년 1학기 담임교사로서 가장 힘든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생활지도 및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 필수 교육과정(수행평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으로 나타남.

〈표 119〉 담임교사로서 가장 힘든 업무(2가지 응답)

구분	초	중	고
생활지도 및 교육	616	405	374
학부모 상담	140	41	50
학교 방역	179	74	74
급식지도	33	31	44
돌봄/위기학생/취약계층에 대한 파악 및 지원	241	87	43
학교구성원(교사, 직원, 관리자)과의 협력	106	36	51
학교 필수 교육과정(수행평가, 창의적 체험 활동 등)	478	257	254
행정 업무	165	131	125
전체	1958	1062	1015

-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을 위한 방식으로, 전체 교사의 54.9%는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전화 상담이 30.6%, 온라인 상에서의 파악(과제제출 및 출결)이 14.6%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 58.2%, 전화 상담 24.4%, 온라인상에서의 파악(과제제출 및 출결) 17.4% 순으로 응답함. 중학교 교사는 전화 상담 53.0%,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 27.5%, 온라인상에서의 파악(과제제출 및 출결) 19.5% 순으로 응답함. 고등학교 교사는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 77.0%, 전화 상담 18.7%, 온라인상에서의 파악(과제제출 및 출결) 4.3% 순으로 응답함.
- 등교수업이 많은 고등학교와 직접 전화가 어려운 초등학교는 대면 방식의 상담이 가장 많았음.

〈표 120〉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을 위한 방식 (N, %)

	전화 상담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	온라인 상에서 파악	전체	χ^2/p
초등학교	253	604	180	1037	320.960***
	24.4	58.2	17.4	100.0	
중학교	307	159	113	579	
	53.0	27.5	19.5	100.0	
고등학교	104	429	24	557	
	18.7	77.0	4.3	100.0	
전체	664	1192	317	2173	
	30.6	54.9	14.6	100.0	

- 학생 상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57.6%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의 미흡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상담할 시간의 부족 24.3%, 비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상황 14.3% 순으로 응답함.
- 초중고 모두 학생과의 관계 형성의 미흡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60.6%가 응답함. 상대적으로 고등학교(21.9%)에서 상담할 시간의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121〉 학생 상담 시 가장 어려운 부분 (N, %)

	비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상황	상담할 시간의 부족	학생과의 관계 형성의 미흡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145	227	628	37	1037	60.757***
	14.0	21.9	60.6	3.6	100.0	
중학교	115	111	335	18	579	
	19.9	19.2	57.9	3.1	100.0	
고등학교	51	189	289	28	557	
	9.2	33.9	51.9	5.0	100.0	
전체	311	527	1252	83	2173	
	14.3	24.3	57.6	3.8	100.0	

나.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은 비교적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를 통한 대화 상담이 많음
 -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38.2%는 상호작용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32.1%, 상호작용시간이 줄었다는 29.7%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46.1%)와 중학교 교사(37.3%)는 상호작용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고등학교 교사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음.

〈표 122〉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의 변화 (N, %)

	이전과 비슷하다	상호작용시간이 줄었다.	상호작용시간이 늘었다.	전체	χ^2/p
초등학교	256	303	478	1037	88.797***
	24.7	29.2	46.1	100.0	
중학교	199	164	216	579	
	34.4	28.3	37.3	100.0	
고등학교	243	179	135	557	
	43.6	32.1	24.2	100.0	
전체	698	646	829	2173	
	32.1	29.7	38.2	100.0	

-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전화상담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를 통한 대화 상담이 많았음.

〈표 123〉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방법(2가지 응답)

구분	초	중	고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	908	541	505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를 통한 대화 상담	612	396	353
등교기간을 활용한 대면 상담	26	23	47
인터넷 플랫폼 활용(밴드, 클래스팅 등)	311	47	29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용	6	2	6
전체	1863	1009	940

3. 학생 상담 및 생활교육

- 코로나19 이후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상호작용 방법으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등교기간을 활용한 대면 상담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학생과의 상호작용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3.4%는 상호작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전과 비슷하다 12.3%,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상호작용이 잘된다가 4.3%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상호작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교 교사(86.0%)의 응답이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비교적 높았음. 오히려 상호작용이 잘된다는 응답은 중학교 교사(5.7%)가 가장 높았음.

〈표 124〉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학생과의 상호작용 정도 (N, %)

	이전과 비슷하다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상호작용이 잘된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44	1196	51	1391	16.854**
	10.4	86.0	3.7	100.0	
중학교	146	947	66	1159	
	12.6	81.7	5.7	100.0	
고등학교	184	1077	49	1310	
	14.0	82.2	3.7	100.0	
전체	474	3220	166	3860	
	12.3	83.4	4.3	100.0	

-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등교기간을 활용한 대면 상담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전화 상담 방식이 가장 많았음.

〈표 125〉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방법(2가지 응답)

구분	초	중	고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	677	772	641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를 통한 대화 상담	410	634	645
등교기간을 활용한 대면 상담	914	484	820
인터넷 플랫폼 활용(밴드, 클래스팅 등)	455	235	249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용	7	11	24
전체	2463	2136	2379

- 학생의 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소요하는 시간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는 주1시간미만, 중학교 교사는 주1시간이상~2시간미만 31.5%, 고등학교 교사는 주3시간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미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소요하는 시간의 경우,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주1시간미만 40.2%, 중학교 교사는 주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생의 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소요하는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31.5%는 주1시간이상~2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주1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8.8%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주1시간미만(43.0%)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중학교 교사는 주1시간이상~2시간미만에 31.5%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주3시간이상에 32.0% 응답함.

〈표 126〉 학생의 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소요하는 시간 (N, %)

	주1시간미만	주1시간이상~ 2시간미만	주2시간이상~ 3시간미만	주3시간이상	전체	χ^2 / p
초등학교	598	452	147	194	1391	285.350***
	43.0	32.5	10.6	13.9	100.0	
중학교	255	365	214	325	1159	
	22.0	31.5	18.5	28.0	100.0	
고등학교	260	400	231	419	1310	
	19.8	30.5	17.6	32.0	100.0	
전체	1113	1217	592	938	3860	
	28.8	31.5	15.3	24.3	100.0	

- 학생의 미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소요하는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33.2%는 주1시간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주1시간이상~2시간미만 29.9%, 주3시간이상 22.0%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40.2%)와 고등학교(32.7%) 교사는 주1시간미만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주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음.

〈표 127〉 학생의 미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소요하는 시간 (N, %)

	주1시간미만	주1시간이상~ 2시간미만	주2시간이상~ 3시간미만	주3시간이상	전체	χ^2/p
초등학교	559	432	177	223	1391	91.188***
	40.2	31.1	12.7	16.0	100.0	
중학교	296	344	196	323	1159	
	25.5	29.7	16.9	27.9	100.0	
고등학교	428	379	201	302	1310	
	32.7	28.9	15.3	23.1	100.0	
전체	1283	1155	574	848	3860	
	33.2	29.9	14.9	22.0	100.0	

- 코로나19 이후 학생사안의 발생은 줄었다(68.2%)는 응답이 많음. 학생과의 진로 상담 및 생활 교육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의 학생사안 발생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8.2%는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전과 비슷하다 15.4%, 모르겠다 12.4%, 늘었다 4.0% 순으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83.0%)에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냄. 반면, 중고등학교의 5% 정도는 늘었다라고 응답하였음.

〈표 128〉 코로나19 이후의 학생사안 발생 정도 (N, %)

	줄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늘었다	모르겠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155	96	15	125	1391	329.590***
	83.0	6.9	1.1	9.0	100.0	
중학교	802	171	61	125	1159	
	69.2	14.8	5.3	10.8	100.0	
고등학교	677	326	77	230	1310	
	51.7	24.9	5.9	17.6	100.0	
전체	2634	593	153	480	3860	
	68.2	15.4	4.0	12.4	100.0	

- 학생과의 진로 상담 및 생활교육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33.8%는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 32.7%,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담 18.2% 순으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33.6%)와 중학교(35.0%)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음.
-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10년 이상의 중경력 이상 교사는 교사-학생 간의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129> 학생과의 진로 상담 및 생활교육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N, %)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담	학폭 예방 및 입시위주의 상담	상호작용 없는 일방적인 상담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428	292	10	122	468	71	1391	99.112***
	30.8	21.0	0.7	8.8	33.6	5.1	100.0	
중학교	371	225	23	93	406	41	1159	
	32.0	19.4	2.0	8.0	35.0	3.5	100.0	
고등학교	464	185	74	82	431	74	1310	
	35.4	14.1	5.6	6.3	32.9	5.6	100.0	
전체	1263	702	107	297	1305	186	3860	
	32.7	18.2	2.8	7.7	33.8	4.8	100.0	

<표 130> 학생과의 진로 상담 및 생활교육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경력별 응답 (N, %)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담	학폭 예방 및 입시위주의 상담	상호작용 없는 일방적인 상담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	기타	전체	χ^2
5년미만	191	109	24	58	251	43	676	49.028***
	28.3	16.1	3.6	8.6	37.1	6.4	100.0	
5년이상~ 10년미만	170	106	19	59	210	42	606	
	28.1	17.5	3.1	9.7	34.7	6.9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199	117	18	39	169	23	565	
	35.2	20.7	3.2	6.9	29.9	4.1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250	133	22	48	245	36	734	
	34.1	18.1	3.0	6.5	33.4	4.9	100.0	
20년이상	453	237	24	93	430	42	1279	
	35.4	18.5	1.9	7.3	33.6	3.3	100.0	
전체	1263	702	107	297	1305	186	3860	
	32.7	18.2	2.8	7.7	33.8	4.8	100.0	

4. 학사 운영 및 업무

가. 학생의 등교방식 및 교사 만족도

- 초등학교는 학교내 요일별 분리, 중·고등학교는 학년별·주기별 분리 등교를 주로 시행하였고, 현재 등교방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
 - 2020년 6월초부터 학교 등교가 단계별로 시작되면서, 약 한달 동안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 현재 학생의 등교방식을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
 - 대상별로는, 초등학교는 학급 내 분리 등교, 중고등학교는 학년별로 분리하여 등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요일 및 주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요일별 등교, 중고등학교는 주기별로 분리하여 등교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131〉 학교급별 등교 방식(중복응답)

구분		초	중	고
대상별	학년별로 분리 등교	753	772	1273
	학급 내 분리 등교	908	634	9
	기타	38	484	31
	전체	1699	235	1313
요일 및 주기 별	요일별 등교	1260	37	34
	주기별 등교	129	1098	1247
	기타	21	29	37
	전체	1410	1164	1318

- 현재 등교방식에 대한 교사의 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47.9%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보통 27.3%, 매우 만족은 14.8%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62.7%)이 많았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교사(68.5%)가 가장 높았고, 불만족한 응답은 고등학교 교사(12.6%)가 가장 많았음.

〈표 132〉 현재 등교방식에 대한 교사 만족 정도 (N, %)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p
초등학교	51	82	306	659	293	1391	180.036***
	3.7	5.9	22.0	47.4	21.1	100.0	
중학교	24	66	270	614	185	1159	
	2.1	5.7	23.3	53.0	16.0	100.0	
고등학교	55	110	476	577	92	1310	
	4.2	8.4	36.3	44.0	7.0	100.0	
전체	130	258	1052	1850	570	3860	
	3.4	6.7	27.3	47.9	14.8	100.0	

나. 코로나19 이후 학사 운영 및 업무 상황

-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 방법이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는 미디어 활용 방법을 지원받고 싶다고 응답함. 온라인수업, 등교수업,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 및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지만, 16.5%의 교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학교의 모습이 더 좋다고 응답함.
 - 교사에게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26.9%는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방법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 26.3%,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 20.9% 순으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31.5%)을 가장 지원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중학교(29.7%)와 고등학교(25.7%) 교사는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방법을 지원받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경력별로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 고경력 교사는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35.2%)에 대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저경력 교사나 이외의 교사들은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 방법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표 133〉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N, %)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방법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	효과적인 수행평가 방법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	학생과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357	364	51	438	69	112	1391	246.772***
	25.7	26.2	3.7	31.5	5.0	8.1	100.0	
중학교	344	330	130	176	102	77	1159	
	29.7	28.5	11.2	15.2	8.8	6.6	100.0	
고등학교	337	321	187	193	138	134	1310	
	25.7	24.5	14.3	14.7	10.5	10.2	100.0	
전체	1038	1015	368	807	309	323	3860	
	26.9	26.3	9.5	20.9	8.0	8.4	100.0	

〈표 134〉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경력별 응답 (N, %)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방법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	효과적인 수행평가 방법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	학생과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	기타	전체	χ^2
5년미만	176	97	102	143	84	74	676	207.928***
	26.0	14.3	15.1	21.2	12.4	10.9	100.0	
5년이상~ 10년미만	134	135	85	134	56	62	606	
	22.1	22.3	14.0	22.1	9.2	10.2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155	134	57	115	46	58	565	
	27.4	23.7	10.1	20.4	8.1	10.3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203	199	64	155	53	60	734	
	27.7	27.1	8.7	21.1	7.2	8.2	100.0	
20년이상	370	450	60	260	70	69	1279	
	28.9	35.2	4.7	20.3	5.5	5.4	100.0	
전체	1038	1015	368	807	309	323	3860	
	26.9	26.3	9.5	20.9	8.0	8.4	100.0	

- 온라인수업, 등교수업,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8.6%는 그렇다, 11.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초등학교 교사(89.0%)가 온라인수업, 등교수업,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15년이상~20년미만 경력의 교사(91.0%)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표 135> '온라인수업, 등교수업,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학교급	초등학교	15	138	530	708	1391	20.608**
		1.1	9.9	38.1	50.9	100.0	
	중학교	15	125	530	489	1159	
		1.3	10.8	45.7	42.2	100.0	
	고등학교	13	136	561	600	1310	
		1.0	10.4	42.8	45.8	100.0	
경력	5년미만	6	73	284	313	676	28.741**
		0.9	10.8	42.0	46.3	100.0	
	5년이상~ 10년미만	13	63	222	308	606	
		2.1	10.4	36.6	50.8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4	58	222	281	565	
		0.7	10.3	39.3	49.7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7	59	318	350	734	
		1.0	8.0	43.3	47.7	100.0	
	20년이상	13	146	575	545	1279	
		1.0	11.4	45.0	42.6	100.0	
전체		43	399	1621	1797	3860	
		1.1	10.3	42.0	46.6	100.0	

- 코로나19로 인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9.0%는 그렇다, 30.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75.9%)가 담당 업무의 과중을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남. 경력별로는, 15년이상~20년미만 경력의 교사(73.8%)가 업무 과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5년미만 경력의 교사는 66.7%가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의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음

〈표 136〉 ‘코로나19로 인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학교급	초등학교	35	524	473	359	1391	99.455***
		2.5	37.7	34.0	25.8	100.0	
	중학교	22	299	506	332	1159	
		1.9	25.8	43.7	28.6	100.0	
	고등학교	18	298	532	462	1310	
		1.4	22.7	40.6	35.3	100.0	
경력	5년미만	27	198	242	209	676	47.900***
		4.0	29.3	35.8	30.9	100.0	
	5년이상~ 10년미만	20	172	222	192	606	
		3.3	28.4	36.6	31.7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5	168	221	171	565	
		0.9	29.7	39.1	30.3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5	187	304	238	734	
		0.7	25.5	41.4	32.4	100.0	
	20년이상	18	396	522	343	1279	
		1.4	31.0	40.8	26.8	100.0	
전체		75	1121	1511	1153	3860	
		1.9	29.0	39.1	29.9	100.0	

-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학교의 모습이 더 좋은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3.6%는 그렇지 않다, 16.5%는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표 137〉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학교의 모습이 더 좋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532	615	169	75	1391	12.499
		38.2	44.2	12.1	5.4	100.0	
중학교		418	533	153	55	1159	
		36.1	46.0	13.2	4.7	100.0	
고등학교		524	603	137	46	1310	
		40.0	46.0	10.5	3.5	100.0	
전체		1474	1751	459	176	3860	
		38.2	45.4	11.9	4.6	100.0	

5. 학교자치 및 공동체

- 소속 학교의 자치 및 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학교 자율성보다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사가 65%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매우 높은 편임(87.0%).
 - 코로나19 이전보다 전체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1.9%는 그렇다, 38.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67.9%)가 긍정응답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교사(55.0%)는 가장 낮았음.

〈표 138〉 ‘코로나19 이전보다 전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0	432	659	220	1391	93.291***
	5.8	31.1	47.4	15.8	100.0	
중학교	48	323	631	157	1159	
	4.1	27.9	54.4	13.5	100.0	
고등학교	91	499	639	81	1310	
	6.9	38.1	48.8	6.2	100.0	
전체	219	1254	1929	458	3860	
	5.7	32.5	50.0	11.9	100.0	

- 코로나19 이전보다 학년(교과) 내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74.9%는 그렇다, 25.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8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고등학교 교사는 66.5%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었음.

〈표 139〉 ‘코로나19 이전보다 학년(교과) 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41	227	689	434	1391	254.319***
	2.9	16.3	49.5	31.2	100.0	
중학교	30	232	711	186	1159	
	2.6	20.0	61.3	16.0	100.0	
고등학교	57	381	751	121	1310	
	4.4	29.1	57.3	9.2	100.0	
전체	128	840	2151	741	3860	
	3.3	21.8	55.7	19.2	100.0	

-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보다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5.3%는 그렇다, 34.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68.7%)에서 지침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중학교(62.5%)가 가장 적었음.

〈표 140〉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보다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01	334	668	288	1391	32.555***
	7.3	24.0	48.0	20.7	100.0	
중학교	82	352	560	165	1159	
	7.1	30.4	48.3	14.2	100.0	
고등학교	91	381	648	190	1310	
	6.9	29.1	49.5	14.5	100.0	
전체	274	1067	1876	643	3860	
	7.1	27.6	48.6	16.7	100.0	

- 우리 학교는 학생사안이나 방역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교사 이외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7.0%는 그렇다, 13.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89.1%)가 가장 긍정응답이 높았고, 고등학교 교사(82.9%)가 긍정응답이 가장 적었음.

〈표 141〉 ‘우리 학교는 학생사안이나 방역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교사 이외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4	122	784	451	1391	94.757***
	2.4	8.8	56.4	32.4	100.0	
중학교	26	100	728	305	1159	
	2.2	8.6	62.8	26.3	100.0	
고등학교	52	171	860	227	1310	
	4.0	13.1	65.6	17.3	100.0	
전체	112	393	2372	983	3860	
	2.9	10.2	61.5	25.5	100.0	

6. 개인 상황과 인식 변화

가. 학교에서의 교사 지원

-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이고,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 및 정책모니터링 제공, 중학교 교사는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 고등학교 교사는 수행 평가 및 지필 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및 보장이 가장 많음
-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48.7%는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나친 인터넷 환경 노출 및 부정적인 콘텐츠 접속 여부가 24.9%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나친 인터넷 환경 노출 및 부정적인 콘텐츠 접속 여부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음. 특히 초등학교는 가정 내의 방치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고등학교는 온라인 기간에서의 학생 일탈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142〉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 (N, %)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	온라인 기간 중 학생들의 일탈 행위 발생에 관한 염려	가정 내에서의 방치 및 아동 학대에 대한 염려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나친 인터넷 환경 노출 및 부정적인 콘텐츠 접속 여부	기타	전체	χ^2 / p
초등학교	746	67	223	339	16	1391	161.288***
	53.6	4.8	16.0	24.4	1.2	100.0	
중학교	527	150	140	318	24	1159	
	45.5	12.9	12.1	27.4	2.1	100.0	
고등학교	606	245	118	305	36	1310	
	46.3	18.7	9.0	23.3	2.7	100.0	
전체	1879	462	481	962	76	3860	
	48.7	12.0	12.5	24.9	2.0	100.0	

-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31.7%는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행 평가 및 지필 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및 보장이 29.6%,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

및 정책모니터링 제공이 27.8% 순으로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 및 정책모니터링 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중학교 교사는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을, 고등학교 교사는 수행 평가 및 지필 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보장이라고 응답하여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뚜렷함.

〈표 143〉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 (N, %)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 및 정책모니터링 제공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보장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 보장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444 31.9	458 32.9	319 22.9	123 8.8	47 3.4	1391 100.0	61.547***
중학교	372 32.1	299 25.8	362 31.2	87 7.5	39 3.4	1159 100.0	
고등학교	408 31.1	315 24.0	460 35.1	92 7.0	35 2.7	1310 100.0	
전체	1224 31.7	1072 27.8	1141 29.6	302 7.8	121 3.1	3860 100.0	

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선생님의 퇴근 후 생활 변화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음식 배달, 혼자 식사, 가족(동거인)과의 대화 횟수는 늘었고, 모임 참석, 운동·산책, 병원·약국 방문 횟수는 줄었으며, 정신적인 건강은 나빠졌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모임 또는 동호회 참석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96.2%는 줄었다, 3.1%는 이전과 비슷하다, 0.7%는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144〉 모임 또는 동호회 참석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355	6	30	1391	8.319
	97.4	0.4	2.2	100.0	
중학교	1108	10	41	1159	
	95.6	0.9	3.5	100.0	
고등학교	1252	11	47	1310	
	95.6	0.8	3.6	100.0	
전체	3715	27	118	3860	
	96.2	0.7	3.1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운동 및 산책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76.7%는 줄었다, 11.8%는 이전과 비슷하다, 11.5%는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145〉 운동 및 산책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057	163	171	1391	2.353
	76.0	11.7	12.3	100.0	
중학교	899	136	124	1159	
	77.6	11.7	10.7	100.0	
고등학교	1005	144	161	1310	
	76.7	11.0	12.3	100.0	
전체	2961	443	456	3860	
	76.7	11.5	11.8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가족(동거인)과의 대화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40.5%는 늘었다, 39.6%는 이전과 비슷하다, 19.9%는 줄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초중학교 교사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146〉 가족(동거인)과의 대화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학교	237	559	595	1391	25.141***
	17.0	40.2	42.8	100.0	
중학교	221	471	467	1159	
	19.1	40.6	40.3	100.0	
고등학교	311	534	465	1310	
	23.7	40.8	35.5	100.0	
전체	769	1564	1527	3860	
	19.9	40.5	39.6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병원 및 약국 방문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0.1%는 줄었다, 22.3%는 이전과 비슷하다, 17.6%는 늘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늘었다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초중학교 보다 많았음.

〈표 147〉 병원 및 약국 방문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65	227	299	1391	23.259***
	62.2	16.3	21.5	100.0	
중학교	733	182	244	1159	
	63.2	15.7	21.1	100.0	
고등학교	720	272	318	1310	
	55.0	20.8	24.3	100.0	
전체	2318	681	861	3860	
	60.1	17.6	22.3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혼자 식사하는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48.3%는 늘었다, 40.8%는 이전과 비슷하다, 11.0%는 줄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이 응답함.

〈표 148〉 혼자 식사하는 횟수의 변화 (N, %)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73	626	592	1391	11.814*
	12.4	45.0	42.6	100.0	
중학교	125	575	459	1159	
	10.8	49.6	39.6	100.0	
고등학교	125	662	523	1310	
	9.5	50.5	39.9	100.0	
전체	423	1863	1574	3860	
	11.0	48.3	40.8	100.0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선생님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48.9%는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40.2%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5.9%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5.1%는 병원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나빠졌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교 교사(57.9%)가 가장 높고, 초등학교 교사(51.1%)가 가장 낮았음. 심하게 나빠졌다는 응답도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음.

〈표 149〉 선생님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 (N, %)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나빠졌다	전체	χ^2/p
초등학교	582	98	658	53	1391	24.933***
	41.8	7.0	47.3	3.8	100.0	
중학교	471	75	550	63	1159	
	40.6	6.5	47.5	5.4	100.0	
고등학교	498	53	679	80	1310	
	38.0	4.0	51.8	6.1	100.0	
전체	1551	226	1887	196	3860	
	40.2	5.9	48.9	5.1	100.0	

다. 코로나19에 대한 의견

-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학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응답이 많음

-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4.9%는 그렇다, 15.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86.8%)가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0>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	176	727	480	1391	44.348***
	0.6	12.7	52.3	34.5	100.0	
중학교	12	175	686	286	1159	
	1.0	15.1	59.2	24.7	100.0	
고등학교	8	202	776	324	1310	
	0.6	15.4	59.2	24.7	100.0	
전체	28	553	2189	1090	3860	
	0.7	14.3	56.7	28.2	100.0	

-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50.4%는 그렇다, 49.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부정응답(55.2%)이 더 높았고, 중학교 교사는 긍정과 부정응답이 거의 동일했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긍정응답(56.0%)이 더 많았음.

<표 151>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246	522	390	233	1391	59.598***
	17.7	37.5	28.0	16.8	100.0	
중학교	144	426	413	176	1159	
	12.4	36.8	35.6	15.2	100.0	
고등학교	129	448	504	229	1310	
	9.8	34.2	38.5	17.5	100.0	
전체	519	1396	1307	638	3860	
	13.4	36.2	33.9	16.5	100.0	

-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66.1%는 그렇다, 33.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의 71.7%가 긍정응답을 보여 초중학교 교사보다 높게 나타남.

〈표 152〉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50	405	542	294	1391	58.492***
	10.8	29.1	39.0	21.1	100.0	
중학교	85	299	561	214	1159	
	7.3	25.8	48.4	18.5	100.0	
고등학교	74	296	646	294	1310	
	5.6	22.6	49.3	22.4	100.0	
전체	309	1000	1749	802	3860	
	8.0	25.9	45.3	20.8	100.0	

-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79.5%는 그렇다, 20.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긍정응답이 가장 많은 학교급은 중학교(82.7%)였고, 초등학교(77.6%)에서 다소 긍정응답이 적었음.

〈표 153〉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57	255	758	321	1391	23.999***
	4.1	18.3	54.5	23.1	100.0	
중학교	26	175	681	277	1159	
	2.2	15.1	58.8	23.9	100.0	
고등학교	23	253	731	303	1310	
	1.8	19.3	55.8	23.1	100.0	
전체	106	683	2170	901	3860	
	2.7	17.7	56.2	23.3	100.0	

-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교사의 89.9%는 그렇다, 10.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모든 학교급에서 90% 정도이 높은 긍정응답을 나타냄.

〈표 154〉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6	134	760	481	1391	11.110
	1.2	9.6	54.6	34.6	100.0	
중학교	9	106	698	346	1159	
	0.8	9.1	60.2	29.9	100.0	
고등학교	10	116	731	453	1310	
	0.8	8.9	55.8	34.6	100.0	
전체	35	356	2189	1280	3860	
	0.9	9.2	56.7	33.2	100.0	

-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에 대해, 전체 교사의 59.1%는 그렇다, 40.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64.0%)의 긍정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56.1%)의 긍정응답이 가장 적었음.

〈표 155〉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29	468	536	258	1391	22.112**
	9.3	33.6	38.5	18.5	100.0	
중학교	106	402	456	195	1159	
	9.1	34.7	39.3	16.8	100.0	
고등학교	88	383	577	262	1310	
	6.7	29.2	44.0	20.0	100.0	
전체	323	1253	1569	715	3860	
	8.4	32.5	40.6	18.5	100.0	

-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은지에 대해, 전체 교사의 84.6%는 그렇다, 15.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86.7%)의 긍정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교사(82.1%)가 가장 낮았음.

〈표 156〉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의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6	169	790	416	1391	25.152***
	1.2	12.1	56.8	29.9	100.0	
중학교	18	189	697	255	1159	
	1.6	16.3	60.1	22.0	100.0	
고등학교	17	188	770	335	1310	
	1.3	14.4	58.8	25.6	100.0	
전체	51	546	2257	1006	3860	
	1.3	14.1	58.5	26.1	100.0	

7. 소결

뉴노멀(New Normal)을 준비하는 시대에는 비대면 상태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교육 분야의 도전과 과감성이 필요하며, 비대면 수업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학교 대체론이 아니라 대면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기회임. 이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경험한 교사들의 생활과 인식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운영, 담임 업무, 학생 상담 및 생활교육, 학사 운영 및 업무, 학교자치 및 공동체, 학교지원 및 개인적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업 운영

- 1학기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수업의 내용, 운영 역량이 대체로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교과나 교사별로 차이가 크다고 인식함. 뿐만 아니라 약 20%의 교사는 대면수업보다 온라인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60%의 교사는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응답함.
- 온라인수업이 긴급히 이루어졌음에도 교사들은 학생 개별 학습상태를 확인하고, 질문 및 평가나 과제에 피드백 하는 등 온라인수업의 적절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5~30%의 교사는 학습상태 점검 및 질문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온라인수업 운영에 있어 학생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육을 원활하고 평안하게 진행하게 해주었는지 느낄 수 있는 결과임. 이것은 전통적인 학습환경에 메이지 않고 다양한 학습의 공간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수행해나가도록 교사나 학교는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콘텐츠 활용형, 중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영상 제공형으로 응답하였으며,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시 과제형 평가 금지로 인해,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 실시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점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응답이 더 많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수업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온라인수업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수업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학생과 대면시간의 필요성에는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음.

- 온라인수업 형태는 개별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의 학생 환경을 살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획일적인 방식의 강조나 권고가 아닌 교사의 자율에 기반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 환경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담임 업무 및 생활교육

- 코로나19 확산 이후 담임교사로서 가장 힘든 업무는 생활지도 및 교육이었고,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을 위한 방식의 경우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 중학교 교사는 전화 상담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학생 상담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의 미흡임.
- 코로나19 이후 초등학교는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보호자(학부모)와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과는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주로 활용하고, 고등학생은 등교하는 날짜가 비교적 확보되었기 때문에 학생을 대면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됨.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는 상호작용 시간은 비교적 늘었고, 고등학교 교사는 비슷하다고 응답함.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를 통한 대화 상담이 주를 이룸.
- 코로나19 이후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상호작용 방법으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등교시간을 활용한 대면 상담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학생사안의 발생은 줄었다는 응답이 많음. 등교일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안의 발생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학생과의 진로 상담 및 생활교육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사 운영 및 업무

- 초등학교는 학교내 요일별 분리, 중·고등학교는 학년별·주기별 분리 등교를 주로 시행하였고, 현재

등교방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

-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 방법이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는 미디어 활용 방법을 지원받고 싶다고 응답함. 온라인수업, 등교수업,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 및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지만, 16.5%의 교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학교의 모습이 더 좋다고 응답함.
- 소속 학교의 자치 및 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학교 자율성보다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사가 65%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매우 높은 편임.
- 코로나19는 학교자치에 대한 또 다른 학교모습을 보여주었음. 소통과 협력에는 긍정적이지만, 자율성보다 지침의 준수가 중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고 있음. 보다 심도있는 학교자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교지원 및 개인적 상황

-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이고,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 및 정책모니터링 제공, 중학교 교사는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 고등학교 교사는 수행 평가 및 지필 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및 보장이 가장 높음.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모임 참석, 운동·산책, 병원·약국 방문 횟수는 줄었고, 음식 배달, 혼자 식사, 가족(동거인)과의 대화 횟수는 늘었으며, 정신적인 건강 상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음.
-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학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응답이 높음.
-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의 내용적인 변화를 가장 많이 겪은 직업이 교사라고 할 수 있음. 기존에 해왔던 대부분의 일들이 변하였고, 동시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와 대응의 주체로서, 또한 미래사회의 교육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사자로서 교사의 노력과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함.

IV.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의 인식 변화

1. 학교등교와 온라인수업에 대한 인식

가. 학생(자녀)의 등교방식 및 만족도

- 초등학교는 학급 내·요일별 분리, 중고등학교는 학년별·주기별 분리 등교
- 2020년 6월부터 학교 등교가 단계별·순차적으로 시작되면서, 약 한달 동안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 현재 학생의 등교방식을 학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대상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학년별(43.3%) 보다 학급 내 분리(54.6%)가 많았으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학년별로 분리하여 등교하는 상황으로 파악됨.
- 요일 및 주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주기별(15.4%) 보다 요일별 등교(82.7%)가 많았으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주기별 등교를 하고 있음.

〈표 157〉 학교급별 등교 방식(중복응답)

구분		초	중	고
대상별	학년별로 분리 등교	6641	9585	7614
	학급 내 분리 등교	8329	533	206
	기타	287	83	437
	전체	15257	10201	8257
요일 및 주기 별	요일별 등교	10914	785	811
	주기별 등교	2028	9249	6708
	기타	254	163	762
	전체	13196	10197	8281

- 현재 등교방식의 만족 정도는 ‘보통’임. 전체적으로 불만족보다는 만족하는 응답이 많았으나, 초등학교 학부모, 경제적수준이 낮은 학부모, 맞벌이 학부모는 불만족응답이 더 높음.
- 현재 학생의 등교방식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부모의 39.6%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응답은 28.3%, 만족

응답은 32.0으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많았음.

- 그러나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불만족응답(32.3%)이 만족응답(29.0%)보다 많은 반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만족응답이 더 많아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표 158〉 학교급별 현재 등교방식에 대한 학부모 만족 정도 (N, %)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 p
초등학교	1588	2552	4980	3013	712	12845	330.220***
	12.4	19.9	38.8	23.5	5.5	100.0	
중학교	922	1828	4124	2720	426	10020	
	9.2	18.2	41.2	27.1	4.3	100.0	
고등학교	670	1240	3203	2627	437	8177	
	8.2	15.2	39.2	32.1	5.3	100.0	
전체	3180	5620	12307	8360	1575	31042	
	10.2	18.1	39.6	26.9	5.1	100.0	

- 지역별⁴⁾ 살펴보면, 대도시(32.6%), 중도시(30.3%), 소도시(35.9%) 모두 불만족응답 보다 만족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소도시의 만족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시의 만족응답이 적었음.

〈표 159〉 지역별 현재 등교방식에 대한 학부모 만족 정도 (N, %)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대도시	2081	3688	8046	5569	1109	20493	44.136***
	10.2	18.0	39.3	27.2	5.4	100.0	
중도시	996	1749	3883	2495	390	9513	
	10.5	18.4	40.8	26.2	4.1	100.0	
소도시	103	183	378	296	76	1036	
	9.9	17.7	36.5	28.6	7.3	100.0	
전체	3180	5620	12307	8360	1575	31042	
	10.2	18.1	39.6	26.9	5.1	100.0	

- 학부모의 등교만족도를 경제적상황별 살펴보면, 상 수준(38.7%)과 중 수준(31.1%)의 학부모는 만족응답이 불만족응답보다 많았으나, 하 수준의 학부모는 불만족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상황에 따라 등교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음.

4)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 20만 이상~50만 미만은 중도시, 20만 미만은 소도시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표 160〉 경제적상황별 등교방식에 대한 학부모 만족 정도 (N, %)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상	558	807	1568	1482	366	4781	217.338***
	11.7	16.9	32.8	31.0	7.7	100.0	
중	2362	4411	9772	6378	1090	24013	
	9.8	18.4	40.7	26.6	4.5	100.0	
하	260	402	967	500	119	2248	
	11.6	17.9	43.0	22.2	5.3	100.0	
전체	3180	5620	12307	8360	1575	31042	
	10.2	18.1	39.6	26.9	5.1	100.0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 등교만족도를 살펴보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불만족응답(33.6%)이 만족응답(26.9%)보다 많았고, 그 외 학부모는 만족응답이 더 많았음.

〈표 161〉 경제변화별 등교방식에 대한 학부모 만족 정도 (N, %)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심각한 영향	977	1273	2634	1493	308	6685	355.064***
	14.6	19.0	39.4	22.3	4.6	100.0	
어느 정도 영향	1599	3278	7377	4873	821	17948	
	8.9	18.3	41.1	27.2	4.6	100.0	
별로 영향 없음	604	1069	2296	1994	446	6409	
	9.4	16.7	35.8	31.1	7.0	100.0	
전체	3180	5620	12307	8360	1575	31042	
	10.2	18.1	39.6	26.9	5.1	100.0	

- 보호자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등교만족도를 살펴보면, 맞벌이인 학부모는 만족응답보다 불만족응답이 더 많았고, 외벌이인 학부모는 불만족응답보다 만족응답이 더 많아 다소 차이가 있었음.

〈표 162〉 맞벌이 여부별 등교방식에 대한 학부모 만족 정도 (N, %)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예	1737	2868	5976	3737	611	14929	167.916***
	11.6	19.2	40.0	25.0	4.1	100.0	
아니오	1443	2752	6331	4623	964	16113	
	9.0	17.1	39.3	28.7	6.0	100.0	
전체	3180	5620	12307	8360	1575	31042	
	10.2	18.1	39.6	26.9	5.1	100.0	

나.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 및 인식

-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학부모의 의견 반영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학교의 감염병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90%이상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인식함.
-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전체 학부모의 65.5%가 그렇다라고 긍정응답을 나타냄.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긍정응답(68.0%)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64.2%), 고등학교(63.2%) 순으로 나타남.

〈표 163〉 코로나19 이전보다 학부모 의견 더 반영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471	3641	7690	1043	12845	107.303***
	3.7	28.3	59.9	8.1	100.0	
중학교	302	3284	5808	626	10020	
	3.0	32.8	58.0	6.2	100.0	
고등학교	266	2748	4635	528	8177	
	3.3	33.6	56.7	6.5	100.0	
전체	1039	9673	18133	2197	31042	
	3.3	31.2	58.4	7.1	100.0	

- 학교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보였음.
- 초등학교 학부모는 94.4%의 긍정응답을 나타내었고, 중학교도 92.2%, 고등학교는 90.9%로 학교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학부모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표 164〉 학교의 감염병 대응의 적절성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3	637	10072	2053	12845	121.891***
	0.6	5.0	78.4	16.0	100.0	
중학교	60	726	7844	1390	10020	
	0.6	7.2	78.3	13.9	100.0	
고등학교	88	651	6290	1148	8177	
	1.1	8.0	76.9	14.0	100.0	
전체	231	2014	24206	4591	31042	
	0.7	6.5	78.0	14.8	100.0	

다. 등교수업 및 온라인수업에 대한 인식

- 학부모는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에 대해 ‘대체로 만족함’
 - 학부모에게 학교 등교 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평가, 교육활동(창체, 방과후 등)에 대해 만족하는지 알아보았음. 전체 60.3%는 만족응답을, 39.4%는 불만족응답을 보였음.
 - 학교급에 따라서는 만족응답이 가장 높은 학부모는 초등학교(68.0%)였고, 고등학교 학부모(63.2%)의 긍정응답이 가장 낮았음.

〈표 165〉 등교수업(수업, 평가, 창체, 방과후 등)의 만족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970	3937	7039	899	12845	93.673***
	7.6	30.7	54.8	7.0	100.0	
중학교	752	3512	5240	516	10020	
	7.5	35.0	52.3	5.1	100.0	
고등학교	489	2675	4473	540	8177	
	6.0	32.7	54.7	6.6	100.0	
전체	2211	10124	16752	1955	31042	
	7.1	32.6	54.0	6.3	100.0	

- 온라인수업만 하는 것보다 등교수업과 병행하는 것이 대해서는 전체 학부모의 80% 이상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 학부모의 선호응답이 83.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81.6%, 초등학교가 80.3%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166〉 온라인수업보다 등교수업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선호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774	1759	7126	3186	12845	56.583***
	6.0	13.7	55.5	24.8	100.0	
중학교	483	1216	5960	2361	10020	
	4.8	12.1	59.5	23.6	100.0	
고등학교	418	1084	4823	1852	8177	
	5.1	13.3	59.0	22.6	100.0	
전체	1675	4059	17909	7399	31042	
	5.4	13.1	57.7	23.8	100.0	

- 온라인수업이 교사에 따라 혹은 과목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66.7%의 학부모가 차이를 크게 느낀다고 응답함(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과목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학부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 않는 비율도 46%로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

〈표 167〉 교사에 따라(과목에 따라) 온라인수업 내용의 차이 발생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초등학교	533	5119	5503	1690	12845	1217.607***
	4.1	39.9	42.8	13.2	100.0	
중학교	163	2550	5386	1921	10020	
	1.6	25.4	53.8	19.2	100.0	
고등학교	123	1831	4643	1580	8177	
	1.5	22.4	56.8	19.3	100.0	
전체	819	9500	15532	5191	31042	
	2.6	30.6	50.0	16.7	100.0	

2. 가정에서의 돌봄 및 지원

가.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돌봄의 실태

-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대부분의 학생은 주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고등학생은 형제자매끼리 있거나 혼자 있는 학생도 상당수 있음.
-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에 학생(자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 ‘집(거주지)’로 나타남.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장소로는, 초등학교는 학교돌봄교실이었고, 중고등학교는 교육기관(학원, 도서관 등)이라고 응답함.

〈표 168〉 학교급별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학생(자녀)의 주된 거주 장소 (N, %)

	집 (거주지)	친척집	학교 돌봄교실	교육기관 (학원/독서 실등)	동네기관 (공부방, 도서관)	친구네 집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11775 91.7	136 1.1	433 3.4	273 2.1	100 0.8	19 0.1	109 0.8	12845 100.0	1334.331***
중학교	9664 96.4	11 0.1	4 0.0	241 2.4	27 0.3	25 0.2	48 0.5	10020 100.0	
고등학교	7346 89.8	7 0.1	2 0.0	650 7.9	66 0.8	18 0.2	88 1.1	8177 100.0	
전체	28785 92.7	154 0.5	439 1.4	1164 3.7	193 0.6	62 0.2	245 0.8	31042 100.0	

-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에 학생(자녀)들은 주로 보호자(55.1%)와 함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적었음.
-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형제자매(21.5%)와 함께 있다는 응답이었고, 이 응답은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음.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형제자매(23.2%)와 함께 있다는 응답과 혼자(22.4%) 있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표 169〉 학교급별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학생(자녀)와 함께 있는 사람 (N, %)

	보호자 (부모님)	친척 (조부모등)	형제/ 자매	혼자 있음	친구	가족·친척 외 어른	이웃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8155	988	2122	1061	132	138	9	240	12845	1660.348***
	63.5	7.7	16.5	8.3	1.0	1.1	0.1	1.9	100.0	
중학교	5098	433	2651	1584	127	83	3	41	10020	
	50.9	4.3	26.5	15.8	1.3	0.8	0.0	0.4	100.0	
고등학교	3846	257	1901	1832	177	70	1	93	8177	
	47.0	3.1	23.2	22.4	2.2	0.9	0.0	1.1	100.0	
전체	17099	1678	6674	4477	436	291	13	374	31042	
	55.1	5.4	21.5	14.4	1.4	0.9	0.0	1.2	100.0	

-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에 학생(자녀)들은 주로 보호자(55.1%)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음. 이 응답은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적었음.
-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형제자매끼리 식사한다는 응답이었으나, 고등학교 학부모는 학생(자녀)이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많았음.

〈표 170〉 학교급별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학생(자녀)의 점심식사 실태 (N, %)

	보호자 (부모님, 친척등)와 식사	형제/자 매끼리 식사	지역사회기 관(공부방) 에서 식사	학원에 서 식사	혼자 식사	가족·친척 외 어른과 식사	기타	전체	χ^2/p
초등학교	9459	1804	115	19	1048	169	231	12845	2033.773***
	73.6	14.0	0.9	0.1	8.2	1.3	1.8	100.0	
중학교	5718	2210	7	13	1906	102	64	10020	
	57.1	22.1	0.1	0.1	19.0	1.0	0.6	100.0	
고등학교	4160	1557	13	70	2170	85	122	8177	
	50.9	19.0	0.2	0.9	26.5	1.0	1.5	100.0	
전체	19337	5571	135	102	5124	356	417	31042	
	62.3	17.9	0.4	0.3	16.5	1.1	1.3	100.0	

-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이 많아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는 점심식사(간식 등)를 챙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지역에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에 학생(자녀)들의 점심식사 및 간식을 챙기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학부모의 53.3%는 그렇다라고, 46.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과반 이상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그렇다는 응답은 중학교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나,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가장 많았음.

〈표 171〉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 및 간식 챙겨주는 어려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169	4841	4652	2183	12845	58.822***
	9.1	37.7	36.2	17.0	100.0	
중학교	795	3764	3784	1677	10020	
	7.9	37.6	37.8	16.7	100.0	
고등학교	690	3250	3112	1125	8177	
	8.4	39.7	38.1	13.8	100.0	
전체	2654	11855	11548	4985	31042	
	8.5	38.2	37.2	16.1	100.0	

- 지역에 학생(자녀)들의 돌봄이나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프로그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이 75.4%로 긍정응답 보다 많았음.
- 부정응답은 중학교(76.5%)와 고등학교(76.2%)의 학부모가 초등학교(73.9%)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172〉 돌봄을 위한 지역인프라 구축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2328	7169	3128	220	12845	128.674***
	18.1	55.8	24.4	1.7	100.0	
중학교	1606	6067	2244	103	10020	
	16.0	60.5	22.4	1.0	100.0	
고등학교	1138	5096	1841	102	8177	
	13.9	62.3	22.5	1.2	100.0	
전체	5072	18332	7213	425	31042	
	16.3	59.1	23.2	1.4	100.0	

나. 가정에서 온라인수업의 지원

- 학부모 대부분 온라인학습 진도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낮음.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습이해도 점검 및 과제 체크 등에도 대부분 지원하고 있음.

- 학생(자녀)의 학교 일정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91.7%의 대부분 학부모가 확인하고 있다고 응답함. 초등학교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의 학부모가 다소 낮았음.

〈표 173〉 학생(자녀)의 학교 일정 확인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49	374	7801	4621	12845	1812.526***
	0.4	2.9	60.7	36.0	100.0	
중학교	74	791	6960	2195	10020	
	0.7	7.9	69.5	21.9	100.0	
고등학교	141	1142	5516	1378	8177	
	1.7	14.0	67.5	16.9	100.0	
전체	264	2307	20277	8194	31042	
	0.9	7.4	65.3	26.4	100.0	

- 학생(자녀)이 온라인수업을 이해하고 과제 제출 등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74.2%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86.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는 70.6%, 고등학교는 59.0%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습지원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174〉 학생(자녀)의 온라인학습 이해도 및 과제제출 등 확인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57	1575	8094	3019	12845	2936.122***
	1.2	12.3	63.0	23.5	100.0	
중학교	296	2654	6111	959	10020	
	3.0	26.5	61.0	9.6	100.0	
고등학교	386	2962	4345	484	8177	
	4.7	36.2	53.1	5.9	100.0	
전체	839	7191	18550	4462	31042	
	2.7	23.2	59.8	14.4	100.0	

- 학생(자녀)이 온라인수업을 할 때 학습과 과제를 옆에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컸음.
- 초등학교 학부모의 58.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는 30.0%, 고등학교는 23.3%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표 175〉 학생(자녀)의 온라인수업 시 학습 및 과제 지원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111	4201	5728	1805	12845	3616.735***
	8.6	32.7	44.6	14.1	100.0	
중학교	1400	5614	2695	311	10020	
	14.0	56.0	26.9	3.1	100.0	
고등학교	1345	4927	1729	176	8177	
	16.4	60.3	21.1	2.2	100.0	
전체	3856	14742	10152	2292	31042	
	12.4	47.5	32.7	7.4	100.0	

- 80% 이상의 학부모는 온라인학습 시 교사와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자녀)의 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온라인학습으로 학생(자녀)의 학습 상황에 대해 교사와 대화를 기회가 많아졌는지에 대해, 학부모 80%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고등학교(82.7%) 학부모의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가 79.3%, 중학교가 81.3%로 나타남.

〈표 176〉 온라인학습에 대한 교사와의 대화 증가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004	7176	2413	252	12845	109.304***
	23.4	55.9	18.8	2.0	100.0	
중학교	2042	6099	1735	144	10020	
	20.4	60.9	17.3	1.4	100.0	
고등학교	1679	5083	1305	110	8177	
	20.5	62.2	16.0	1.3	100.0	
전체	6725	18358	5453	506	31042	
	21.7	59.1	17.6	1.6	100.0	

- 온라인학습 시 학생(자녀)의 진로 등에 대해 교사와 대화를 자주 하는지에 대해, 학부모의 15.5%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84.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초등학교(87.3%) 학부모의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83.7%, 고등학교가 81.1%로 나타남.

〈표 177〉 온라인학습 시 교사와 학생(자녀)의 진로 및 생활에 대한 대화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653	7568	1476	148	12845	304.055***
	28.4	58.9	11.5	1.2	100.0	
중학교	2221	6166	1509	124	10020	
	22.2	61.5	15.1	1.2	100.0	
고등학교	1669	4960	1430	118	8177	
	20.4	60.7	17.5	1.4	100.0	
전체	7543	18694	4415	390	31042	
	24.3	60.2	14.2	1.3	100.0	

- 학생(자녀)의 온라인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56.6%의 학부모는 어려움을 느낀다(긍정응답)고 응답함.
- 온라인학습 지도의 어려움은 중학교(58.6%) 학부모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56.8%), 초등학교(54.9%) 순으로 나타남.

〈표 178〉 학생(자녀)의 온라인학습 지도의 어려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999	4796	5219	1831	12845	75.822***
	7.8	37.3	40.6	14.3	100.0	
중학교	622	3520	4462	1416	10020	
	6.2	35.1	44.5	14.1	100.0	
고등학교	551	2986	3652	988	8177	
	6.7	36.5	44.7	12.1	100.0	
전체	2172	11302	13333	4235	31042	
	7.0	36.4	43.0	13.6	100.0	

- 학생(자녀)이 미디어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61.4%의 학부모는 어렵다(긍정응답)고 응답함.
- 미디어 과다사용을 지도하는 어려움은 중학교(65.8%) 학부모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고등학교(59.9%), 초등학교(59.0%) 순으로 나타남.

〈표 179〉 학생(자녀)의 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97	4373	5469	2106	12845	162.669***
	7.0	34.0	42.6	16.4	100.0	
중학교	473	2954	4691	1902	10020	
	4.7	29.5	46.8	19.0	100.0	
고등학교	484	2794	3680	1219	8177	
	5.9	34.2	45.0	14.9	100.0	
전체	1854	10121	13840	5227	31042	
	6.0	32.6	44.6	16.8	100.0	

3.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학습에 대한 인식 변화

-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이에 온라인수업의 콘텐츠 개발, 수업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라인수업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대면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학부모의 69.0%는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70.6%, 중학교 학부모가 68.3%, 고등학교 학부모가 67.0%로 응답하였음.

〈표 180〉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467	3310	7325	1743	12845	89.110***
	3.6	25.8	57.0	13.6	100.0	
중학교	342	2831	5716	1131	10020	
	3.4	28.3	57.0	11.3	100.0	
고등학교	329	2371	4670	807	8177	
	4.0	29.0	57.1	9.9	100.0	
전체	1138	8512	17711	3681	31042	
	3.7	27.4	57.1	11.9	100.0	

-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37.0%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3.0%였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학부모의 긍정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다소 많았음.

〈표 181〉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783	6265	4241	556	12845	41.243***
	13.9	48.8	33.0	4.3	100.0	
중학교	1275	4932	3438	375	10020	
	12.7	49.2	34.3	3.7	100.0	
고등학교	1076	4230	2613	258	8177	
	13.2	51.7	32.0	3.2	100.0	
전체	4134	15427	10292	1189	31042	
	13.3	49.7	33.2	3.8	100.0	

- 학부모의 88.0%는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온라인수업 콘텐츠 개발 요구는 중학교(89.2%)와 고등학교(88.2%) 학부모가 초등학교(86.8%)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182〉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297	1389	6980	4179	12845	47.530***
	2.3	10.8	54.3	32.5	100.0	
중학교	180	901	5583	3356	10020	
	1.8	9.0	55.7	33.5	100.0	
고등학교	190	777	4691	2519	8177	
	2.3	9.5	57.4	30.8	100.0	
전체	667	3067	17254	10054	31042	
	2.1	9.9	55.6	32.4	100.0	

- 학부모의 89.1%는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온라인수업의 질 향상 요구는 중학교(91.0%)와 고등학교(91.6%) 학부모가 초등학교(86.1%)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183〉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96	1595	6408	4646	12845	225.554***
	1.5	12.4	49.9	36.2	100.0	
중학교	107	801	5148	3964	10020	
	1.1	8.0	51.4	39.6	100.0	
고등학교	108	577	4254	3238	8177	
	1.3	7.1	52.0	39.6	100.0	
전체	411	2973	15810	11848	31042	
	1.3	9.6	50.9	38.2	100.0	

- 학부모의 약 95%는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92.8%, 중학교 학부모가 95.5%, 고등학교 학부모가 95.0%로 응답하여 대면수업 필요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84〉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15	681	5720	6329	12845	75.645***
	0.9	5.3	44.5	49.3	100.0	
중학교	49	405	4755	4811	10020	
	0.5	4.0	47.5	48.0	100.0	
고등학교	67	340	4027	3743	8177	
	0.8	4.2	49.2	45.8	100.0	
전체	231	1426	14502	14883	31042	
	0.7	4.6	46.7	47.9	100.0	

- 학부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생(자녀)의 학교생활 중 방역과 위생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는 교우관계, 중고등학교는 수행평가 및 과제, 진학진로에 신경 쓰는 경우도 많음.

- 초중고 학부모 모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자녀)의 학교생활 중 ‘학교 방역 및 아동의 위생관리’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수업 참여 및 내용 이해도’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음.
-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교우관계’의 응답이 다수 있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는 ‘수행평가 및 과제’에 대한 응답이 다수 있었음.
-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진로진학교육에 대해 신경 쓴다는 비율이 초중학교와 비교하여 높았음.

〈표 185〉 학생(자녀)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응답(2가지 응답)

구분	초	중	고
학교 방역 및 아동의 위생관리	7879	5332	4148
수업 참여 및 내용에 대한 이해	6719	4564	2998
수행평가 및 과제	2720	3579	2609
교우 관계	3252	2059	1292
학교 일정 따라잡기(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 챙기기)	1617	1315	1392
선생님과의 소통(수업, 상담 등)	1862	1392	1277
진로·진학(취업 및 창업 등) 교육	204	846	1703
방과후 돌봄	387	74	42
전체	24640	19161	15461

4. 코로나19 이후 사회 및 정책 변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수칙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학생지원물품(마스크, 식재료, 통신기기 등) 제공 등의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 학부모의 87.6%는 지역에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제도가 더 구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긍정응답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186〉 ‘지역에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제도가 더 구축되어야 한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24	1205	7805	3711	12845	251.285***
	1.0	9.4	60.8	28.9	100.0	
중학교	121	1209	6423	2267	10020	
	1.2	12.1	64.1	22.6	100.0	
고등학교	121	1055	5297	1704	8177	
	1.5	12.9	64.8	20.8	100.0	
전체	366	3469	19525	7682	31042	
	1.2	11.2	62.9	24.7	100.0	

- 학부모의 85.2%는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84.5%, 중학교 학부모는 85.7%, 고등학교 학부모는 85.6%로 긍정응답이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임.

〈표 187〉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59	1931	7336	3519	12845	39.353***
	0.5	15.0	57.1	27.4	100.0	
중학교	36	1395	5991	2598	10020	
	0.4	13.9	59.8	25.9	100.0	
고등학교	35	1139	5000	2003	8177	
	0.4	13.9	61.1	24.5	100.0	
전체	130	4465	18327	8120	31042	
	0.4	14.4	59.0	26.2	100.0	

-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7.0%,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나타나, 학부모의 64.9%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66.0%, 중학교 학부모는 65.7%, 고등학교 학부모는 62.3%로 긍정응답이 나타남.

〈표 188〉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08	3566	4762	3709	12845	74.449***
	6.3	27.8	37.1	28.9	100.0	
중학교	566	2866	3889	2699	10020	
	5.6	28.6	38.8	26.9	100.0	
고등학교	530	2554	3123	1970	8177	
	6.5	31.2	38.2	24.1	100.0	
전체	1904	8986	11774	8378	31042	
	6.1	28.9	37.9	27.0	100.0	

- 학부모의 86.8%는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학교 학부모(87.4%)가 고등학교(85.3%) 학부모 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응답이 많았음.

〈표 189〉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219	1410	6455	4761	12845	62.886***
	1.7	11.0	50.3	37.1	100.0	
중학교	152	1113	5220	3535	10020	
	1.5	11.1	52.1	35.3	100.0	
고등학교	131	1075	4322	2649	8177	
	1.6	13.1	52.9	32.4	100.0	
전체	502	3598	15997	10945	31042	
	1.6	11.6	51.5	35.3	100.0	

- 학부모의 71.1%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70.5%, 중학교 학부모는 72.7%, 고등학교 학부모는 70.0%로 긍정응답이 나타남.

〈표 190〉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66	3423	6373	2683	12845	46.704***
	2.8	26.6	49.6	20.9	100.0	
중학교	231	2506	5210	2073	10020	
	2.3	25.0	52.0	20.7	100.0	
고등학교	240	2208	4247	1482	8177	
	2.9	27.0	51.9	18.1	100.0	
전체	837	8137	15830	6238	31042	
	2.7	26.2	51.0	20.1	100.0	

-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이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감염병에 대비한 학교와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하게 요구함.
- 약 94%의 대다수 학부모는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초등학교 학부모는 93.3%, 중학교 학부모는 93.9%, 고등학교 학부모는 94.3%의 긍정응답이 나타남.

〈표 191〉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54	809	7381	4601	12845	52.046***
	0.4	6.3	57.5	35.8	100.0	
중학교	23	585	6041	3371	10020	
	0.2	5.8	60.3	33.6	100.0	
고등학교	29	437	5071	2640	8177	
	0.4	5.3	62.0	32.3	100.0	
전체	106	1831	18493	10612	31042	
	0.3	5.9	59.6	34.2	100.0	

-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학부모의 57.3%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2.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긍정응답은 초등학교(58.0%) 학부모가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192〉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851	4539	5458	1997	12845	34.529***
	6.7	35.3	42.5	15.5	100.0	
중학교	668	3688	4255	1409	10020	
	6.7	36.7	42.5	14.1	100.0	
고등학교	583	2953	3590	1051	8177	
	7.1	36.1	43.9	12.9	100.0	
전체	2102	11180	13303	4457	31042	
	6.7	36.0	42.9	14.4	100.0	

- 학부모의 85.4%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음.

- 초등학교 학부모는 85.9%, 중학교 학부모는 85.2%, 고등학교 학부모는 85.1%의 긍정응답이 나타남.

〈표 193〉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의 학부모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초등학교	151	1663	7013	4018	12845	62.855***
	1.2	12.9	54.6	31.3	100.0	
중학교	106	1383	5730	2801	10020	
	1.1	13.8	57.2	28.0	100.0	
고등학교	112	1106	4775	2184	8177	
	1.4	13.5	58.4	26.7	100.0	
전체	369	4152	17518	9003	31042	
	1.2	13.4	56.4	29.0	100.0	

5. 소결

- 매해 3월 초는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이고,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는 자녀를 살펴 등교를 준비해주던 보호자(학부모)의 일상은 올해 매우 큰 변화를 겪었음.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녀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정부나 지역사회,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학습에 공백은 없는지 고민과 걱정의 시간이었을 것임.
- 이 장에서는 학부모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하였는지, 이로 인한 사회와 교육에 대해 인식이 변화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학교대응 및 온라인수업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분리등교 방식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보통 수준으로 응답했지만, 초등학교 학부모, 맞벌이 학부모,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경우 만족보다 불만족 응답이 높았음. 이는 연령이 낮은 학생일수록 가정에서 학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의 교육을 가정에서 더 많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맞벌이 학부모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자녀의 교육지원이 부담스러운 학부모는 분리등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학교가 지녀왔던 돌봄의 기능이 학부모에게는 더 큰 공백으로 느껴진 것으로 판단하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러한 공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약 65%의 학부모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또한 90%의 학부모는 학교의 감염병 대응에도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2020년 1학기의 대처는 나름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음.
 - 등교 시 이루어지는 수업, 평가, 교육활동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부모에 비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온라인수업이 교사에 따라 혹은 과목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도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더 컸음. 이는 온라인학습에 대한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대응 보다는 과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적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또한 학교 내 교사공동체를 통하여 교사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함.

- 가정에서의 돌봄과 학습지원

-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초중학생은 주로 집에서 보호자(학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생은 형제자매끼리 있거나 혼자 있는 경우도 다수 나타남.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은 등교하지 않는 날 자녀의 점심식사를 챙겨주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지역에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가장 안전한 돌봄기관이었던 학교의 역할에 대한 더 큰 기대가 요구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지역의 인프라 구축은 중고등학교의 학부모가 더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학부모의 진도관리를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습이해도 점검 및 과제 체크에도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는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 자녀의 온라인학습에 대해 교사와의 대화 기회가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자녀의 온라인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학습지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특히 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은 중고등학교 학부모에게서 크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의 변화 인식

- 70%의 학부모는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학습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부모도 37%임. 이런 인식의 학부모는 온라인학습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필요를 개선을 원하고 있었음. 90% 정도의 학부모가 더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개발과 온라인수업의 질 제고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더라도 100% 온라인학습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위생관리, 방역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응답하였고, 수업의 결손(공백)에 대해서도 신경쓰고 있었음.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중학교는 교우관계를 신경 쓴 반면, 고등학교 학부모는 진로진학교육에 대해 신경쓰는 경우도 많았음.
- 재난 상황에서 학부모의 고민은 기존에 있었던 수업, 평가, 진학에 방역과 위생이 더 추가된 것으로 느껴짐. 교육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고민은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및 정책 변화 요구

- 코로나19가 가정의 경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학부모의 응답이 약 58%, 심각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였음. 그러나 경제수준이 낮은 하 집단의

학부모는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2%에 달함.

- 학부모의 85%이상은 더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65%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원하고 있으며, 88%는 지역에 돌봄 지원 시설이 더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87%는 재난 시에는 학생들에게 필수물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71%는 학생에게 온라인학습을 위한 디지털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부모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이로 인해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86%), 감염병에 대비한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응답함(94%).
- 재난이 불러낸 변화와 적응의 시간 동안 학부모는 돌봄민주주의, 학습복지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과 보다 근본적인 교육체제의 전환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음.

V.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불평등

1. 온라인수업과 교육 격차

가. 온라인수업 환경

- 경제수준이 좋은 가정의 학생이 온라인수업을 위한 디지털기기 보유율도 높음. 또한 많은 학생들이 주로 집에서 온라인수업에 참여하지만,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은 집 이외의 장소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코로나19로 2020년 1학기 학교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온라인수업을 듣기 위해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학생의 가정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만의 전용 디지털기기 보유율이 높았음. 경제적 수준이 하인 가정의 학생의 전용 디지털기기 보유율은 79.7%로 가장 낮았음.
- 2020년 1학기가 대부분 진행된 시기에 조사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발견된 것은 가정의 온라인학습 환경의 차이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표 194〉 학교 온라인수업을 위한 디지털기기 소지 유무 (N, %)

	나만 쓰는 기기가 있음	형제/자매/가족들과 같이 사용함	전체	χ^2/p
상	3719 81.6	840 18.4	4559 100.0	6.413*
중	12503 82.4	2679 17.6	15182 100.0	
하	1055 79.7	268 20.3	1323 100.0	
전체	17277 82.0	3787 18.0	21064 100.0	

-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대다수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수업에 참여 (96.9%)하고 있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집에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집이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수업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경제적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에게서 가장 높았음.

〈표 195〉 학교 온라인수업을 참여하는 주요 장소 (N, %)

	집(거주지)	학원/공부방 (교육관련 기관)	문화공간 (카페, 공원)	기타	전체	χ^2/p
상	4398	97	10	54	4559	25.904***
	96.5	2.1	0.2	1.2	100.0	
중	14753	245	24	160	15182	
	97.2	1.6	0.2	1.1	100.0	
하	1256	38	6	23	1323	
	94.9	2.9	0.5	1.7	100.0	
전체	20407	380	40	237	21064	
	96.9	1.8	0.2	1.1	100.0	

-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의 약 23%는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30%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36%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불편을 느낌. 이 비율은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 비해 2~3개 높은 응답임.

- 온라인수업을 듣고 있는 장소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정배경에 따라 차이가 컸음.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 집단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률도 낮아졌음.

〈표 196〉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상	3143	1134	225	57	4559	675.021***
	68.9	24.9	4.9	1.3	100.0	
중	8523	5268	1155	236	15182	
	56.1	34.7	7.6	1.6	100.0	
하	478	546	219	80	1323	
	36.1	41.3	16.6	6.0	100.0	
전체	12144	6948	1599	373	21064	
	57.7	33.0	7.6	1.8	100.0	

- 온라인수업을 들을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85.9%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응답을 하여 대부분은 기기의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약 15%는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 낮은 기기로 인해 온라인수업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9.3%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중 집단이 13.7%, 상 집단이 11.5%로 나타나, 가정 배경에 따라 온라인수업 참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가정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었음.

〈표 197〉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낮아 방해를 받은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상	3086	951	409	113	4559	522.725***
	67.7	20.9	9.0	2.5	100.0	
중	8720	4389	1713	360	15182	
	57.4	28.9	11.3	2.4	100.0	
하	514	422	284	103	1323	
	38.9	31.9	21.5	7.8	100.0	
전체	12320	5762	2406	576	21064	
	58.5	27.4	11.4	2.7	100.0	

-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인터넷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는지 질문하였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4%였는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 35.9%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응답률이 많았음, 반면, 중인 집단은 21.1%, 상인 집단은 18.3%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인터넷 속도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표 198〉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인터넷이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은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상	2604	1122	665	168	4559	403.975***
	57.1	24.6	14.6	3.7	100.0	
중	7149	4833	2584	616	15182	
	47.1	31.8	17.0	4.1	100.0	
하	406	443	345	129	1323	
	30.7	33.5	26.1	9.8	100.0	
전체	10159	6398	3594	913	21064	
	48.2	30.4	17.1	4.3	100.0	

나.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습 과정

- 학생의 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온라인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불편하다고 인식함. 반면, 학생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수업 중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함.
 - 온라인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는 질문에 학생의 24.2%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학생들(75.8%)은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살펴보면, 가장 낮은 하 집단에서는 46.0%가 이해가 잘 안되고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중(24.4%), 상(17.1%)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음.⁵⁾

〈표 199〉 ‘나는 온라인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상	2178	1602	600	179	4559	811.733***
	47.8	35.1	13.2	3.9	100.0	
중	4964	6518	2881	819	15182	
	32.7	42.9	19.0	5.4	100.0	
하	235	479	416	193	1323	
	17.8	36.2	31.4	14.6	100.0	
전체	7377	8599	3897	1191	21064	
	35.0	40.8	18.5	5.7	100.0	

- 온라인수업 기간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SNS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하는지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음.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28.3%로 가장 응답률이 낮았으며, 다음으로 중 33.3%, 상 36.4%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였음.

5) 온라인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학업성취 수준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따라 비교한 결과,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에 응답한 학생이 많았음.

〈표 200〉 ‘나는 온라인수업 기간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SNS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상	1353	1548	1211	447	4559	148.751***
	29.7	34.0	26.6	9.8	100.0	
중	4046	6076	4157	903	15182	
	26.6	40.0	27.4	5.9	100.0	
하	425	524	312	62	1323	
	32.1	39.6	23.6	4.7	100.0	
전체	5824	8148	5680	1412	21064	
	27.6	38.7	27.0	6.7	100.0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은 집에서 과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하더라도 3시간이상 장시간 과제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하루 평균 집에서 학교 과제(숙제, 수행평가, 지필평가 준비 등)를 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미만에 응답한 비율은 경제상황이 높은 상 집단이 가장 많았고, 하 집단이 가장 적었음. 3시간이상 학교 과제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하 집단이 24.2%, 중 집단에서는 20.1%, 상 집단에서는 18.9%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 집단이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는 시간이 더 길었음.

- 반면,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하 집단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 2.7%, 상 2.3%보다 약 3배 정도 차이를 보였음.

〈표 201〉 하루 평균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는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상	1166	1478	946	380	482	107	4559	113.477***
	25.6	32.4	20.8	8.3	10.6	2.3	100.0	
중	3268	5078	3371	1465	1588	412	15182	
	21.5	33.4	22.2	9.6	10.5	2.7	100.0	
하	257	389	272	148	178	79	1323	
	19.4	29.4	20.6	11.2	13.5	6.0	100.0	
전체	4691	6945	4589	1993	2248	598	21064	
	22.3	33.0	21.8	9.5	10.7	2.8	100.0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은 온라인수업 내용 이해나 과제를 위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많았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은 혼자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은 혼자 해결하거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은 수업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한다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학생이 22.4%로 많았음. 보호자로부터 도움에 응답한 학생은 13.4%였음.
- 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혼자 해결한다가 23.3%로 많았음.

〈표 202〉 학교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의 해결 방법 (N, %)

	담당교과/ 담임 선생님께 질문	교육관련 기관 (학원/공부방) 도움	보호자로 부터 도움	형제자매 로부터 도움	혼자 해결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기타	전체	χ^2/p
상	870	276	1559	247	1064	304	239	4559	499.380***
	19.1	6.1	34.2	5.4	23.3	6.7	5.2	100.0	
중	2750	899	4094	853	4114	1416	1056	15182	
	18.1	5.9	27.0	5.6	27.1	9.3	7.0	100.0	
하	224	77	177	67	350	297	131	1323	
	16.9	5.8	13.4	5.1	26.5	22.4	9.9	100.0	
전체	3844	1252	5830	1167	5528	2017	1426	21064	
	18.2	5.9	27.7	5.5	26.2	9.6	6.8	100.0	

- 온라인수업 및 과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주로 누구인지를 학생에게 질문한 결과, 혼자 해결 하는 학생은 가정경제수준 하 집단(58.4%), 중 집단 (49.7%), 상 집단(44.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보호자가 도와준다는 응답은 혼자 해결하는 응답과 반대로 상 집단(33.3%)이 가장 높았고, 하 집단이 14.9%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 수행에 차이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03〉 학교 온라인수업 및 과제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 (N, %)

	담당교과/ 담임 선생님	학원/공부방 선생님	보호자	형제자매	혼자해결	기타	전체	χ^2/p
상	360	179	1519	238	2032	231	4559	224.515***
	7.9	3.9	33.3	5.2	44.6	5.1	100.0	
중	1082	560	4158	760	7550	1072	15182	
	7.1	3.7	27.4	5.0	49.7	7.1	100.0	
하	93	59	197	65	772	137	1323	
	7.0	4.5	14.9	4.9	58.4	10.4	100.0	
전체	1535	798	5874	1063	10354	1440	21064	
	7.3	3.8	27.9	5.0	49.2	6.8	100.0	

다.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

-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균은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학생, 규모가 큰 도시에 거주한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남.⁶⁾

- 온라인 학습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학생 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음. 이에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디지털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다양한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학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중 이해가 잘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 '온라인수업 중 어려운 학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활용하였음.⁷⁾

- 가정배경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균도 높은 경향을 보였음. 이러한 결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은 학교급 간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였음.

6)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업성적이나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결과, 학업성적(.418**)이나 자기주도적 학습(.467**)과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강한 상관관계는 아니었음.

7) 디지털리터러시 역량은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디지털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다양한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학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중 이해가 잘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 '온라인수업 중 어려운 학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한 것이며, 신뢰도는 .768이었음.

〈표 204〉 가정배경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

	초			중			고			전체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상	2346	3.03	0.61	1278	3.10	0.60	935	3.03	0.64	4559	3.05	0.61
중	5974	2.89	0.54	4938	2.94	0.56	4270	2.91	0.57	15182	2.91	0.56
하	301	2.67	0.65	388	2.69	0.58	634	2.74	0.60	1323	2.71	0.61
전체	8621	2.92	0.57	6604	2.96	0.58	5839	2.91	0.59	21064	2.93	0.58
<i>F</i>	82.000*** (상)중>하)			85.378*** (상)중>하)			47.340*** (상)중>하)			206.416*** (상)중>하)		

- 지역규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높았음. 초등학교에서는 소도시가 대도시·중도시보다, 중학교에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고등학교에서는 대도시가 중도시보다 디지털리터러시 소양이 높았음.

〈표 205〉 지역규모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

	초			중			고			전체		
	N	M	SD	N	M	SD	N	M	SD	N	M	SD
대도시	5260	2.93	0.57	4007	2.97	0.58	4064	2.93	0.60	13331	2.94	0.58
중도시	2958	2.91	0.56	2422	2.93	0.57	1560	2.88	0.58	6940	2.91	0.57
소도시	403	2.83	0.61	175	2.95	0.58	215	2.83	0.58	793	2.86	0.59
전체	8621	2.92	0.57	6604	2.96	0.58	5839	2.91	0.59	21064	2.93	0.58
<i>F</i>	5.799** (대도시)소도시, 중도시)소도시)			3.176* (대도시)중,소도시)			5.764** (대도시)중도시)			11.989*** (대도시)중도시)소도시)		

라. 학습격차와 학교의 교육지원

- 약 65%의 교사들은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수학과목에서 학습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
 - 등교개학 이후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에게 조사하였음. 교사들은 주지과목에서 학습 격차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특히 수학과목의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타 과목에 대한 우려와 비교하여 매우 컸음.
 - 수학의 학습 격차에 대한 응답은 모든 학교급에서 수학 과목의 학습 격차가 가장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도 타 과목보다 매우 컸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74.5%, 중학교에서는 62.6%, 고등학교에서는 58.1%로 응답하여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그 응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수학 다음으로 격차가 클 것이라 응답한 과목은 초등학교는 국어(13.8%)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영어로 각각 14.3%, 10.8%였음.

〈표 206〉 학생 간 학습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과목에 대한 교사 인식 (N,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도덕	창체	전체	χ^2/p
초	175	946	28	28	3	5	20	0	60	2	3	1270	391.846***
	13.8	74.5	2.2	2.2	0.2	0.4	1.6	0.0	4.7	0.2	0.2	100.0	
중	43	651	19	62	18	20	50	8	149	2	18	1040	
	4.1	62.6	1.8	6.0	1.7	1.9	4.8	0.8	14.3	0.2	1.7	100.0	
고	56	697	20	69	13	35	84	53	129	3	41	1200	
	4.7	58.1	1.7	5.8	1.1	2.9	7.0	4.4	10.8	0.3	3.4	100.0	
전체	274	2294	67	159	34	60	154	61	338	7	62	3510	
	7.8	65.4	1.9	4.5	1.0	1.7	4.4	1.7	9.6	0.2	1.8	100.0	

- 초등학교가 온라인수업과 관련하여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비율이 중고등학교보다 많았고, 지원 방식은 원격학습지원 도우미/돌봄 전담 교사에게 의뢰하여 취약 학생을 지원하고 있음. 중고등학교는 주로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취약 학생을 지원하고 있음.
- 학교가 온라인수업과 관련해서 취약 학생들(경제적 어려움, 이중언어 환경, 특수교육대상, 학습결손 누적, 생활교육 집중 필요 등)을 지원하고 있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하였음. 조사 결과, 56.9%의 교사들이 학교가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비율도 30.7%였음
- 초등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반대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7〉 온라인수업 관련한 학교의 취약 학생 지원 여부 (N, %)

	지원하고 있음	지원하지 않고 있음	모르겠음	전체	χ^2/p
초등학교	859	130	281	1270	112.484***
	67.6	10.2	22.1	100.0	
중학교	569	146	325	1040	
	54.7	14.0	31.3	100.0	
고등학교	570	158	472	1200	
	47.5	13.2	39.3	100.0	
전체	1998	434	1078	3510	
	56.9	12.4	30.7	100.0	

- 취약 학생 지원을 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원격 학습지원 도우미/돌봄 전담 교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담임교사의 개별 지원이 다음으로 많이 응답함. 중학교는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고등학교는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자체 기관과 협조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아, 학교급에 따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었음.

〈표 208〉 온라인수업 관련 취약 학생 지원 방식(중복응답)

구분	초	중	고
원격 학습지원 도우미/돌봄전담교사에게 의뢰	564	134	117
지자체 기관과 협조	106	133	189
담임교사의 개별 지원	390	297	245
예산 편성 없이 학교 안 교직원의 업무 지정	110	135	118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	168	136	159
교육자원봉사 및 학부모회 협조	28	28	24
전체	1366	863	852

2. 가정의 교육지원 차이

가. 학부모의 온라인수업 지원

-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부모는 학생에게 학교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거나, 온라인 학습이나 과제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 일정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응답비율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 76.5%으로 가장 높음. 하 집단은 56.2%로 나타나 상과 중 집단 보다 월등히 낮았음.

〈표 209〉 ‘보호자는 학교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신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 p
상	369	703	1978	1509	4559	460.683***
	8.1	15.4	43.4	33.1	100.0	
중	1446	2988	7504	3244	15182	
	9.5	19.7	49.4	21.4	100.0	
하	236	343	552	192	1323	
	17.8	25.9	41.7	14.5	100.0	
전체	2051	4034	10034	4945	21064	
	9.7	19.2	47.6	23.5	100.0	

- 가정에서 학부모가 온라인 학습이나 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학생에게 조사한 결과, 긍정응답 비율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 76.4%, 중인 경우 71.4%, 하인 경우 56.2%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 및 과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0〉 ‘나의 보호자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지신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p
상	395	730	2305	1129	4559	338.711***
	8.7	16.0	50.6	24.8	100.0	
중	1194	3136	8371	2481	15182	
	7.9	20.7	55.1	16.3	100.0	
하	197	358	610	158	1323	
	14.9	27.1	46.1	11.9	100.0	
전체	1786	4224	11286	3768	21064	
	8.5	20.1	53.6	17.9	100.0	

-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부모는 학생에게 학교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거나, 온라인 학습이나 과제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학생의 온라인학습을 지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학부모는 경제상황이 낮은 가정이 더 많았음.

- 자녀가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과제는 제때 하고 있는지 등 학습 상태를 확인하는지 학부모에게 질문하였음. 그렇다고 긍정응답 비율은 경제수준이 높은 상 집단이 77.2%, 중 집단 73.9%, 하 집단 70.5%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이 자녀의 학습 상태 확인에 더 적극적이었음.

〈표 211〉 학생(자녀)의 온라인학습 이해도 및 과제제출 등 확인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상	162	928	2738	953	4781	199.293***
	3.4	19.4	57.3	19.9	100.0	
중	584	5693	14518	3218	24013	
	2.4	23.7	60.5	13.4	100.0	
하	93	570	1294	291	2248	
	4.1	25.4	57.6	12.9	100.0	
전체	839	7191	18550	4462	31042	
	2.7	23.2	59.8	14.4	100.0	

- 온라인수업 시간에 아동의 학습 및 과제를 옆에서 지원하는지 학부모에게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긍정응답한 비율은 상 집단이 42.2%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 집단(39.8%), 하 집단(39.3%)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2〉 학생(자녀)의 온라인수업 시 학습 및 과제 지원 여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상	726	2035	1550	470	4781	110.703***
	15.2	42.6	32.4	9.8	100.0	
중	2850	11623	7865	1675	24013	
	11.9	48.4	32.8	7.0	100.0	
하	280	1084	737	147	2248	
	12.5	48.2	32.8	6.5	100.0	
전체	3856	14742	10152	2292	31042	
	12.4	47.5	32.7	7.4	100.0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기능을 가정에서도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자녀의 온라인 학습/교육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항목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하였음. 분석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는 45.3%가 긍정응답하였으며, 중인 집단에서는 57.4%, 하인 집단에서는 72.2%가 응답하였음.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자녀 온라인학습 지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표 213〉 학생(자녀)의 온라인학습 지도의 어려움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상	616	1999	1623	543	4781	719.808***
	12.9	41.8	33.9	11.4	100.0	
중	1472	8762	10609	3170	24013	
	6.1	36.5	44.2	13.2	100.0	
하	84	541	1101	522	2248	
	3.7	24.1	49.0	23.2	100.0	
전체	2172	11302	13333	4235	31042	
	7.0	36.4	43.0	13.6	100.0	

나. 자녀의 학습을 위한 지원

- 온라인 학습 관련 디지털기기 구입이 늘고, 책 참고서 등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더 많았음
- 가정배경에 따라 온라인 학습을 위해 디지털기기/장비(PC, 노트북, 스마트폰, 화상카메라 등) 구입을 위한 지출이 늘었는지 분석하였음. 전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 집단에서 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이러한 경향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였음.

- 경제수준이 높은 상 집단은 디지털기기 구입지출이 증가한 비율이 24.4%, 중 집단은 39.2% 였으나, 하 집단은 49.9%로 응답하여 차이가 컸음.

〈표 214〉 가정경제상황별 디지털기기/장비 구입 지출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상	1244	666	1910	949	501	1450	942	479	1421	3135	1646	4781
	65.1	34.9	100.0	65.4	34.6	100.0	66.3	33.7	100.0	65.6	34.4	100.0
중	4344	2270	6614	3004	1923	4927	2422	1470	3892	14592	9421	24013
	65.7	34.3	100.0	61.0	39.0	100.0	62.2	37.8	100.0	60.8	39.2	100.0
하	2534	1787	4321	1855	1788	3643	1560	1304	2864	1127	1121	2248
	58.6	41.4	100.0	50.9	49.1	100.0	54.5	45.5	100.0	50.2	49.9	100.0
전체	8122	4723	12845	5808	4212	10020	4924	3253	8177	18854	12188	31042
	63.2	36.8	100.0	58.0	42.0	100.0	60.2	39.8	100.0	60.8	39.2	100.0
χ^2/p	115.514***			188.832***			126.742***			297.562***		

- 맞벌이 가정 여부에 따라 온라인 학습을 위해 디지털기기/장비(PC, 노트북, 스마트폰, 화상카메라 등) 구입을 위한 지출이 늘었는지 분석한 결과,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정이 41.2%, 외벌이 가정 37.5%로 약간 차이가 있었음.

〈표 215〉 맞벌이 여부별 디지털기기/장비 지출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예	3404	2241	5645	2871	2189	5060	2504	1720	4224	8779	6150	14929
	60.3	39.7	100.0	56.7	43.3	100.0	59.3	40.7	100.0	58.8	41.2	100.0
아니오	4718	2482	7200	2937	2023	4960	2420	1533	3953	10075	6038	16113
	65.5	34.5	100.0	59.2	40.8	100.0	61.2	38.8	100.0	62.5	37.5	100.0
전체	8122	4723	12845	5808	4212	10020	4924	3253	8177	18854	12188	31042
	63.2	36.8	100.0	58.0	42.0	100.0	60.2	39.8	100.0	60.7	39.3	100.0
χ^2/p	76.211***			20.444a			3.977***			93.281***		

- 학습을 위한 책, 참고서 등 학습 관련 자료 구입 지출이 증가하였는지 학부모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 집단의 긍정 응답은 53.4%, 중 집단은 49.4%, 상 집단은 47.3%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지출이 증가한 경향을 알 수 있음⁸⁾.

8) 학생을 대상으로 책, 참고서, 문제집 구입이 늘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 이러한 경향은 초중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음.

〈표 216〉 가정경제상황별 책, 참고서 등 학습 관련 자료 구입 지출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상	927	983	1910	810	640	1450	782	639	1421	2519	2262	4781
	48.5	51.5	100.0	55.9	44.1	100.0	55.0	45.0	100.0	52.7	47.3	100.0
중	3259	3355	6614	2621	2306	4927	2051	1841	3892	12147	11866	24013
	49.3	50.7	100.0	53.2	46.8	100.0	52.7	47.3	100.0	50.6	49.4	100.0
하	2007	2314	4321	1815	1828	3643	1441	1423	2864	1047	1201	2248
	46.4	53.6	100.0	49.8	50.2	100.0	50.3	49.7	100.0	46.6	53.4	100.0
전체	6193	6652	12845	5246	4774	10020	4274	3903	8177	15713	15329	31042
	48.2	51.8	100.0	52.4	47.6	100.0	52.3	47.7	100.0	50.6	49.3	100.0
χ^2/p	25.100***			47.639***			57.072***			102.712***		

- 책, 참고서 등 학습 관련 자료를 구입하는데 지출이 증가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외별이 가정의 긍정 응답률은 49.5%, 맞별이 가정은 49.2%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음.
-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습 관련 자료 구입 지출 증가에 대한 긍정 응답이 외별이 가정에 맞별이 가정보다 약간 더 높았음.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맞별이 가정에 매우 근소하게 높았음. 중고등학교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217〉 맞별이 여부별 책, 참고서 등 학습 관련 자료 구입 지출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예	2754	2891	5645	2650	2410	5060	2177	2047	4224	7581	7348	14929
	48.8	51.2	100.0	52.4	47.6	100.0	51.5	48.5	100.0	50.8	49.2	100.0
아니오	3439	3761	7200	2596	2364	4960	2097	1856	3953	8132	7981	16113
	47.8	52.2	100.0	52.3	47.7	100.0	53.0	47.0	100.0	50.5	49.5	100.0
전체	6193	6652	12845	5246	4774	10020	4274	3903	8177	15713	15329	31042
	48.2	51.8	100.0	52.4	47.6	100.0	52.3	47.7	100.0	50.6	49.4	100.0
χ^2/p	12.173**			.003			2.304			8.416*		

문제집 구입이 늘었다고 응답하였음.

-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않는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더 오랜 시간 사교육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 시간도 더 증가함
 - 가정상황에 따라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학생에게 질문하였음.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한 학생은 하 집단 31.1%, 중 집단 17.4%, 상 집단 13.2%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 가장 많이 응답함.
 - 3시간이상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상 집단에서 29%로 나타나 하 집단(23.8%)과 차이를 보였음.

〈표 218〉 가정경제상황별 사교육 시간 (N, %)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없음)	전체	χ^2/p
상	555	1048	1032	684	639	601	4559	265.259***
	12.2	23.0	22.6	15.0	14.0	13.2	100.0	
중	1658	3351	3655	2173	1696	2649	15182	
	10.9	22.1	24.1	14.3	11.2	17.4	100.0	
하	127	237	232	156	159	412	1323	
	9.6	17.9	17.5	11.8	12.0	31.1	100.0	
전체	2340	4636	4919	3013	2494	3662	21064	
	11.1	22.0	23.4	14.3	11.8	17.4	100.0	

-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을 받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늘었는지 학생에게 조사하였음.
- 가정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 집단이 30.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하 집단이 24.3%로 가장 낮게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사교육 시간이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 비율도 높아졌음.
-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로 보임.

〈표 219〉 가정경제상황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증가 비율 (N, %)

	초_저학년		초_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상	149	22.7	526	31.1	421	32.9	315	33.7	1411	30.9
중	352	20.9	1061	24.7	1355	27.4	1207	28.3	3975	26.2
하	13	15.9	56	25.6	101	26.0	151	23.8	321	24.3
전체	514	21.2	1643	26.5	1877	28.4	1673	28.7	5707	27.1
χ^2/p	5.047***		31.455***		27.088***		29.112***		82.223***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 맞벌이 가정이 온라인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더 많음
 - 학부모에게 온라인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비(유료 보습/보충학원)가 증가하였는지 질문하였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 집단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학교급별로 살펴봐도 모든 학교급에서 하 집단의 긍정응답이 상 집단 또는 중 집단의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220〉 가정경제상황별 온라인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상	1190	720	1910	913	537	1450	858	563	1421	2961	1820	4781
	62.3	37.7	100.0	63.0	37.0	100.0	60.4	39.6	100.0	61.9	38.1	100.0
중	3987	2627	6614	2930	1997	4927	2361	1531	3892	14034	9979	24013
	60.3	39.7	100.0	59.5	40.5	100.0	60.7	39.3	100.0	58.5	41.6	100.0
하	2346	1975	4321	1968	1675	3643	1678	1186	2864	1236	1012	2248
	54.3	45.7	100.0	54.0	46.0	100.0	58.6	41.4	100.0	55.0	45.0	100.0
전체	7523	5322	12845	5811	4209	10020	4897	3280	8177	18231	12811	31042
	58.6	41.4	100.0	58.0	42.0	100.0	59.9	40.1	100.0	58.8	41.2	100.0
χ^2/p	86.431***			86.664***			53.309***			139.410***		

- 맞벌이 여부에 따라 온라인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유료 보습/보충학원) 증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가 증가한 긍정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이 45.6%, 외벌이 가정 37.3%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이 사교육비 지출이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긍정 응답의 차이가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더 컸음. 이는 온라인수업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더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 투자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221〉 맞벌이 여부별 온라인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예	2947	2698	5645	2735	2325	5060	2440	1784	4224	8122	6807	14929
	52.2	47.8	100.0	54.1	45.9	100.0	57.8	42.2	100.0	54.4	45.6	100.0
아니오	4576	2624	7200	3076	1884	4960	2457	1496	3953	10109	6004	16113
	63.6	36.4	100.0	62.0	38.0	100.0	62.2	37.8	100.0	62.7	37.3	100.0
전체	7523	5322	12845	5811	4209	10020	4897	3280	8177	18231	12811	31042
	58.6	41.4	100.0	58.0	42.0	100.0	59.9	40.1	100.0	58.7	41.3	100.0
χ^2/p	219.077***			73.447***			20.248***			284.266***		

-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는지 학부모에게 질문하였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이러한 경향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가장 긍정응답을 많이 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저학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컸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222〉 가정경제상황별 학습 이외에 돌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상	1394	516	1910	1172	278	1450	1151	270	1421	3717	1064	4781
	73.0	27.0	100.0	80.8	19.2	100.0	81.0	19.0	100.0	77.8	22.3	100.0
중	4677	1937	6614	3860	1067	4927	3141	751	3892	17677	6336	24013
	70.7	29.3	100.0	78.3	21.7	100.0	80.7	19.3	100.0	73.6	26.4	100.0
하	2803	1518	4321	2562	1081	3643	2115	749	2864	1481	767	2248
	64.9	35.1	100.0	70.3	29.7	100.0	73.8	26.2	100.0	65.9	34.1	100.0
전체	8874	3971	12845	7594	2426	10020	6407	1770	8177	22875	8167	31042
	69.1	30.9	100.0	75.8	24.2	100.0	78.4	21.6	100.0	73.6	26.3	100.0
χ^2/p	103.747***			184.179***			146.663***			279.494***		

- 맞벌이 여부에 따라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음. 맞벌이 가정의 31.7%, 외벌이 가정의 21.3%가 코로나19이후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사교육비 증가 응답이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자녀를

돈 맞벌이 가정은 40.5%가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맞벌이 가정은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돌봄 부재를 해결하고자 한 것을 보여줌.

〈표 223〉 맞벌이 여부별 학습 이외에 돌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 (N,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예	3359	2286	5645	3630	1430	5060	3203	1021	4224	10192	4737	14929
	59.5	40.5	100.0	71.7	28.3	100.0	75.8	24.2	100.0	68.3	31.7	100.0
아니오	5515	1685	7200	3964	996	4960	3204	749	3953	12683	3430	16113
	76.6	23.4	100.0	79.9	20.1	100.0	81.1	18.9	100.0	78.7	21.3	100.0
전체	8874	3971	12845	7594	2426	10020	6407	1770	8177	22875	8167	31042
	69.1	30.9	100.0	75.8	24.2	100.0	78.4	21.6	100.0	73.7	26.3	100.0
χ^2/p	520.550***			121.690***			64.420***			588.948***		

3. 돌봄과 학생의 정서

가. 등교하지 않는 날 돌봄 실태

-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날 주로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형제/자매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음
 -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하였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약 88%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고 가정경제수준별로는 중 집단과 하 집단의 학생이 상 집단의 학생보다 응답율이 더 많았음.
 - 그러나 교육기관(학원/독서실 등)에서 보낸다는 응답은 상 집단(7.7%)에서 가장 높았음.

〈표 224〉 가정경제상황별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N, %)

	집 (거주지)	친척집	학교 돌봄교실	교육기관 (학원/독서 실 등)	동네 기관 (공부방, 도서관)	친구네 집	기타	전체	χ^2/p
상	3900	36	33	353	40	56	141	4559	46.504***
	85.5	0.8	0.7	7.7	0.9	1.2	3.1	100.0	
중	13452	82	69	966	114	128	371	15182	
	88.6	0.5	0.5	6.4	0.8	0.8	2.4	100.0	
하	1151	6	9	83	15	8	51	1323	
	87.0	0.5	0.7	6.3	1.1	0.6	3.9	100.0	
전체	18503	124	111	1402	169	192	563	21064	
	87.8	0.6	0.5	6.7	0.8	0.9	2.7	100.0	

- 낮에 보호자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도 응답에 차이가 있었음.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7.8%) 교육기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보호자가 함께 계시는 경우(5.3%)보다 높았음.

〈표 225〉 낮 시간 보호자 부재에 따른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시간 보내는 장소 (N, %)

	집(거주지)	친척집	학교 돌봄교실	교육기관 (학원/독서 실 등)	동네 기관 (공부방, 도서관)	친구네 집	기타	전체	χ^2/p
부재	9439	86	84	869	102	127	374	11081	167.255***
	85.2	0.8	0.8	7.8	0.9	1.1	3.4	100.0	
함께 계심	9064	38	27	533	67	65	189	9983	
	90.8	0.4	0.3	5.3	0.7	0.7	1.9	100.0	
전체	18503	124	111	1402	169	192	563	21064	
	87.8	0.6	0.5	6.7	0.8	0.9	2.7	100.0	

-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상 집단은 52.0%였지만, 하 집단은 35.0%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음. 또한 등교하지 않는 날 주로 혼자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 집단은 28.6%였지만, 상 집단은 15.0%였음.

-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돌봄의 공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표 226〉 가정배경에 따른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시간 보내는 사람 (N, %)

	보호자 (부모님)	친척 (조부모 등)	형제/ 자매	혼자	친구	가족·친척 외 어른	이웃	기타	전체	χ^2/p
상	2370	140	893	682	267	108	2	97	4559	247.654***
	52.0	3.1	19.6	15.0	5.9	2.4	0.0	2.1	100.0	
중	6850	421	3609	2918	696	346	2	340	15182	
	45.1	2.8	23.8	19.2	4.6	2.3	0.0	2.2	100.0	
하	463	28	301	378	64	30	0	59	1323	
	35.0	2.1	22.8	28.6	4.8	2.3	0.0	4.5	100.0	
전체	9683	589	4803	3978	1027	484	4	496	21064	
	46.0	2.8	22.8	18.9	4.9	2.3	0.0	2.4	100.0	

-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호자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차이는 매우 컸음. 보호자가 부재한 학생들은 형제자매(35.6%)나 혼자(30.5%)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반면, 보호자가 함께 계신다는 학생과는 차이가 컸음.

〈표 227〉 낮 시간 보호자 부재별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시간 보내는 사람 (N, %)

	보호자 (부모님)	친척 (조부모 등)	형제/ 자매	혼자	친구	가족·친척 외 어른	이웃	기타	전체	χ^2/p
부재	2120	352	3941	3379	688	247	2	352	11081	7166.940***
	19.1	3.2	35.6	30.5	6.2	2.2	0.0	3.2	100.0	
함께 계심	7563	237	862	599	339	237	2	144	9983	
	75.8	2.4	8.6	6.0	3.4	2.4	0.0	1.4	100.0	
전체	9683	589	4803	3978	1027	484	4	496	21064	
	46.0	2.8	22.8	18.9	4.9	2.3	0.0	2.4	100.0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거나 외벌이 가정의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날 보호자와 함께 식사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 가정의 학생은 형제/자매나 혼자 식사를 한다는 응답도 많았음

-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은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에게 질문하였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상 집단(70.9%)은 보호자와 함께 식사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러나 하 집단은 50.0%의 학생만 보호자와 함께 식사하였으며 혼자 식사하거나(23.5%), 형제자매 끼리 식사 하는 경우(20.4%)도 다른 집단 보다 많았음.

〈표 228〉 가정 배경별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아동의 점심식사 방식 (N, %)

	보호자 (부모님, 친척 등)와 함께 식사	형제/자매 끼리 식사	지역사회 기관 (공부방)에서 의 식사	학원에서 식사	혼자 식사	가족·친척 외 어른과 식사	기타	전체	χ^2
상	3391	635	8	17	619	61	50	4781	392.808***
	70.9	13.3	0.2	0.4	12.9	1.3	1.0	100.0	
중	14821	4478	93	79	3976	251	315	24013	
	61.7	18.6	0.4	0.3	16.6	1.0	1.3	100.0	
하	1125	458	34	6	529	44	52	2248	
	50.0	20.4	1.5	0.3	23.5	2.0	2.3	100.0	
전체	19337	5571	135	102	5124	356	417	31042	
	62.3	17.9	0.4	0.3	16.5	1.1	1.3	100.0	

-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에게 질문하였음. 맞벌이 여부에 따라 학생의 점심 식사 방식에 차이가 컸음. 외벌이 가정의 학생은 86.9%가 보호자와 함께 식사하지만, 맞벌이 가정 중 보호자와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5.7%였음.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은 보호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형제/자매끼리(31.2%) 혹은 혼자(28.0%)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음.

〈표 229〉 맞벌이 여부별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아동의 점심식사 (N, %)

	보호자 (부모님, 친척 등)와 함께 식사	형제/자매 끼리 식사	지역사회 기관(공부 방)에서의 식사	학원에 서 식사	혼자 식사	가족·친척 외 어른과 식사	기타	전체	χ^2
예	5331 35.7	4665 31.2	93 0.6	62 0.4	4187 28.0	264 1.8	327 2.2	14929 100.0	8698.842***
아니오	14006 86.9	906 5.6	42 0.3	40 0.2	937 5.8	92 0.6	90 0.6	16113 100.0	
전체	19337	5571	135	102	5124	356	417	31042	
	62.3	17.9	0.4	0.3	16.5	1.1	1.3	100.0	

나. 학생의 정서 및 심리상태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등 학생들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 보호자의 돌봄이 부재하여 낮 시간에 혼자 지내는 학생도 많아지면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조사하였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낮 시간에 보호자가 함께 있는 학생이 긍정적 정서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짜증난다는 부정적 정서에 더 높게 응답함
 - 학생의 긍정적 정서 및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요즘 행복하다고 느낀다’와 ‘나는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라는 문항에 학생이 응답한 값을 활용하여 분석함.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낮 시간 보호자의 부재 여부에 따라 학생의 정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행복하다고 느낀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상 집단이 7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 집단(60.8%), 하 집단(39.0%)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았음.
 - 낮 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는 학생은 66.1%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자가 부재한 학생은 58.1%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230〉 ‘요즘 행복하다고 느낀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가정 경제 상황	상	403	847	1990	1319	4559	948.047***
		8.8	18.6	43.6	28.9	100.0	
	중	1655	4315	7020	2192	15182	
		10.9	28.4	46.2	14.4	100.0	
	하	309	499	407	108	1323	
		23.4	37.7	30.8	8.2	100.0	
낮 시간 보호자 여부	부재	1423	3217	4711	1730	11081	152.653***
		12.8	29.0	42.5	15.6	100.0	
	함께 계심	944	2444	4706	1889	9983	
		9.5	24.5	47.1	18.9	100.0	
	전체	2367	5661	9417	3619	21064	
		11.2	26.9	44.7	17.2	100.0	

-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하 집단이 6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 집단(48.2%), 하 집단(42.2%)의 순으로 많았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른 집단 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음.

- 짜증을 많이 낸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낮 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는 집단(46.0%)보다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집단(49.5%)이 약간 더 많았음.

〈표 231〉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가정 경제 상황	상	972	1661	1383	543	4559	421.015***
		21.3	36.4	30.3	11.9	100.0	
	중	1924	5940	5527	1791	15182	
		12.7	39.1	36.4	11.8	100.0	
	하	145	348	523	307	1323	
		11.0	26.3	39.5	23.2	100.0	
낮 시간 보호자 여부	부재	1535	4066	3975	1505	11081	34.865***
		13.9	36.7	35.9	13.6	100.0	
	함께 계심	1506	3883	3458	1136	9983	
		15.1	38.9	34.6	11.4	100.0	
	전체	3041	7949	7433	2641	21064	
		14.4	37.7	35.3	12.5	100.0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낮 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학생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교하지 않는 날 우울감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음
-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 건강이 걱정된다’에 61.6%의 학생들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배경별로 살펴보면, 상, 하 집단의 응답률이 62.4%로 동일하였는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상 집단이 다소 높았음.
- 건강 염려에 대해, 낮 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는 학생 집단은 61.6%,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학생 집단은 61.5%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음.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보호자가 부재한 학생이 다소 높았음.

〈표 232〉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 건강이 걱정된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가정 경제 상황	상	622	1094	1818	1025	4559	120.332***
		13.6	24.0	39.9	22.5	100.0	
	중	1695	4183	6721	2583	15182	
		11.2	27.6	44.3	17.0	100.0	
	하	177	320	545	281	1323	
		13.4	24.2	41.2	21.2	100.0	
낮 시간 보호자 여부	부재	1354	2911	4717	2099	11081	8.231*
		12.2	26.3	42.6	18.9	100.0	
	함께 계심	1140	2686	4367	1790	9983	
		11.4	26.9	43.7	17.9	100.0	
	전체	2494	5597	9084	3889	21064	
		11.8	26.6	43.1	18.5	100.0	

-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48.2%로 거의 과반수의 학생들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하 집단 학생 중 6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도가 가장 높았음. 이 중(48.1%), 상(44.5%) 집단의 응답률과 차이도 컸음.
- 미래에 대한 불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낮 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는 학생 집단의 응답(45.0%) 보다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학생의 응답(51.0%)이 더 높았음.

〈표 233〉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가정 경제 상황	상	1056	1478	1247	778	4559	351.515***
		23.2	32.4	27.4	17.1	100.0	
	중	2275	5612	4958	2337	15182	
		15.0	37.0	32.7	15.4	100.0	
	하	169	326	477	351	1323	
		12.8	24.6	36.1	26.5	100.0	
낮 시간 보호자 여부	부재	1689	3737	3685	1970	11081	83.359***
		15.2	33.7	33.3	17.8	100.0	
	함께	1811	3679	2997	1496	9983	
		18.1	36.9	30.0	15.0	100.0	
	전체	3500	7416	6682	3466	21064	
		16.6	35.2	31.7	16.5	100.0	

-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돌봄의 공백으로 혼자 집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늘어났음.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학생에게 질문하였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하 집단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상 집단이 17.2%로 가장 적었음. ‘매우 그렇다’는 응답에서도 하 집단의 응답이 매우 높았음.
- 낮 시간 보호자의 부재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낮 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는 학생 집단에서는 13.4% 학생이 혼자 남겨진 기분을 느끼고 있었으며,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학생 집단에서는 23.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낮 시간 성인의 부재 여부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었음.

〈표 234〉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의 학생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가정 경제 상황	상	2393	1379	516	271	4559	287.758***
		52.5	30.2	11.3	5.9	100.0	
	중	6486	5868	2010	818	15182	
		42.7	38.7	13.2	5.4	100.0	
	하	487	455	216	165	1323	
		36.8	34.4	16.3	12.5	100.0	
낮 시간 보호자 여부	부재	4505	3925	1780	871	11081	394.146***
		40.7	35.4	16.1	7.9	100.0	
	함께	4861	3777	962	383	9983	
		48.7	37.8	9.6	3.8	100.0	
	전체	9366	7702	2742	1254	21064	
		44.5	36.6	13.0	6.0	100.0	

다. 학교 및 지역의 돌봄 지원

- 돌봄교실 관련 문항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긴급돌봄교실은 등교개학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았고, 소도시는 등교개학 이전까지만 운영하였다는 응답도 다른 지역보다 많음. 또한 과반 이상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도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운영 기간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교개학 전부터 지속 운영 중에 응답한 비율이 7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교개학 이후 운영(6.8%)이 다음으로 많았음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소도시의 긴급돌봄교실운영 방식은 대도시·중도시와 다소 차이가 있었음. 소도시의 응답자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등교개학 전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다른 규모의 지역보다 응답이 다소 낮았음. 그 밖에 등교개학 이전까지 운영했다는 14.9%, 등교개학 이후부터 운영 하였다는 응답비율도 12.2%였음.

〈표 235〉 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의 운영 기간 (N, %)

	등교개학 이전까지	등교개학 이후 운영	등교개학 전부터 지속 운영 중	운영 안함	잘 모름	전체	χ^2
대도시	58 6.6	50 5.7	704 79.6	15 1.7	57 6.4	884 100.0	31.314***
중도시	18 4.2	35 8.1	351 81.1	9 2.1	20 4.6	433 100.0	
소도시	11 14.9	9 12.2	45 60.8	5 6.8	4 5.4	74 100.0	
전체	87 6.3	94 6.8	1100 79.1	29 2.1	81 5.8	1391 100.0	

-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고 응답함.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는 응답도 40.5%였음.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저학년보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소도시는 저학년에 응답한 비율이 전 학년 보다 다소 높았음.

〈표 236〉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참여 대상 학년 (N, %)

	저학년(초1~3학년)	전 학년	잘 모름	전체	χ^2
대도시	345	499	40	884	13.698**
	39.0	56.4	4.5	100.0	
중도시	180	247	6	433	
	41.6	57.0	1.4	100.0	
소도시	38	32	4	74	
	51.4	43.2	5.4	100.0	
전체	563	778	50	1391	
	40.5	55.9	3.6	100.0	

- 긴급돌봄교실의 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 보조인력이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보조인력을 채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사가 긴급돌봄교실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 긴급돌봄교실 운영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조사한 결과, 보조인력이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나, 부득이한 경우 교사들이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16.4%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도, 대중소 모든 지역에서 보조인력이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소도시는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대·중도시 보다 더 많고, 보조인력이 지도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대도시에서 많이 나타남.

〈표 237〉 긴급돌봄교실의 운영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N, %)

	교사가 지도	보조인력이 지도	보조인력 채용 운영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교사가 지도	기타	전체	χ^2
대도시	17	664	153	50	884	22.495***
	1.9	75.1	17.3	5.7	100.0	
중도시	4	338	68	23	433	
	0.9	78.1	15.7	5.3	100.0	
소도시	6	60	7	1	74	
	8.1	81.1	9.5	1.4	100.0	
전체	27	1062	228	74	1391	
	1.9	76.3	16.4	5.3	100.0	

- 돌봄교실 운영 업무는 주로 학교 교직원 여러명이 분담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인 전담이 많았음. 소도시는 교직원 1인이 전담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종일 운영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소도시는 오후에만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다른 도시보다 많았음.
- 돌봄교실 업무 담당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7%의 교사들이 돌봄교실 업무를 교직원 여러 명이 분담하여 담당한다고 응답하였고, 32.9%는 교직원 1인이 전담한다고 응답함.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소도시는 학교 교직원 1인이 전담한다(55.4%)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대도시와 중도시는 교직원 여러 명이 분담하여 돌봄교실 업무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규모에 따른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었음.

〈표 238〉 학교의 돌봄교실 업무 담당 방식 (N, %)

	학교 교직원 1인 전담 방식	학교 교직원 여러명 분담 방식	지자체 및 마을 교육 자원으로 운영	기타	잘모름	전체	χ^2
대도시	301	382	58	63	80	884	26.279***
	34.0	43.2	6.6	7.1	9.0	100.0	
중도시	116	203	34	39	41	433	
	26.8	46.9	7.9	9.0	9.5	100.0	
소도시	41	23	4	2	4	74	
	55.4	31.1	5.4	2.7	5.4	100.0	
전체	458	608	96	104	125	1391	
	32.9	43.7	6.9	7.5	9.0	100.0	

- 돌봄 교실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일 운영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후에만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23.6%로 많았음.
-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도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남. 다만, 종일 돌봄에 대한 응답이 중도시가 65.4%로 가장 많았고, 소도시는 오후에만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응답도 39.2%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음.

〈표 239〉 학교의 돌봄 교실 운영시간 (N, %)

	종일 돌봄	오후 돌봄	오후 및 저녁 돌봄	운영 안함	잘 모름	전체	χ^2
대도시	524	213	37	6	104	884	25.251**
	59.3	24.1	4.2	0.7	11.8	100.0	
중도시	283	86	8	2	54	433	
	65.4	19.9	1.8	0.5	12.5	100.0	
소도시	36	29	5	1	3	74	
	48.6	39.2	6.8	1.4	4.1	100.0	
전체	843	328	50	9	161	1391	
	60.6	23.6	3.6	0.6	11.6	100.0	

- 돌봄교실 운영 중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주로 학교에서 제공하였음. 대도시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비율이 많았고, 소도시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돌봄 교실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간식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조사하였음. 과반수(51.3%)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간식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교실의 간식 제공 방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26.2%였음.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도시가 대도시나 소도시보다 학교에서 간식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간식이 없다는 응답은 대도시의 15.2%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많았음.

〈표 240〉 돌봄교실 운영 시 학생 간식 준비 (N, %)

	학교에서 제공	각 가정에서 준비	간식 없음	잘 모름	전체	χ^2
대도시	436	71	134	243	884	25.731***
	49.3	8.0	15.2	27.5	100.0	
중도시	241	42	42	108	433	
	55.7	9.7	9.7	24.9	100.0	
소도시	37	16	7	14	74	
	50.0	21.6	9.5	18.9	100.0	
전체	714	129	183	365	1391	
	51.3	9.3	13.2	26.2	100.0	

-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가정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발생 시 매뉴얼(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돌봄/위기학생 교사나 학교 공동체와 협의하여 대응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코로나19 사태로 돌봄이나 가정 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 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는 매뉴얼(지침)을 토대로 대응(5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매뉴얼(지침)에 따른다는 응답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돌봄 담당교사와 협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학교는 학교 공동체와 협의하여 대응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⁹⁾

〈표 241〉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가정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발생 시 대응 (N, %)

	매뉴얼 (지침)에 따름	담임교사 및 발견교사 혼자 해결	돌봄/위기학생지 원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진행	학교 공동체와 협의하여 대응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함	전체	χ^2/p
초등학교	653	54	258	397	29	1391	91.900***
	46.9	3.9	18.5	28.5	2.1	100.0	
중학교	570	42	133	390	24	1159	
	49.2	3.6	11.5	33.6	2.1	100.0	
고등학교	744	41	109	364	52	1310	
	56.8	3.1	8.3	27.8	4.0	100.0	
전체	1967	137	500	1151	105	3860	
	51.0	3.5	13.0	29.8	2.7	100.0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돌봄(방과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제도가 더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
 -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에 돌봄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제도가 더 구축되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정경제적 상황과 지역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필요하다는 응답은 하 집단 88.9%, 상 집단 85.9%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부모가 돌봄과 교육지원 시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
 - 지역규모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소도시 88.4%, 중도시 88.2%, 대도시 87.4%로 나타나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9) 지역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응 방식에 지역규모 간 차이가 없었음($\chi^2=5.504$)

〈표 242〉 지역에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제도의 구축 필요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가정 경제 상황	상	82	593	2849	1257	4781	75.139***
		1.7	12.4	59.6	26.3	100.0	
	중	256	2654	15347	5756	24013	
		1.1	11.1	63.9	24.0	100.0	
	하	28	222	1329	669	2248	
		1.2	9.9	59.1	29.8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251	2348	12944	4950	20493	19.355**
		1.2	11.5	63.2	24.2	100.0	
	중도시	97	1019	5931	2466	9513	
		1.0	10.7	62.3	25.9	100.0	
	소도시	18	102	650	266	1036	
		1.7	9.8	62.7	25.7	100.0%	
전체		366	3469	19525	7682	31042	
		1.2	11.2	62.9	24.7	100.0	

4. 변화된 교육환경 속 교사 간 차이

가. 온라인수업에 대한 격차 인식

- 저경력 교사가 고경력 교사보다 온라인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온라인수업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고려하여 수업한다는 응답도 많았음.
- 온라인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더 커졌는지 교사에게 조사한 결과, 38.9%의 교사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6.2% 정도였음.
- 교사의 경력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학생 간 학습 격차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5년미만이 43.5%로 가장 높았고, 20년이상이 35.6%로 가장 낮아 저경력 교사들이 온라인수업 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인식하였음.

〈표 243〉 온라인수업 후 학생 간 학습 격차에 대한 인식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5년미만	5	84	228	244	561	24.547*
	0.9	15.0	40.6	43.5	100.0	
5년이상~ 10년미만	12	67	247	207	533	
	2.3	12.6	46.3	38.8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15	71	209	214	509	
	2.9	13.9	41.1	42.0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17	93	313	269	692	
	2.5	13.4	45.2	38.9	100.0	
20년이상	19	188	576	432	1215	
	1.6	15.5	47.4	35.6	100.0	
전체	68	503	1573	1366	3510	
	1.9	14.3	44.8	38.9	100.0	

-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들(경제적 어려움, 이중언어 환경, 특수교육대상, 학습결손 누적, 생활교육 집중 필요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하였음. 37.4%의 교사가 고려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 교사의 경력별로 살펴보면, 고려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15년이상 경력의 교사 집단이 높았고, 5년미만이 32.8%로 가장 낮게 나타나, 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온라인 수업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고려하여 수업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244〉 온라인수업 시 취약계층 학생 고려에 대한 교사 응답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5년미만	14	170	310	67	561	28.736**
	2.5	30.3	55.3	11.9	100.0	
5년이상~ 10년미만	13	183	263	74	533	
	2.4	34.3	49.3	13.9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12	161	271	65	509	
	2.4	31.6	53.2	12.8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18	254	359	61	692	
	2.6	36.7	51.9	8.8	100.0	
20년이상	49	440	618	108	1215	
	4.0	36.2	50.9	8.9	100.0	
전체	106	1208	1821	375	3510	
	3.0	34.4	51.9	10.7	100.0	

나.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교사 역량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교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저경력 교사일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효능감도 높아져 5년미만의 초임 교사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갑작스러운 온라인수업으로의 전환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음. 온라인수업을 실시한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 살펴보았음.
 - ‘다양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학습콘텐츠 및 과제를 제작, 편집,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교사 경력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학습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구체적으로 학습콘텐츠 제작 능력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5년미만과 5년이상~10년미만의 교사 집단에서는 20.1%였으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응답률도 낮아져 20년이상 고경력 교사 중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교사는 9.2%였음.

〈표 245〉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학습콘텐츠 및 과제를 제작, 편집, 활용 할 수 있음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5년미만	14	121	313	113	561	113.546***
	2.5	21.6	55.8	20.1	100.0	
5년이상~ 10년미만	24	134	268	107	533	
	4.5	25.1	50.3	20.1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17	113	286	93	509	
	3.3	22.2	56.2	18.3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21	202	375	94	692	
	3.0	29.2	54.2	13.6	100.0	
20년이상	59	449	595	112	1215	
	4.9	37.0	49.0	9.2	100.0	
전체	135	1019	1837	519	3510	
	3.8	29.0	52.3	14.8	100.0	

- ‘나는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교사 경력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음
-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5년미만의 교사 집단에서는 16.2%, 20년이상 교사 집단에서는 5.9%로 나타나, 경력이 낮은 교사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46〉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 시 해결 시도 가능 (N,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5년미만	30	152	288	91	561	169.506***
	5.3	27.1	51.3	16.2	100.0	
5년이상~ 10년미만	33	159	243	98	533	
	6.2	29.8	45.6	18.4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25	161	248	75	509	
	4.9	31.6	48.7	14.7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36	250	322	84	692	
	5.2	36.1	46.5	12.1	100.0	
20년이상	104	585	454	72	1215	
	8.6	48.1	37.4	5.9	100.0	
전체	228	1307	1555	420	3510	
	6.5	37.2	44.3	12.0	100.0	

- 대부분의 답임 교사들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미흡한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5년미만의 초임교사나 20년이상의 고경력 교사의 응답이 높았음.

- 담임교사에게 학생 상담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교사 경력별로 비교한 결과, 모든 경력 집단에서 학생과의 관계 형성 미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담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 학생과의 관계 형성 미흡에 대한 응답은 20년이상(62.2%), 5년미만(59.0%), 15년 이상~20년 미만 (58.2%)의 순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상담할 시간이 부족하다에 대한 응답은, 15년미만 교사들이 15년이상 교사보다 높았음.

〈표 247〉 현재, 담임으로서 학생 상담 시 가장 어려운 부분 (N, %)

	비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상황	상담할 시간의 부족	학생과의 관계 형성 미흡	기타	전체	χ^2
5년미만	48	113	253	15	429	26.315**
	11.2	26.3	59.0	3.5	100.0	
5년이상~ 10년미만	54	118	221	20	413	
	13.1	28.6	53.5	4.8	100.0	
10년이상~ 15년미만	62	88	180	13	343	
	18.1	25.7	52.5	3.8	100.0	
15년이상~ 20년미만	64	89	242	21	416	
	15.4	21.4	58.2	5.0	100.0	
20년이상	83	119	356	14	572	
	14.5	20.8	62.2	2.4	100.0	
전체	311	527	1252	83	2173	
	14.3	24.3	57.6	3.8	100.0	

5. 소결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등교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날 보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일수가 더 많아짐. 등교하지 않는 날 돌봄의 부재와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그로 인한 학습 격차 문제가 교육계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음. 이러한 이슈는 기존의 학교가 교육만을 담당해 온 것이 아니며 학교의 제도적 목적과 별개로 돌봄의 기능을 담당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동시에 교육을 학교에 일임해왔던 가정은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그 결과 개인의 다양한 배경과 자원의 차이에 따른 학습 격차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더하여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비대면 환경도 학습 격차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보았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도입된 원격수업으로 교육계의 우려가 실제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로 나누어 네 가지 차원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나타난 격차의 실태를 살펴보았음. 학생차원에서는 온라인수업에서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교육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지, 각 가정과 학교는 등교하지 않는 날 어떻게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교사 차원에서는 온라인수업의 도입으로 새로운 교수역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응해가고 있는지 교사 간 차이를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수업과 교육 격차

-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온라인수업 환경에 차이가 있었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온라인수업을 위한 전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집에서 온라인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학습 환경은 가정 환경에 따라 차이가 컸음. 가정 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 온라인 학습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인터넷 속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았음.
-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는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 과정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음.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을수록 온라인수업 내용이 잘 이해 안 되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친구와 의견이나 정보를 교류하거나 교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 하는 등의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못하였음. 더욱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할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학생은 혼자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음

- 온라인 학습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균이 높게 나타나 개인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컸음.
- 한편,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습 격차에 대하여 교사들은 특히, 수학과목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 인식하였음. 이에 학교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지원하고 있었는데, 학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수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고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의 응답률도 많았음.
-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방식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초등학교는 원격 학습지원 도우미/돌봄 전담 교사에게 의뢰하여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취약계층 학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학습으로 학습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습 결손이나 학습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줌.

●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가정의 교육지원

- 학교의 등교 수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보호자의 온라인 학습 지도 및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좋을수록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지원과 지도를 잘 하고 있었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학교 일정 확인, 학습 및 과제에 대한 관심과 챙김, 학습 상태 확인 등 온라인수업을 위한 지원이 더 많았음. 나아가 가정 형편이 좋은 경우 보호자가 온라인수업 및 과제를 옆에서 함께 하는 반면,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을수록 온라인 학습/교육 활동을 지도하기 어려워 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의 불안 속에서 각 가정은 자녀의 학습을 위해 온라인수업 지원 이외에도 교구 구입과 사교육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었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안 좋거나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기 구입 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정의 경제 상황이 좋거나, 외벌이 가정은 학습 관련 자료 구입을 위한 지출 증가가 더 많았음.
-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을수록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서 온라인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동일한 사교육을 받더라도 경제적 형편이 좋거나 낮 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더 장시간 동안 사교육을 받았고, 교육 시간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을 아예 안한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응답이 많았음.

-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안 좋을수록,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응답률이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학습 결손과 돌봄에 대한 우려를 매우려고 노력하였음을 보여줌.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좋고 돌봄의 공백이 없는 가정이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적고 자녀의 학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 학습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돌봄의 공백과 학생의 정서 및 심리

- 등교하지 않는 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교육기관(학원/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높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안 좋을수록 그리고 낮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보호자 없이 형제/자매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점심식사도 형제/자매나 혼자하고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낮 시간에 부재한 가정의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돌봄의 공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그 결과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 상태도 차이가 있었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거나 낮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음. 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안 좋거나, 낮 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학생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교하지 않는 날 우울감이 높았음

● 학교 및 지역의 돌봄 지원

-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가정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발생 시 매뉴얼(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 보다 돌봄/위기학생 교사나 학교 공동체와 협의하여 대응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은 지역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음. 지역규모가 클수록 등교개학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이러한 차이는 대도시 일수록 돌봄 교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일 수 있음. 이는 긴급돌봄교실 운영 방식 실태를 통해서도 드러남. 소도시의 경우 보조인력이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보조인력을 채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사가 긴급돌봄교실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소도시는 업무 담당도 다른 도시보다 교직원 1인이 전담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운영시간도 오후에만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대도시의 돌봄교실 운영 중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반면, 소도시의 각 가정

서 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학교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돌봄(방과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음. 이러한 필요는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 가정에서도 높았음. 따라서 자원이 열악한 배경의 학생들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돌봄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변화된 교육환경 속 교사 간 차이

- 갑작스러운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경력에 따라 교사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음.
- 온라인수업 운영 및 상황에서 교사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크게 나타나, 저경력 교사일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효능감도 높아져 5년 미만의 초임 교사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경력이 높을수록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그러나 저경력 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대부분의 담임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미흡한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5년 미만의 초임교사나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가 더 어려워하고 있었음.

● 종합

- 가정 배경이나 교육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가정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교수학습 상황에서 보완하기 힘든 과제로 여겨져 왔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의 관심과 노력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지원이나 기초학력부진 진단 등 제한적이고 프로그램 위주의 일률적인 지원이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돌봄과 학습의 공백으로 인한 학습 격차 문제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 문제로 제기되었음.
- 실제로 학교 교육의 변화는 학습 격차를 양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 시간 보호자의 부재여부에 따라라도 학습, 돌봄, 심리 등 학생 간 다양한 격차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돌봄의 공백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낮 시간 보호자의 부재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 그나마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부모가 온라인 학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사교육을 통해 학습과 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돌봄의 부재와 가정의 제한적 지원 속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학생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낮 시간 돌봄의 공백과 열악한 가정 형편 속에 놓인 학생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학습 결손과 돌봄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학교의 지원은 학교의 여건과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격차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 더욱이 새로운 수업방식의 변화는 기존 교사들의 역량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음.
- 따라서 코로나19는 학교 교육 속에 내재해 있던 교육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욱이 그 격차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 신체적 조건, 정서·심리적 특성, 학습 환경과 교수자 특성, 학교의 정책적 지원까지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습 복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여건과 맥락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이 요구됨.

VI.

시사점

재난의 일상화

-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생활과 인식 변화의 공통적인 경향성 ‘재난의 일상화’임. 온라인수업과 학습 목적 뿐 아니라 이외 다른 목적으로도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 사용이 늘고,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더 많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교사와의 대면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과의 대화 시간이 늘고, 집안일을 예전 보다 좀 더 하게 되고, 집 밖의 외출이나 방문이 줄었다는 것임. 건강문제와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교우 관계 및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은 온라인에서는 늘었고, 오프라인에서는 줄었으며, 혼자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음.
- 교사들은 등교 개학 이전과 이후에 온라인수업의 형태, 내용, 운영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느끼며, 학교 급별 차이는 있으나, 학생 개발 학습 상태 점검과 격차, 수업 진도에 대한 걱정 등을 보이며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음. 또한 온라인수업 운영이 각 교과별, 학년별, 교사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직원 회의 등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응답함. 향후 온라인수업에 대한 의견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형태가 지속될 것이고, 학생과의 대면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학교급별 차이는 조금 있지만, 생활지도 및 교육과 학교 필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진로 교육에 가장 어려움을 보임.
- 학부모들은 가정 내 학생의 돌봄의 실태가 학교급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인식 양상을 보이며, 가정에서의 온라인수업은 진도 관리 정도에 미치고, 학습이해도 점점 과제 체크는 초,중,고 학교급별 차이가 큼.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녀의 미디어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와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며, 온라인수업 콘텐츠 개발과 수업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도 교사와 자녀와의 대면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함. 자녀의 진로에 대해 교사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지역에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김. 이러한 재난의 일상화를 통해 학부모가 요구하는 바는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국 학교 구성원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함.

공유 의식의 확산

- 개인의 방역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고 여기는 ‘공유 의식’의 확산임. 이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병 예방 지침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함.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학교에서의 방역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학교의 등교 방식 및 학교 교육과정 활동과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만족도가 낮지 않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음. 초중고 학교급별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와 일상화된 재난 속에서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소속 학교의 자치 및 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교사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의견 수렴 체계의 활성화되고 코로나19 이전보다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며, 위기 발생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논의와 권한 책임 배분이 잘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함. 학교급별 응답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보다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한다고 생각함.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 우리 사회 전반의 ‘비대면 환경’임. 학생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는 수면시간, 식생활, 문화 여가 생활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습생활에 큰 전환을 드러내었음. 온라인수업 관련 환경은 디지털 기기, 인터넷 환경 등의 차이가 곧 학습 과정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사회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서 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열린 환경의 기대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 결국 ‘접근성’이 전제 조건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격차’의 문제로 봉착하게 됨을 알 수 있음.
- 비대면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학교 구성원에게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활용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디지털 사회에서 공동체 윤리의식과 디지털 세계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등의 역량을 배우는 기회가 더 강조되어야 함.

교육격차

-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생활 변화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개개인의 환경에 따른 ‘격차’임. 특히 가정과 학교의 학습 환경이 분리되지 않고 연계되면서 개인을 둘러싼 자원의 ‘차이’는 그대로 교육의 격차로 발생하게 됨. 재난의 위험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이는 학생들의 삶에서도 드러났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은 식습관도 불균형하고, 수면의 변화를 더 많이 겪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고, 디지털기기의 보유율도 낮으며, 온라인학습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도 많음. 온라인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 많이 나타남. 뿐만 아니라 학습보충을 위해서나 돌봄을 위해서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이 증가한 것은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으로 나타남. 이는 온라인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기기를 구입하고, 학교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의 방치를 막기 위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블렌디드 러닝 체제 구축,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와 정책 모니터링,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보장 등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은 온라인수업 뿐 아니라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응답함. 초중고 교사 모두 가정 내 방치 보다 학생들 간 학습 격차를 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나친 인터넷 환경 노출과 부정적 콘텐츠 접속 여부에 대한 우려를 더 보이고 있음. 더욱이 학교 내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공동체의 지원이나 교육과정 안에서의 노력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교사들은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으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따라서 개별 학생들의 다양한 환경과 학습 속도와 이해에 대한 세심한 차이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교육당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관점과 터닝 포인트

- 팬데믹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벌어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특히 온라인수업 체제와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을 가이드 해주는 보호자 혹은 조력자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학습의 조력자가 가정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른 차이, 그리고 과연 이러한 조력자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입장을 살펴봐야 함.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수업 중 친구들과 정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기도 하며, 교사

및 과목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수업 내용의 차이가 크고, 학습문제에 대한 몰입도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은 결국 온라인수업과 블렌디드 러닝이 체계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음. 즉, 단기적인 방안으로 마련되어지는 현 상황의 문제들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일상의 삶에서 개인 방역과 사회적 지침을 잘 따르고 있으나, 교사의 경우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균형의 문제에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교사 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삶의 복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소통과 관계

- 면대면과 비대면에서 두드러지게 요청되는 ‘소통’이 더 중요해짐. 온라인수업이 블렌디드 러닝 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경향성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나타난다는 것은 디지털 기반의 학습 생태계 조성이 공교육의 질로 평가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의 장에서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등에 방해를 받아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과정에 익숙한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 간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임. 온라인수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능형 개별 맞춤형 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학생과 학생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사이의 소통과 교감을 풍성하고 다채롭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이는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에서의 교사의 피드백에 대해 고학년일수록 적다는 것은 그 원인과 진단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시사해 줌. 고학년일수록 학습 과제 및 수행평가의 비율과 비중이 늘어나며 진로 및 입시에 영향을 주는데, 교사의 피드백이 많지 않다는 응답은 학습 성장을 위한 평가가 아닌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또한, 현재 학교생활에서의 고충으로는 저학년은 친구관계로, 고학년일수록 평가와 과제하기와 학교 일정 따라잡기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볼 때 역시 교사의 피드백이 중요함을 시사해줌.
-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및 학습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에서 학생들의 응답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피드백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전반에 나타난 견해 차이일 수 있으며, 혹은 서로의 요구의 정도 차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이것 또한 결국 ‘소통’의 문제로 귀결될 것임. 이제 개별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 유연한 교육과정 개발, 학습공기 고양, 학습 결손 보정 등과 같은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서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모니터링, 점검이 중요할 것임.

- 한편,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오히려 이 더 늘었다는 점은 학생이 학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면서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소통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그 동안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의 중요한 일 특히 학부모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학부모와 소통했었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봄. 즉,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 채 여전히 대상화 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조력자, 협조자 정도로서 생각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나 큰 문제가 아닌 경우 학생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늘었지만 학부모는 온라인학습 관련 상담이나 생활교육 관련 상담은 줄었다고 응답한 결과는 소통의 형식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의 가능성은, 바로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학부모의 의견 반영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임. 이는 모두 초중고 학교급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블렌디드 러닝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음. 이것은 학부모와의 소통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미래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음.

미래지향의 가치

- 나와 타인,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미래상’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진로와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는 응답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정보통신기기 제공,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의 필수적 지원에 높은 찬성을 보였고,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크게 바라고 있음. 이 응답은 학부모와 교사보다 학생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학생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복지의 개념이 정형화되지 않고 또다른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고 파악됨. 또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에 더 탄력적이고 적응이 빠르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학습 복지 체제’ 구축이 절실한 때이며,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보장하는 소극적 돌봄의 가치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공적인 가치로서의 적극적 돌봄의 가치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해 줌.
- 교사 역시 온라인수업 콘텐츠 개발과 돌봄 관련 업무 담당자의 고충은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함. 학생과 관련한 모든 일상과 교육적 활동이 온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그 과업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라는 재난의 상황은 공교육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었음. 학습 복지 체제 뿐 아니라 ‘마을 단위 교육커먼즈’에 대한 긴급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음. 취약 계층이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교사와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주민, 즉 마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비전 공유와 행정적 지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마련이 시급함.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0.7.2. ‘코로나가 환기시킨 공교육의 존재 의미…학교가 준 건 지식 그 이상이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20600005#csidxa177222faced51bb4127b59bcf27124
- 김미정(2020). 초등긴급돌봄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163호(20-08).
- 백병부(2020). ‘코로나19와 교육: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2.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 7. 7. ‘코로나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문’
- 시사인, 2020.6.18. ‘학교를 왜 가야 하나 답해야 하는 시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27>
- 이보람(2020). ‘온라인 공교육 시대, 학부모의 인식과 역할’. 3단계 3차년도 제3차 학부모정책세미나 자료집(2020.7.29.),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한겨레신문, 2020. 7. 8. ‘원격수업 속 ‘교육 양극화’…중위권 성적 추락’.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2702.html>
- 한겨레신문, 2020. 8. 9. ‘논문 18편을 통해 본 코로나19의 미래- 네이처, 감염병 학자들의 예측 논문 분석’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57009.html#csidx2acf2dc8bb93679b7576b2c48783493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88-2호). ‘여론속의 여론 : 코로나19 12차 인식조사’. 2020. 7. 29.
- BBC NEWS 코리아, 2020. 6. 7. ‘코로나19: 달라지는 아이들... ‘잃어버린 세대’ 될까?’ <https://www.bbc.com/korean/news-52953309>

부록 ①

학생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생활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는 온라인 개학, 학교 방역 등 학교와 학생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일상과 교육 활동 실태,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실시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으로 보다 나은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에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분석결과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조사의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평소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응답해주세요.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문항이 많지만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경기도교육연구원

문의처 :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연구책임자)
☎ 031-8012-0943 / leejungyun@gie.re.kr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특성 등은 자료 분석을 위해 확인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이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시면 **설문시작** 버튼을 눌러 조사에 응해주십시오.

I 학생의 생활 실태 및 변화

※ 다음은 학생의 일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하루 평균 잠자는 총 시간이 변했나요?

☐ 줄었다 ☐ 늘었다 ☐ 이전과 비슷하다

2.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점심식사를 하고 있나요?

☐ 전혀 먹지 않는다 ☐ 거의 먹지 않는다 ☐ 대부분 먹는다 ☐ 항상 먹는다

3.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아래의 식사 또는 식품을 먹는 **습관**에 변화가 있나요?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집밥(한식)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등)			
배달 음식			
건강보조식품(영양제, 비타민 등)			

4. 다음은 하루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의 생활**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세요.

	있었던 경우, 하루 평균 사용(발생) 시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학습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테블릿 등 사용 시간		
학습 외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테블릿 등 사용 시간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시간		
집에서 학교 과제(숙제, 수행평가, 지필평가 준비 등)를 하는 시간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간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친구 및 친한 사람들과 대화 시간(통화, 문자 포함)	○4시간 이상 ○안함(없음)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가족 등)들과의 대화 시간(통화, 문자 포함)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문화놀이공간 방문 시간		
집안일(청소, 설거지, 빨래, 방정리 등)하는 시간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5.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나요?

- 집(거주지) ○ 친척집 ○ 학교 돌봄교실 ○ 교육기관(학원/독서실 등)
○ 동네 기관(공부방, 도서관) ○ 친구네 집 ○ 기타

6.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낮 시간에 주로 누구와 함께 있나요?

- 보호자(부모님) ○ 친척(조부모 등) ○ 형제/자매 ○ 혼자 ○ 친구
○ 가족·친척 외 어른 ○ 이웃 ○ 기타

II 학생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습 생활

1. 학교 온라인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가 있나요?
○ 예(나만 쓰는 기기가 있음) ○ 아니오(형제/자매/가족들과 같이 사용함)
2. 학교 온라인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참여하나요?
○ 집(거주지) ○ 학원/공부방(교육관련 기관) ○ 문화공간(카페, 공원) ○ 기타
3. 학교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 담당교과/담임 선생님께 질문 ○ 교육관련 기관(학원/공부방) 도움 ○ 보호자로부터 도움
○ 형제자매로부터 도움 ○ 혼자 해결 ○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 기타
4. 학교 온라인수업 및 과제를 도와주는 사람 있나요? **주로** 누구인가요?
○ 담당교과/담임 선생님 ○ 학원/공부방 선생님 ○ 보호자 ○ 형제자매 ○ 혼자해결 ○ 기타
5. **온라인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할 받은 적이 많다.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인터넷이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온라인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한다.				
나는 온라인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				
나의 보호자(부모님/조부모 등)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지신다.				
나의 보호자(부모님/조부모 등)는 학교 일정 공지(등교 및 온라인수업 안내 등)를 확인하고 챙겨주신다.				
나는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디지털기구나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다양한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학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온라인수업 중 이해가 잘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				
나는 온라인수업 중 다른 친구들과 정보나 의견을 활발히 교환한다.				
나는 온라인수업 중 어려운 학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온라인수업 기간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SNS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한다.				
나는 온라인수업만 할 때 보다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선생님에 따라(과목에 따라) 온라인수업 내용에 차이를 크게 느낀다.				

6.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교육과 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 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문제에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회(전교어린이회)나 학급회의 등을 통해 학교의 행사, 활동에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필요할 경우 디지털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를 쉽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준다.					
우리 학교는 이중언어 사용이나 신체의 불편으로 온라인수업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지원을 한다.					
나는 등교 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평가, 교육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선택과정 등)에 대해 만족한다.					
선생님은 나의 온라인수업 진도를 체크해주신다.					
선생님은 내가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주신다.					
선생님은 온라인수업 내용과 관련한 나의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해주신다.					
선생님은 내가 제출한 수행평가 및 학습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신다.					

7. 현재 우리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등교하고 있나요?

구분	유형(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하세요)		
학년·학급 분리 방식	☐ 학년별로 분리 등교	☐ 학급 내 분리 등교	☐ 기타
요일·주기 방식	☐ 요일별 등교	☐ 주기별 등교	☐ 기타

8. 현재 우리 학교의 등교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보통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9.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2가지만 고르세요.

- ☐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평가 및 과제 하기 ☐ 자치활동 참여
☐ 동아리활동 참여 ☐ 봉사활동 참여 ☐ 친구 관계
☐ 진로 탐색의 어려움(진학, 취업 및 창업 준비 등) ☐ 선생님과 소통(수업, 상담 등)
☐ 학교 일정 따라잡기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 챙기기)

10.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다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III 코로나19 이후 생활 및 환경 변화

1. 최근 한달 동안,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잘 지키고 있나요?

행동수칙	-몸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씻기 -기침, 재채기는 옷소매나 휴지로 하기	-마스크 쓰기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하기 -사람과 간격 1~2m 거리두기
------	--	---

☐ 전혀 지키지 않는다 ☐ 별로 지키지 않는다 ☐ 대부분 지킨다 ☐ 항상 지킨다

2.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기후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자연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병원, 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3.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응답해주세요.

	줄었다 (줄어들었다)	늘었다 (많아졌다)	이전과 비슷하다
병원 및 약국 방문 횟수			
유해사이트(성인사이트, 도박 등) 접속 횟수			
책, 참고서, 문제집 구입			
교구, 장난감, 악기 구입			
정보통신기기(pc, 스마트폰, 테블릿 등) 구입			
학원 및 과외 수강 시간			
용돈			
보호자(부모님)의 걱정 및 잔소리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가족)과의 다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일(스케줄 관리 등)			

4.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진로와 장래희망 직업이 변했다				

5.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나는 해야 할 공부나 숙제가 있으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				
나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가지 자료나 방법을 활용해서 알아낸다.				
나는 요즘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 건강이 걱정된다.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				
나는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				
나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Ⅳ 배경 정보

1. 학교급 : 초, 중, 고

2. 학년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3. 혁신학교 여부 :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일반학교

4. 우리 학교 지역

- | | | |
|------------------------------|-----------------------------|-----------------------------|
| ☐ 가평 | ☐ 부천 | ☐ 여주 |
| ☐ 고양 | ☐ 성남 | ☐ 연천 |
| ☐ 구리·남양주 | ☐ 수원 | ☐ 용인 |
| ☐ 광명 | ☐ 시흥 | ☐ 의정부 |
| ☐ 광주·하남 | ☐ 안산 | ☐ 이천 |
| ☐ 군포·의왕 | ☐ 안성 | ☐ 파주 |
| ☐ 김포 | ☐ 안양·과천 | ☐ 평택 |
| ☐ 동두천·양주 | ☐ 양평 | ☐ 포천 |
| | | ☐ 화성·오산 |

5. 집(거주지)의 어른들(보호자)은 모두 낮에 일하러 나가신다. ☐ 예 ☐ 아니오

6. 집(거주지)에는 나 말고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다. ☐ 예 ☐ 아니오

7. 나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한다. ☐ 잘 산다 ☐ 보통이다 ☐ 못 산다

8.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②

교사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교사의 생활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는 온라인 개학, 학교 방역 등 학교와 학생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이후, 학교구성원의 일상과 교육 활동 실태,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실시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으로 보다 나은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에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평소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응답해주세요.

응답 내용들은 숫자로 변환되고 다른 사람들의 응답과 함께 통합되어 통계처리되므로 개별 응답자의 소속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분석결과는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경기도교육연구원

문의처 :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연구책임자)

☎ 031-8012-0943 / leejungyun@gje.re.kr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특성 등은 자료 분석을 위해 확인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이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시면 다음 버튼을 눌러 조사에 응해주시시오.

※ 응답자 정보입니다.

1. 학교급 : ① 초 ② 중 ③ 고

1-1. 중등교사의 전공

- | | | | |
|------|---------|--------------|---------------|
| ① 국어 | ② 한문 | ③ 도덕·윤리 | ④ 사회·역사 |
| ⑤ 수학 | ⑥ 과학 | ⑦ 음악 | ⑧ 미술 |
| ⑨ 체육 | ⑩ 예술 | ⑪ 정보·컴퓨터 | ⑫ 기술·가정 |
| ⑬ 영어 | ⑭ 제2외국어 | ⑮ 전문교과(직업계열) | ⑯ 보건,사서,상담,영양 |
| ⑰ 특수 | ⑱ 기타 | | |

2. 총 교육경력

-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15년 미만 ⑤ 15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25년 미만
 ⑦ 25년 이상

3. 업무

① 담임교사 ② 비담임교사(교과담당,부장교사,수석교사) ③ 비담임교사(보건,사서,상담,영양)

4. 돌봄업무 담당 여부(초등은 돌봄전담, 중등은 위기학생지원 담당)

① 예 ② 아니오

5. 학교 지역

- | | | | |
|------------------------------|------------------------------|-----------------------------|-----------------------------|
| ☐ 가평 | ☐ 김포 | ☐ 안산 | ☐ 용인 |
| ☐ 고양 | ☐ 동두천·양주 | ☐ 안성 | ☐ 의정부 |
| ☐ 구리·남양주 | ☐ 부천 | ☐ 안양·과천 | ☐ 이천 |
| ☐ 광명 | ☐ 성남 | ☐ 양평 | ☐ 파주 |
| ☐ 광주·하남 | ☐ 수원 | ☐ 여주 | ☐ 평택 |
| ☐ 군포·의왕 | ☐ 시흥 | ☐ 연천 | ☐ 포천 |
| | | | ☐ 화성·오산 |

6. 학교의 혁신학교 유무

① 혁신학교 ② 혁신공감학교 ③ 일반학교

I 수업 운영 (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는 응답안함)

1.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온라인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우리 학교의 온라인수업의 형태와 내용이 등교 개학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교실수업 보다 온라인수업이 더 좋다.				
3 나의 온라인수업 운영 역량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온라인수업의 형태와 내용이 교과별로(교사별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5 나는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6 나는 학생들이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는지 개별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7 나는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학습 내용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한다.				
8 나는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및 학습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9 나는 다양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학습콘텐츠 및 과제를 제작, 편집, 활용할 수 있다.				
10 나는 온라인수업 상황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11 나는 등교개학 이후 정해진 수업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낀다.				
12 온라인수업 후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더 커졌다.				
13 나는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들(경제적 어려움, 이중언어 환경, 특수교육대상, 학습결손 누적, 생활교육 집중 필요 등)을 고려하고 있다.				

2.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콘텐츠 개발 및 자료 제작 ☐ 학생 참여 촉진(전화 및 문자 등) ☐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 수업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 학생 수업 참여 및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
☐ 학생 간 학습 격차 ☐ 기타
3. 선생님께서는 어떤 교과목이 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하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 음악 ☐ 미술 ☐ 체육 ☐ 실과 ☐ 영어 ☐ 도덕 ☐ 창체
4.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가장 큰 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 음악 ☐ 미술 ☐ 체육 ☐ 실과 ☐ 영어 ☐ 도덕 ☐ 창체
5. 선생님께서는 등교 개학 이후, 온라인수업 한 차시를 개발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시나요?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6. 온라인수업이 장기화된다면,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실시간 쌍방향 운영형 ☐ 콘텐츠 활용형
☐ 자료 제시 및 과제 제시형 ☐ 수업 영상 제공형(밴드, 온라인 클래스 등 활용)
7. 등교 후 교실수업에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시나요? 진행된다면, 온라인수업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 하지 않음(대면수업만 함) ☐ 20% 미만 ☐ 20% 이상~40% 미만
☐ 40% 이상~60% 미만 ☐ 60%이상~80%미만 ☐ 80%이상
8.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시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 설정이 어렵다.
☐ 과제형 평가 금지로 인해,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 실시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 온라인수업 내용으로 지필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심정적인 부담이 있다.
☐ 일방향 온라인수업 과정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어려움이 있다.
☐ 기타
9. 학교가 온라인수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학생들(경제적 어려움, 이중언어 환경, 특수교육대상, 학습결손 누적, 생활교육 집중 필요 등)을 지원하고 있나요?
☐ 지원하고 있음(9-1로) ☐ 지원하지 않고 있음 ☐ 모르겠음
- 9-1. 지원하고 있다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지원하고 있나요? 주로 지원하는 방식 2가지만 응답
☐ 원격학습지원 도우미/돌봄전담교사에게 의뢰 ☐ 지자체 기관과 협조
☐ 담임교사의 개별 지원 ☐ 예산 편성 없이 학교 안 교직원의 업무 지정
☐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자원봉사 및 학부모회 협조

10.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2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다				
3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5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학생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II 돌봄 (초등 교사만 응답)

1. 코로나19 이후, 선생님 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의 운영 기간은 어떠한가요?

- ① 등교개학 이전까지 ② 등교개학 이후 운영 ③ 등교개학 전부터 지속 운영 중
④ 운영 안함 ⑤ 잘 모름

2. 올해 선생님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참여 대상 학년은 어떠한가요?

- ① 저학년(초1~3학년) ② 전 학년 ③ 잘 모름

3. 긴급돌봄교실의 운영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교사들이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② 보조인력이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③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나, 부득이한 경우 교사들이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④ 기타

4. 코로나19 이후, 선생님 학교의 돌봄교실 담당 업무 방식은 어떠한가요?

- ① 학교 교직원 1인 전담 방식 ② 학교 교직원 여러명 분담 방식
③ 지자체 및 마을 교육 자원으로 운영 ④ 기타 ⑤ 잘 모름

5. 코로나19 이후, 선생님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어떠한가요?

- ① 종일 돌봄 ② 오후 돌봄 ③ 오후 및 저녁 돌봄 ④ 운영 안함 ⑤ 잘 모름

6. 코로나19 이후, 선생님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 시 학생들의 간식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 학교에서 제공 ○ 각 가정에서 준비 ○ 간식 없음 ○ 잘 모름

Ⅲ 담임업무 (담임교사만 응답)

1. 현재, 담임교사로서의 가장 힘든 업무는 무엇인가요? 2가지만 응답
☐ 생활지도 및 교육 ☐ 학부모 상담 ☐ 학교 방역 ☐ 급식지도
☐ 돌봄/위기학생/취약계층에 대한 파악 및 지원 ☐ 학교구성원(교사, 직원, 관리자)과의 협력
☐ 학교 필수 교육과정 (수행평가, 창의적 체험 활동 등) ☐ 행정 업무
2. 현재, 담임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전화 상담 ☐ 등교 시 직접 대면 상담 ☐ 온라인상에서의 파악(과제 제출 및 출결)
3. 현재, 담임으로서 학생 상담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비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상황 ☐ 상담할 시간의 부족 ☐ 학생과의 관계 형성의 미흡 ☐ 기타
4.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변화하였나요?
☐ 이전과 비슷하다. ☐ 상호작용 시간이 줄었다. ☐ 상호작용 시간이 늘었다.
5. 현재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십니까? 주로 활용하는 방법 2가지를 응답.
☐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를 통한 대화 상담
☐ 등교기간을 활용한 대면 상담 ☐ 인터넷 플랫폼 활용 (밴드, 클래스팅 등)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용

Ⅳ 학생 상담 및 생활교육

1.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전과 비슷하다. ☐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상호작용이 잘된다.
2. 현재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나요? 주로 활용하는 방법 2가지를 응답
☐ 학교 전화 및 휴대폰을 활용한 전화 상담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를 통한 대화 상담
☐ 등교기간을 활용한 대면 상담 ☐ 인터넷 플랫폼 활용 (밴드, 클래스팅 등)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용
3. 현재, 학생의 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시나요?
☐ 주 1시간 미만 ☐ 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주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주 3시간 이상
4. 현재, 학생의 미등교기간에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교육 지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시나요?
☐ 주 1시간 미만 ☐ 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주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주 3시간 이상
5. 코로나19 이후, 학생사안 발생은 어떠한가요? ☐ 줄었다 ☐ 이전과 비슷하다 ☐ 늘었다 ☐ 모르겠다

6. 올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예 ☐ 아니오 ☐ 잘 모름

7. 현재, 학생과의 진로 상담 및 생활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 ☐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담 ☐ 학폭 예방 및 입시위주의 상담
☐ 상호작용 없는 일방적인 상담 ☐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파악 ☐ 기타

V 학사 운영 및 업무

1. 선생님의 학교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등교하고 있나요?

구분	유형(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하세요)		
학년·학급 분리 방식	☐ 학년별로 분리 등교	☐ 학급 내 분리 등교	☐ 기타
요일·주기 방식	☐ 요일별 등교	☐ 주기별 등교	☐ 기타

2. 현재의 학생 등교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보통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3. 코로나19 이후, 선생님의 학교 업무 비중을 작성해주세요.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수업	담당업무	학교 방역	돌봄	합계
()%	()%	()%	()%	100%

4. 선생님은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가정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 매뉴얼(지침)에 따름 ☐ 담임교사 및 발견교사 혼자 해결
☐ 돌봄/위기학생지원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진행 ☐ 학교 공동체와 협의하여 대응
☐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함

5. 현재, 선생님께서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 ☐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방법 ☐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 ☐ 효과적인 수행평가 방법
☐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 ☐ 학생과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 ☐ 기타

6.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온라인수업, 등교수업, 방역(안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				
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학교의 모습이 더 좋다.				

Ⅵ 학교자치 및 공동체

1. 선생님의 학교 모습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직원의 의견수렴 체계(교직원회의,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가 활성화되어 있다.			
2	코로나19 이전보다 전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3	코로나19 이전보다 학년(교과) 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4	위기 문제가 발생 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고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처리하고 있다.			
5	코로나19 이전보다 우리 학교 상황에 대한 논의 및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보다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7	우리 학교는 학생사안이나 방역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교사 이외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다.			
8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구성원들은 교육과정 및 학생 생활지도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각자의 역량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한다.			

Ⅶ 학교지원 및 개인적 상황

1.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발생 ☐ 온라인 기간 중 학생들의 일탈 행위 발생에 관한 염려
- ☐ 가정 내에서의 방치 및 아동 학대에 대한 염려
- ☐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나친 인터넷 환경 노출 및 부정적인 콘텐츠 접속 여부
- ☐ 기타

2. 현재 상황이 지속 된다면,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
- ☐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양한 협의체 및 정책모니터링 제공
- ☐ 수행 평가 및 지필 평가 비율의 학교 자율권 확대 및 보장
- ☐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 보장
- ☐ 기타

3.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선생님의 퇴근 후 생활은 변화가 있나요?

	줄었다 (줄어들었다)	늘었다 (많아졌다)	이전과 비슷하다
모임 또는 동호회 참석			
운동 및 산책 빈도			
가족(동거인)과의 대화			
병원 및 약국 방문			
혼자 식사하는 횟수			
음식 배달			

4.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선생님의 정신적인 건강은 어떠신가요?

- ☐ 이전과 별 차이 없다. ☐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 병원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나빠졌다.

5.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중이용시설 자제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③

보호자 (학부모)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보호자(학부모)의 생활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는 온라인 개학, 학교 방역 등 학교와 학생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이후, 학교구성원의 일상과 교육 활동 실태,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실시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으로 보다 나은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에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보호자(학부모)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평소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응답해주세요.

응답 내용들은 숫자로 변환되고 다른 사람들의 응답과 함께 통합되어 통계처리되므로 개별 응답자의 소속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분석결과는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경기도교육연구원

문의처 :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연구책임자)

☎ 031-8012-0943 / leejungyun@gie.re.kr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특성 등은 자료 분석을 위해 확인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이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시면 설문시작 버튼을 눌러 조사에 응해주시십시오.

** 고등학교 3학년 자녀(학생)만을 두고 계신 보호자(학부모)님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호자(부모)의 교육지원 및 돌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귀하의 아동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나요?

- ☐ 집(거주지) ☐ 친척집 ☐ 학교 돌봄교실 ☐ 교육기관(학원/독서실 등)
☐ 동네 기관(공부방, 도서관) ☐ 친구네 집 ☐ 기타

2.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귀하의 아동은 낮 시간에 **주로** 누구와 함께 있나요?

- ☐ 보호자(부모님) ☐ 친척(조부모 등) ☐ 형제/자매 ☐ 혼자 있음 ☐ 친구
☐ 가족·친척 외 어른 ☐ 이웃 ☐ 기타

3.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귀하의 아동은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 보호자(부모님, 친척 등)와 함께 식사 ☐ 형제/자매끼리 식사 ☐ 지역사회 기관(공부방)에서 식사
☐ 학원에서 식사 ☐ 혼자 식사 ☐ 가족·친척 외 어른과 식사 ☐ 기타

4. 현재 귀하의 아동은 어떤 방식으로 **등교**하고 있나요?

구분	유형(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하세요)		
학년·학급 분리 방식	☐ 학년별로 분리 등교	☐ 학급 내 분리 등교	☐ 기타
요일·주기 방식	☐ 요일별 등교	☐ 주기별 등교	☐ 기타

5. 현재 아동이 등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보통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6.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의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및 온라인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는 학교의 주요 교육과정, 정책, 사업에 대해 학부모를 참여시켜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학교는 학부모 의견수렴 체계(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가 활성화되어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가 참여할 기회(가정통신문, 설문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를 제공한다.				
학교는 코로나19 이전 보다 학부모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학교의 감염병 예방 대응이 적절하다.				
학교 등교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평가, 교육 활동(창체활동, 방과후교육 등)에 대해 만족한다.				
온라인수업만 할 때 보다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				
선생님에 따라(과목에 따라) 온라인수업 내용에 차이를 크게 느낀다.				

7.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 아동의 **온라인수업을 위한 보호자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온라인수업 때문에 디지털기기/장비(PC, 노트북, 스마트폰, 화상카메라 등) 구입을 위한 지출이 늘었다.				
아동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책, 참고서 등 학습 관련 자료 구입을 위한 지출이 늘었다.				
아동의 온라인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유료 보습/보충학원)가 증가하였다.				
아동의 학습 이외에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				
아동의 학교 일정 공지(온라인수업 안내 등)를 확인한다.				
아동이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과제는 제때 하고 있는지 등 학습 상태를 확인한다.				
온라인수업 시간에 아동의 학습 및 과제를 옆에서 지원한다.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아동의 학습에 대해 학교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증가하였다.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아동의 학교선생님과 학습이외에 진로/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한다.				
나는 아동의 온라인 학습/교육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아동이 미디어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아동이 등교를 하지 않는 날에 점심식사 및 간식을 챙기는 것이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지역은 아동의 돌봄/학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다.				

8.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이 유지될 것이다				
더 많은 온라인수업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수업의 수준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9.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가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가지 선택)

- | | |
|---|---|
| ☐ 학교 방역 및 아동의 위생관리 | ☐ 수업 참여 및 내용에 대한 이해 |
| ☐ 수행평가 및 과제 | ☐ 교우 관계 |
| ☐ 학교 일정 따라잡기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 챙기기) | ☐ 진로·진학(취업 및 창업 등) 교육 |
| ☐ 선생님과의 소통 (수업, 상담 등) | |
| ☐ 방과후 돌봄 | |

10.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에 아동의 돌봄(방과후)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제도가 더 구축되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자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제공,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				

※ 배경 정보

1. 아동의 학교급 ☐ 초 ☐ 중 ☐ 고

2. 아동의 학교 지역

- | | | |
|------------------------------|-----------------------------|-----------------------------|
| ☐ 가평 | ☐ 부천 | ☐ 여주 |
| ☐ 고양 | ☐ 성남 | ☐ 연천 |
| ☐ 구리·남양주 | ☐ 수원 | ☐ 용인 |
| ☐ 광명 | ☐ 시흥 | ☐ 의정부 |
| ☐ 광주·하남 | ☐ 안산 | ☐ 이천 |
| ☐ 군포·의왕 | ☐ 안성 | ☐ 파주 |
| ☐ 김포 | ☐ 안양·과천 | ☐ 평택 |
| ☐ 동두천·양주 | ☐ 양평 | ☐ 포천 |
| | | ☐ 화성·오산 |

3. 귀하의 경제적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4. 코로나19가 가정의 경제에 영향을 주었나요?

- ☐ 심각한 영향 ☐ 어느 정도 영향 ☐ 별로 영향 없음

5. 보호자의 맞벌이 여부 ☐ 예 ☐ 아니오

6. 아동 외에 가정(거주지) 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나요? ☐ 있음 ☐ 없음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교육 :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2020년 8월 30일 인쇄
2020년 8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이 수 광
- 발행기관 (재) 경기도교육연구원
(1628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누리집: <http://www.gie.re.kr>
전 화: (031) 8012-0900
전 송: (031) 8012-0980
- 등 록 일 2014년 04월 28일
- 등록번호 제374-2014-000034호
- I S B N 979-11-89831-90-5 (93370)
- 인 쇄 Design세창 (T.1544-1466)

코로나19와 교육 :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